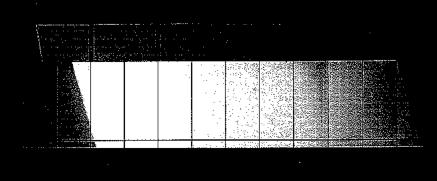






1914 **1 0** vol. 165

전투문회의 하면 됐어서 라오게 3천의 의미
 등복기기 최목적인 의미의 교육전자문회에서 문제
 이면서마는 개최6점의기자이 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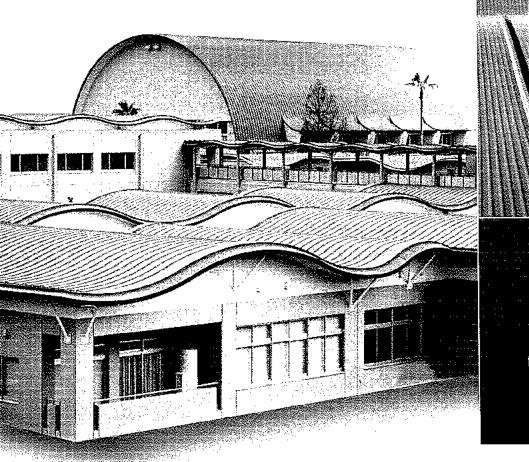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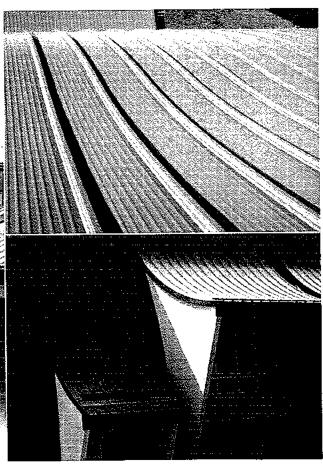
역약교육으로(III) ÖN

也是 些則強利亞

무한한 공간에 힘차고 부드럽고 날렵한 곡선을 …

바른(正)ARCH와 역(逆)ARCH의 아름다운 조화를 금속 지붕의 가장 큰 장점인 한 장의 지붕판에서 시 워의 BOLTLESS SW-500은 실현 합니다







신원기계공업(주) SHIN WON CONSTRUCTION CO., LTD.



건축과 문화와의 만남을 위한 전시공간 「Architect's Gallery」가 개관을 하였습니다.

건축사협회 회관 1층에 문을 연 아키텍트 갤러리는 60여평(198㎡) 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전시공간으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최신의 조명시설과 이동식 중간벽체를 설치하여 전시규모 및 특성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개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전시장 대관 및전시안내

또한 저렴한 대관료(1일 5만원, 부가세

별도)로 건축인은 물론 관련단체나 학생,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분야 외에

대관문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용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출구 150m 지점) 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이 기능한 다목적 전시공간입니다.

건축인 작품활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건축과 문화 체험

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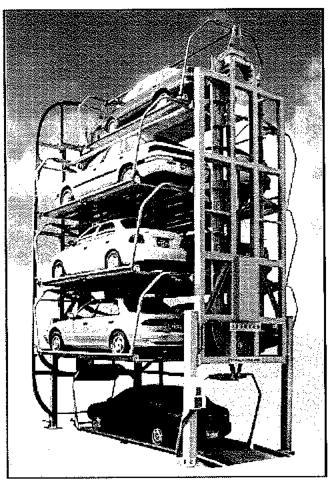
Architect's Gallery 전시안내

- 건축가 미술전 '99 / 99, 10, 22 ~ 10, 30
- ※ 안양과학대 졸업작품전 / 99. 11. 4 ~ 11. 6
- 제5회 아카시아 작품전 / 99년 12월 중 전시예정

인정서번호 대구 쟤1~15호

]로타리식

酒者生存의 新圆期争将代 "자신 있습니다"



왕사를

보 웰 명	수용내수	의형지수(전폭, 전상	소요높이)
SKY PARK8	9CH	4570	5990	9370
SKY PARK7	7 4 8	÷	•	9480
SKY PARK6	60∦	; ¥	¥	7590
SKY PARK5	원대			5700

호독그런처럼 호용가능 (※단시3)용 대접원도 가방증

☞ [**末柳菩] Pt를 파지 않**고 2대로 연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수차2法 있음 (민집번호:다구 제4~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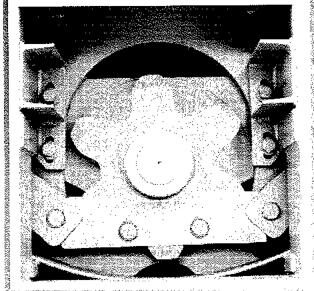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더 이상의 고품질은 사치다!! 더 이하의 저가격은 덤핑이다!! 더 이하의 주차가 쪽은 물가능하다!!

세계되소의 주차기폭 4.57*를 실현한 초슬립형



² 이렇게 다릅니다 -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작결구동의 新메커니즘



사상대

- 엄청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더욱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 구동보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형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멸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왼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수출상임 및 전국대리점 모잡중



21세계 친주차개념의 주체가 전문회사

CHANG GONG IND

주소: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56-271번지 AOD:#756-271, Gum Sa Dong, Dong Gu, Tae Gu, Korea H+P:011-507-8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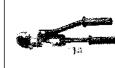
계측기 및 전설공구 · 법정장비

자동염군측정기(AG 100 0.00) ~ 1,5%)

누설전류계 Multi 140 ∮40 m/m 0.01m3~300m3

활선상태에

Ā



유압식 단재 압축기

9H-'50(14°~150°)

콘크리트테스터 함마 NSR2 특십





토막두께 측정기 HSE-8601

유압식 철판천공기 SH-10(2~3~4~)

특고저앝검전기



독재함수율측정기 M5700 5~36%



전통계3140









접지저항계4102 0-1000Ω



MODEL 2007 600A 750V MODEL 2002 2000A 750V



절연저함계 3165 500V1,000M 3166 1.000V~2.000M



절연저항계(3123)10.000V



온도기록계 SR 1.000

기록계



누설전류계 MCL-800D ∮80 m/m 0.1a4~1,000A 누전사고예방

DIGITAL절연저항계

250V 50M, 500V WOM, 1,000V 2,000)%

COS MOS 가스 측정기 LNG LPG×P 702SA

. - 측정기



유압 압착기 I2호 A (14°~325°)

DIGITAL

조도계(1330)

0.1~20.000



전성압축기(유압식)

EP 430(Y-35)

유압 수등 펌프 HP 70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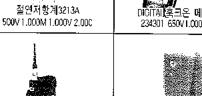


- 비접출성온도계 \$13Lm **4**32∼400℃ \$16Lm -32∼500℃





다기능계측거 MET500



절연장갑

DIG:TAI

소음계(1350)

35-130db

234301 650V I.000A



접지저함계 3235



후크온식 접지저항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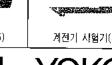
계전기 시험기(8510)



특고압 COS조작봉

3단4M 5단6M





절열유 시험기(HD55)

절연유산가측정기(HD 101)



KYORITSU 압착기 **IZUMI**

KIKUSUI 내전압 시험기 MULTI 누설전류계 MUSASH O.T 테스타 계측기 HIOKI

메가 훅크메타 이쓰테스티 소방장비 차압계

OKOGAWA

내전압 시험기 제작전문

(주)현대전기 계측기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9-1 TEL: (02)279-0427. 278-3944

FAX: (02)273-8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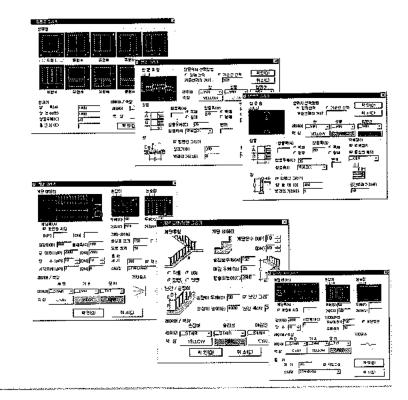
IntelliARC는 IntelliCAD를 국내 건축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며 CAD 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설계 작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건축 전용 설계 지원 소프트웨어입니다.

주요기능

- **⊗ IntelliARC Tools**
- (건축설계 지원도구)
- (건축설계 용용 도구)
- Symbol Library
- (어때트 및 건축물 도면요소)
- © User Library
- (사용자 예약심볼 불록 DB)
- © Drawing Manager
- (도면의 View & 도면관리)
- ⊗ IntelliARC CAD 한글
- (자체 CAD 한글 지원)
- SIntelliARC Interface
- (IntelliCAD, AutoCAD 호환및 설계자원의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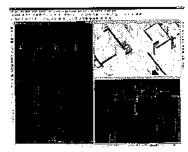
적용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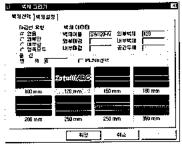
- ⊗건축물 설계
- 이파트, 상업건축물, 주택,
- 주상복합건물, 철골, 굉장, 인테리어



Minner.

- ® AutoCAD R11~R14와 완벽에 기까운 호환
- ভ AutoCAD와 통일한 형식의 때뉴 채택
- ◈ 대부분의 Autolisp 프로그램은 변형없이 작동가능
- ◎ 동시에 수 많은 DWG 파일 Ôger이여 작업가능
- ◎ 진한글내장





건축사를 위한 특별판 프로모션

IntelliARC98+IntelliCAD98 → ₩1,645,000 ₩850,000 → IntelliARC98+IntelliCAD98+진한글 (IntelliARC 2000 / IntelliCAD 2000 무상 업그레이드)

- ⇒ IntelliCAD 2000 버전 11월 출시합니다.
- ☞ 프로모션은 12월까지이며 이후는 정상가격 환원합니다.
- 🏿 설치비, 전문교육비는 실비이며 사용자 선택 사양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별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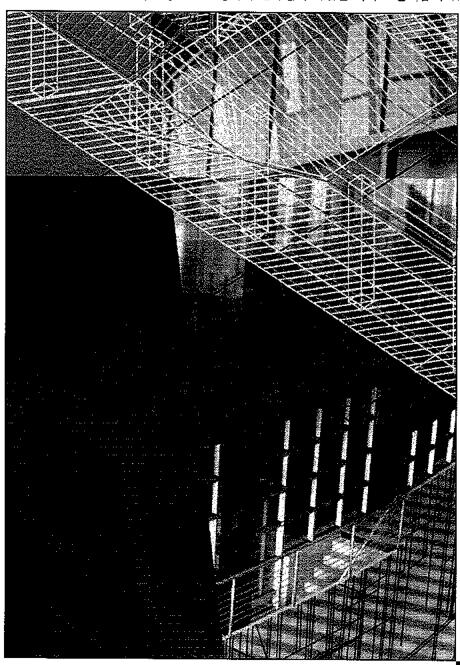
소 다이나웨어 씨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2동 53-22 3F TEL:02-2214-0586 FAX:02-2244-0386 E-mail:iarc (천리안,하이텔,유니텔) http://user.chollian.net/~iarc

IntelliCAD는 Visio사의 등록상표입니다. AutoDESK사의 등록상표입니다.



개념설계에서 실시설계,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 작업을 하나로 끝내줍니다!



AutoCAD Architectural Desktop R2

공사용 도서작성만 되던 기존의 건축설계 소프트웨어 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초기 개념설계에서 마지막 공사 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의 전과정에 걸쳐 활용의 폭 을 넓혔을 뿐 아니라 실설계 작업도 객체지향(Object ARX)기술을 도입, 대폭 단순화 시켰습니다. 창문을 불 러와 사이즈를 변경하고 변경된 위치에 넣는 작업이 한 번에 끝납니다.



- -건축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
- -Model Explorer를 이용해 더욱 손쉬워진 Mass Study
- -유형기반 AEC 객체 지원
- (벽체, 문, 창호, 기둥, 계단, 자붕...) -문맥 감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나열되는 팝업 메뉴
- -도서양식을 표현하기 위한 뷰 시스템에 의한 뷰 종속적인 객체 표현
- 건축요소와 관련된 각종 일람표 및 보고서 작성

ADT Visualization Suite

ADT R2+3DS VIZ R2통計即因

ADT 로 작업한 3차원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편집, 렌더링, 애니메이션화 하여 통합 프리젠테이션 환경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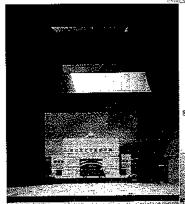
- 풍부한 재질 및 조명효과
- ADT파일과의 완벽한 호환
- Panoramic 렌더링 지원
- DWG Linking 및 ObjectARX™ 애플리케이션 지원
- 수백기지의 AEC 객체 샘플 및 유연한 3D 객체 스냅

건축기를 위한 신개념 AutoCAD

건축/엔지나어링/측량 협력업체

(주)간케드 584-6480, (주)라인테크시스템 569-1814, (주)에너테 2271-1781, 한국씨,이이.엠(주) 515-3167

Architectural Desktop









82

인천 가톨릭대학교(강석원 作)

발행인: 이의구 편집 · 기획 : 편찬위원회

위원장: 장양순

위원 : 김정희, 조인숙, 조현군, 최동규

편집 · 취재 : 정효성 , 조한국 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펙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E-mail: hkjo@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266-4555

광고: (주)이두컴 (02)518-6856

Publisher: Lee Eul-Koo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Cho in-Souk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D.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The state when each the proof 1/7(0) and		10
칼럼 	건축문화의 해에 있어서 BK21 선정의 의미 	정진원 	10
특별기고	건축상의 의미와 한국건축문화대상 문제	최영집	12
아카사아 / 제*	 10차 아카시아 포럼		17
	개회사/치사/축사/기조연설		18
	주제토론		22
	제5차 아카시아 건축상 수상작		39
포커스	인천 가톨릭대학교	강석원	56
테마기획 / 지	역건축탐방 [4]: 제주(상)	편집디렉터/김홍식	63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신석하	64
	제주의 전통건축	신석하	66
	제주 근대시기의 건축	양상호	72
작품노트	밀양 보건소 · 노인복지회관	김성곤	79
회원작품	아치산휴개소	류춘수	82
	대구은행연수원	변용·정현화	84
	수가화랑	점 종영	86
	일산마두 동주 택	이 동 칠	88
	해관유치원	최승원	90
	신동아교회	01용안	92
	광릉 아테네 호텔	이종윤	94
해외건축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9)	김미상	96
건축마당	건축만평		_102
	협회소식	<u></u>	103
	건축계소식		_108
	해외잡지동향		_113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999년 8월분)		_118
	회원현황		_120

Contents - Vol. 365 October 1999):

Column Meaning of BK21 Selection in the year of Architecture	Chung Jin-Won	10
Special Feature		
The Value of Architectural Prizes and Problems in Korean	Choi Young-Jip	12
Architecture Awards	oner roung out	
ARCASIA / ARCASIA Forum 10	NIA.	17
Opening Address		18
Paper Presentation		22
The 5th ARCASIA Awards		39
Focus		
Inchon Catholic University	Kang Suk-Won	56
Theme Study /	·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Cheju	Kim Hong-Sik	63
Culture, History and Natural Invironment of Cheju	Shin Seok-Ha	64
Traditional Architecture of Cheju	Shin Seok-Ha	66
The Architecture of Cheju in the Modern Era	Yang Sang-Ho	72
Design Note		
Mirang City Health Center, Welfare Center	Kim Sung-Gon	79
Works	u.	
Acha-san Rest House	Ryu Choon-Soo	82
Taegu Bank Trainning Institute	Byun Yong & Cheong Hyun-Hwa	84
Suga Gallery	Jeong Jong-Young	86
llsan Madu-dong Residence	Lee Dong-Chil	88
Haekwan Kindergarten	Choi Seung-Won	90
Shin-dong-a Church	Lee Yong-An	92
Kwangreung Athena Hotel	Lee Chong-Yoon	94
Overseas Architecture	**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9)	Kim Mi-Sang	96
Architects' Plaza		
Cartoon		102
KIRA News		103
Archi-net		108
Overseas Journal		113
Statistics		118
Members		120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공남구전축시회/317-307 - 강동구건속시회/404-6840 - 강독 구건축시회/903-3425 · 강서구건축시회/604 · 7188 · 관약구건 축시회/884-0048 · 망진구건축시회/406 · 3244 · 구모구건축사 회/864-5828 · 노위구거축사회/935-876 · 동대문구건축사회 /923-6213 · 동작구건축시회/935-8026 · 마포구건축사회 /333-5251 · 서대문구강축시회/333-6411 · 서초구건축시회 /3474-6100 · 성복구건축시회/322 5117 · 송피구건축시회 /423-9158 · 양천구건축시회/924-8040 · 영동프구건축시회 /885-2143 · 용산구건축시회/717-6607 · 은평구건축시회 /386-1436 · 종로구건축사회/717-358 · 도봉구건축시회/930-8728 · 중당구건축시회/437-7358 · 도봉구건축시회/930-8720 · 성동구건축시회/292-5855 · 금찬구건축시회/859-158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8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굉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31)247-6129~30

고말지역건축사활/(0342)863~8902 - 황명건축사회(02)684-6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563 2337 - 부천지역건축사 회/(032)664-1364 - 영남사업건축사회/(0342)755-5445 - 수 원지역건축사회/(0331)241-7987~8 - 사용자역건축사회 /(032)694-4121 - 안난건축사회/(0346)489-913) - 안받지역 건축사회/(034)449-2638 - 외정부지역건축사회/(0351)657-6149 - 아건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광택자역건축사 회(0333)657-6149 - 오산건축사회/(0339)375-8648 - 용인지 역건축사회/(035)339-6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강룡지역건축사회(0391)653-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 /(0394)531-8706 - 호초지역건축사회/(0092)633 5091 - 영월 지역건축사회/(00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0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목친지역간축사회/(0475)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 /(0443)543-3869 · 충주지역간축사회/(0441)8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 /(0452)934-3367 - 부야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사 산지역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 /(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

■ 전리복도건축사회/(0652)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날원지역건축사회 /(0671)631-2223 - 약산지역건축사회(065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962)365-9944 · 364-7567

독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 /(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862)652-7023 - 나 주지역건축사회/(082)365-6151

■ 검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자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 /(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451-1537~8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 /(0551)553 - 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635-6975 - 안 동지역건축사회/(0572)86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 (0572)634 - 5500 - 영천지역건축사회/(0572)634 - 5500 - 철 육지역건축사회/(05469)974-7025 - 포함지역건축사회 (0562)244-607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6-4530~1

거째자약건축사회 10558) 635-6870 - 거창시약건축사회 (10598) 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10525) 334-6624 - 미창 지막건축사회 / 10551 1245-3737 - 필양지역건축사회 (10527) 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10593) 833-9779 - 양산 시건축시회(10523) 384-3350 - 진주지역건축사회(10591) 741-6403 - 전해시간축사회(10533) 564-7744 - 동영지역건축사회 (10567) 641 4530 - 하당지역건축사회(10595) 883 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6601

건축문화의 해에 있어서 BK21 선정의 의미

Meaning of BK21 Selection in the year of Architecture

정진원 / 교수,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원장 by Chung Jin-Won

이제 두달이 지나면 대망의 3천년기를 맞게 된다. 2000년은 제 삼천년기의 첫번째 해로써 거룩한 문이라할 수 있다. 이 문을 통하여 인류는 단지 한 세기가 아니라 한 천년기를 넘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크게는 지난 10세기 동안, 작게는 지난 1세기 동안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나던 일듈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이 길로 나아가야 할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건축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하여 과거의 과오와 불충한 사례들, 항구하지 못한 자세와 구태의 연한 행동에서부터 자신을 정확하도록 실천운동에 힘써야 할 것이다. 과거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자세를 강확 하도록 도와주는 정직하고 용기있는 행동이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의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도록 우리를 각성시키고 이를 극복하도 록 준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축반성의 해

올해는 건축분화의 해로써 이제 그 마무리가 얼마남지 않았다. 이어령교수는 99대한건축확회 춘계학술발표대회 특별강연에서 『1990년대초 본인이 문화부장관이었을 때 해마다 열악한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고무적이게 성장시킬 수는 없을까? 또한 서로 반성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을까?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해이다. 』라고 「——해」의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99건축문화의 해』는 특히 20세기말 마지막 해에 열림에 따라서 앞서 필자가 말하고 이어령교수가 성격을 규정한 내용대로 『99건축반성의 해』로 시작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먼저 불러 일으켰었으면 어떠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도 국민들은 수백 수천의 떼죽음과 부상을 몰아온 95년의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의 역사적 비극과 94년에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그들의 되리에서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건축인들이 그때의 일들을 사죄하여 자성하는 실천적 운동은 국민

들에게 다시 한번 「건축은 사고(事故)이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며, 우리 건축인들의 석고대죄하는 겸허한 자세는 어느 정도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99건축문화의 해』이면서도 아이러니**칼**하게도 각 매스컴에서는 우리 건축인들을 매우 질타하는 한해 였다. 어떤 것은 너무 성급하고 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어떻든 우리가 반성하고 정리해야 하는 기회를 다시한번 갖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건축사 상호인정과 독자적 건축인증 교육

I.M.F이전 몇년전부터 유럽과 미국을 위시한 대규모 건축사절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건축설계시장을 공략해온 이래 우리나라의 건축사장은 세계의 유명 건축가들에 의해 많이 설계되고 지어지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더군다나 지난 6월말에 개최된 UIA제2차 북경대회에서는 건축설계용역의 국제적 시장개방을 위해 건축전문직(건축사)의 상호인정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건축사의 국제적기준 설계경기와 해외업무수주 등에 제한을 받게 되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건축기류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늦은감이 있지만 건축 3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배출 인력에 대한 경과조치, 추가교육 등의 대체 방안과, UIA건축교육인증에 대한 기존교육시스템을 분석 연구중에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것을 모두 저버리고 미국의 NCARB나 일본, 유럽 각국의 규정을 똑같이 모방하여 우리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한국만의 독창성이 없는 또 다른 외국의 식민지로 전략하게 될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UIA나 미국 등의 외국기준도 수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장점과 독자성을 최대로 살리는 묘수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외국의 건축교육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교육목적과 방법 및 프로그램을 갖는 건축 설계교육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BK21 선정의 의미

필자가 속한 경기대학교는 92년부터 학부건축교육에 실무 건축가를 중심으로 설계교육을 행하는 한국형 디자인 디렉터 시스템(Design Director System)을 운영한 이래, 그 성과를 비탕으로 하여 95년도에 국내 최초의 건축대학원, 97년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건축전문대학원으로 개편인가를 받았고, 건축문화의 해인 금년 8월말에는 정부의 BK21사업단(21C지식기반 사회대비고등인력 사업의 디자인 특화 사업단)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지금까지 8년여동안 기존의 교수, 강사, 디렉터 및 비평가, 특강과 세미나 관계자들에게 우선 그 공을 돌려야 마땅하겠지만, 무엇보다 건축계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덕분에 건축계를 대표하여 선정된 것에 대해 큰 감사와 그 의 미를 부여하고 싶다.

앞으로 BK21사업의 성공여부는 비단 경기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여러 분야와 경쟁하여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이 유일하게 건축분야에서 디자인 특화사업단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는 99년부터 사업이 끝나는 마지막 해인 2004년까지의 5년 동안은 건축계의 설계업체와 함께 같은 배를 타며 실패 성공의 공동책임을 갖는 입장을 취하게 된것이다. 또한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은 정부가 BK21디자인 특화 사업단으로 선정한 공적인 입장에 있으므로 건축교육 인증시 모델 케이스로 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웬만한 교육 정보자료들은 공개되어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 BK21사업의 예산 중 반은 정부 즉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설계 교육기관으로서 더욱 겸해한 자세로 반성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실천운동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의 건축계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의 BK21선정으로 새롭게 삼천년기를 맞는 한국 건축교육계의 저변에 새로운 기반 조성과 비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건축인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와 격려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를 세계에 수출하며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당겨지리라고 보여진다.

건축상의 의미와 한국건축문화대상 문제

The Value of Architectural Prizes and Problems in Korean Architecture Awards

최영집 / 건축사사무소 (주)건축연구소 탑 대표 by Choi Young-Jip

요즘 세상에는 참 상도 많다. 벼라별 상이 다 있다. 이루 다 상의 종류와 이름을 열거할 수는 없고 대충 상들의 성 격을 분석해 보면 공로를 인정해 주는 상, 명예를 더 해주는 상이 있고 상업적 성격의 상들이 있다. 공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상은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게 자기 뜻을 펼쳐 남이 할 수 없는 업적을 쌓았거나 희생봉사를 한 경우 그를 발굴하여 귀감이 되게 하려는 뜻이 있을 테고 명예를 더 해주는 상은 그 사람이나 또는 작품이 한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하여 각 분야에서 특히 기록해두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주는 상일 것이다. 상물의 종류가 많다 하여도 대개 두 가지 성격들이 대부분이고 시행기관에 따라서 정부 각 부처나 각 기관에서 주관하는 훈장이나 포상 등의 각종 상과 민간단체나 언 론기관 등에서 제정한 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와서 각종 상업주의에 물들고 광고영업적인 차원에 오염된 정체가 애매한 상들이 양산되고 있다. 상이라는 것을 빌미로 수상자에게는 영광을 안겨주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대지만 그 설은 상업 적으로 조작되거나 인위적으로 연출된 상을 위한 상들로서 그 상의 진실과 권위가 의심스러운 상들이 많다. 또 시작은 그렇지 않았 으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상업적인 마수에 걸려들어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변질돼 버린 상도 있을 것이다. 관에서 주는 상이 나 훈장들도 수상자의 선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 수상을 거부함으로서 상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일도 있다. 하여튼 상이라는 것은 스스로 엄정하게 관리하여 날이 갈수록 상의 무게나 빛을 더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그 거창한 이름에 걸맞게 관과 언론과 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왔던 큰 상이다. 건 축계의 상을 크게 가른다면 학술상 · 공로상 · 작품상들이 있겠는데 작품상으로는 건축가협회나 건축사협회 등의 건축작가단체에서 주과하는 상과 서울특별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회를 거듭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건축상들도 점점 권위를 쌓이가고 있고 수상자들에게도 명예와 함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들을 쓰고 있다. 건축전문단체가 매년 시행하는 건축상은 무엇보다도 건축계에서 순수하게 작품의 성과를 인정하고 기록해 나가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성 과를 이룬 작가를 비추고 박수쳐 주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며, 본인에게는 더욱 정진할 수 있는 에너자를 충전시켜 주는 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다 하겠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그러한 뜻으로 건축사협회가 일찍부터 시행에 왔던 건축사작품전이 발전 하여 한국건축전으로 개명되었다가 더 큰 의욕을 갖고 상을 확대하고자 건설부와 신문사를 손잡게 된 것이다. 신문사는 회망했던 일이고 건설부로서도 명분있는 일이었다. 건축사협회가 먼저 제안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협회로서도 상을 더 알리고 상의 권위와 실 리를 더하는데 건설부와 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7회를 거듭해오면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협회의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언론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없었고, 관이 개입되어 오히려 불편한 관 계로 변질되어 온 것이 현실이었으며, 특정 신문사의 광고영업에 들러리 서는 꼴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는 신문사의 입김이 날로 커 져 심사를 좌지우지하려는 일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협회에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98년 정기총회와 99 년 임시총회에서 관련예산을 작감하고, 제8회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불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2000년, 21세기,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는 협회의 새로운 자존의 각오이기도 하고 다 시 태어나려는 진통이기도 한 것이다. 정부 관리 단체에서 스스 로 독립된 전문가단체로 전환하려는 뼈아픈 몸부림이기도 한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권유와 신문사측의 회유가 그치지 않았 지만 어떠한 압력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굳굳하게 협회의 방침을 지키기로 하였다. 당황한 신문사는 건설교통부를 통해 단독으로 강행하기로 하고, 「99 한국건축문화대상」작품총품을 회원들에게 독려하기 시작하였고, 과정과 영문을 모르던 일부 회원들은 출품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일부 건축사의 마래를 걱정하는 젊은 건축사들이 회원들에게 상황을 알려야겠다는 충정으로 알림장을 돌리기도 하였다.

건축사협회는 명실공히 이제는 운명을 함께 해야하는 공동운명체인 전문가단체이다. 우리의 권약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21세기에 새로운 우리의 위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러한 문제는 단지 「건축문화대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이라는 보호막, 국내시장이라는 울타리는 없 어지고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는 냉냉한 상황속에서 우 리의 일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만들어나가야 하는 현실만이 있 율 뿐이고, 우리의 위상제고와 건축문화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뿐이다. 건축분화대상전의 탈퇴 는 이제까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건축사의 자존심을 지키. 려는 생존의 저항이다. 건축문화를 건축시가 책임진다는 선언 이기도 하며, 건축만은 각종 상업주의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한 다는 결단이기도 하다.

이제 경제나 모든 제도가 관과의 연결을 끊고 자생력을 갖추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공기업은 민영화되고, 국 전은 민전이 되고, 각종 규제나 보호도 사라지고 오로지 실력과 능력만이 세계화시대를 살아가는 무기일 뿐이다. 이런 냉엄한 현실속에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나이가야 할 방향을 즐기롭 게 모색하고, 개인을 위해 협회도 살고 협회를 위해 개인도 살 아야 한다는 물과 고기의 심정으로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건축문화대상전 문제는 그 작은 시험에 볼 과하다. 뜻을 모으고 단합된 힘을 보이면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작금의 현실속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돌아다녔던 마지막 알림장을 공개하며 혹시 모르고 있었을 회원들에게 문제의 진실을 전하고자 한다.

『99한국건축문화대公』전 문제와 우리 건축사의 행동 방향

건축작품 제작에 여념이 없으실 건축사 여러분의 건강과 건축계의 발전 더불어 우리 건축문화의 정착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건축사에도 수립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건축문화창달의 사명감으로 597건축문화의 채.. 각종 행사를 아주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계의 헌신 속에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거축이 이게 단지 건설의 일부가 아닌 문화의 주역임을 자꾸한 때문 이기도 하고, 그 주인공이신 건축사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99건축문 화대상전 거부운동을 통해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관과 선론 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축사가 관의지시나 언론의 횡포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우리의 문제를 대하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가 정실 리 요구됩니다.

서울경에신문사는 이번 사태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철충안으로 협회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어 떤 경우라도 그들의 기본자세가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급 한 나머지 각 사무소에 연락하여 누구 누구도 내기로 했다하 며, 출품을 종용하거나 회원간의 의견대립을 조장하는 여간 책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천명하신우리 공동운명체건축사여러분!

관은 이미 우리의 보호자도 아니고 울타리도 아닙니다. 보 수요율은 철폐되었고 국제적인무한 경쟁시대제살깍이먹기 식의 치열한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단합하여 한목 소리로 우리의권익을 지켜나기아만합니다. 일부언론은 항상 건축계를 부정적으로만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건축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슬픔과 작품속에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1000년을자랑스럽게 후손에게넘겨주기 위해지금의 고생을 참고새툴을짜기위해우리모두힘을합쳐노력합시다.

개인적인 욕심이 생기더라도 조금만 참고 어떠한 유혹에 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멋있고 권위있는 건축상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때까지 계속좋은 작품들을 만 들고 계십시오, 찬란하게 발표할 기회가 올때까지 인내로 기 다리십시오.

감사합니다.

1999,10. 『건축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임』

제10차 아카시아 포럼

ARCASIA Forum 10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소속 16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제10차 아카시아 포럼(ARCASIA Forum 10)」이 지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됐다.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Technology and Tradition in Architecture)」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포럼에 는 약 1천여명의 각국 건축사와 협회관계자, 일반인 등이 참가해 최근 국제 현안으로 떠오른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 문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한 깊이있는 논의와 함께 건축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를 가졌다.

14일에 있은 개회식에서는 이의구회장의 개회사야 이어 김종필국무총리와 피키시 아카시아회장 그리고 스쿠타스 UIA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제4회 이카시아건축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MIT공대의 스탠포드 앤더슨 교수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또한 포럴기간중에 WTO에 의한 국제시장 개방에 따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문제에 대해 스쿠타스 UIA회장 등 국제유력인사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아카시아 이사회 (ARCASIA Council Meeting)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의 UIA가입 신청지원을 위한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고, 아카시아 교육위원회(ACAE Meeting) 워크숍을 통해서는 각국의 교육실정과 인증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이라는 이번 포럼의 주제에 대해서는 기술시대에 전통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 는 이유 와 건축기술이 전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의 두갈래로 나누어 논의를 펼쳤다. 주제발표자로는 Nela De Zoysa(스리랑카), Michael McNamara(영국), 김석철(이키반), Jean Francois Blassel(프랑스), Hiroshi Naito(일본), Kenneth Yeang(말레이지아)이 참여했다.

제5회 아카시아건축상 수상작으로는 단목주택부문에 Seiichi Kubo(일본)의 「The House with Orange Flowers」, 다기구주택부문에 Anthony H H Ng(홍콩)의 「Verbena Heights」, 상업용건축물부문에 Bing Kwan(홍콩)의 「City Tower」, 연구소/사회시설부문에 김석철의 「제주영화박물관」, 산업용건축물부문에 Nela de Zoysa(스리랑카)의 「BMW complex」, 보존시설부문에 Richard K F Ho(싱가포르)의 「12 Koon Seng Road」가 각 부문별 선정됐고, 휴양 지/레저/호텔부문과 특수건축물부문에는 해당작이 없었다. 제11차 이카시아포럼은 2001년 9월경에 싱가포르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아시아건축의 희망찬 비전

이의구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번 행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종필 국무총리님과 이건춘 건설교통부 장관 남 그리고 내빈 여러분과 전국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멀리서 한국을 찾아주신 피카시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 장님과 스쿠타스 UIA회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단 여러분을 대한건축사협회 7천여 회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압니다. 이 번 포럼은 아시아 각 회원국 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건축의 공통과제와 현안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하고 미래의 비전을 조 망하는 중요한 국제학술행사입니다.

특히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제10차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포럼은 그동안 급격한 서구문화의 유입속에서도 건축문화의 전통보전에 힘써온 아시아 국가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켜감에 있어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기를 논하는 역사적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세기도 불과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21세기는 지식 · 정보시대인 동시에 문화가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건축분야 또한 한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자 국가적 역량을 대변하는 자산잎을 감안할 때 건 축문화 창담의 사명을 책임지고 있는 건축사들로서는, 한세기의 전환점을 맞아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세계는 대륙간 경제블럭화와 무역장벽의 철폐 등 새로운 경제질서의 흐름들이 국경없는 지구촌시대의 도래를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문제가 국제적인 현안으로 부상하는 등 세계 건축시장에 큰 변화의 기류 가 일고 있습니다. 아시이건축의 21세기 건축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가져다 줄 이러한 호름들은 각국 건축사들이 더욱 확고한 동반자 관계로서 변혁의 중심에 서서 미래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은 어떤 가시적 성과나 결론 도출의 중요함은 물론 아시아 건축사들간 공동인식과 연대강화에도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회원국간 기술 · 정보교류 및 우의증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아시아건축의 회망찬 미래를 밝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포럼준비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마마시아 교,리 저사 arcasia forum

21세기 건축문화의 발전방향 모색

김종필 / 국무총리

오늘, 「제10차 이키시아 포럼」이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각국 건축사 여러분의 한국방문을 환영 하는 바입니다. 먼저, 32년전 아시아 16개국의 건축사단체들이 한테 모여 결성한 '아시아건축사협의회'가 그동안 건축정보와 기술 을 서로 교류하면서 아시아 건축문화에 크게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고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건축분야에서 아시아의 비전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아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국의 건축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한 이번 학술대회가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21세기 건축문화의 방향을 제시 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있어서 올해는 '건축문화의 해 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지혜가 건축문화의 뜻있는 이 해에 우리에 게 좋은 조언과 결실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흔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말 합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지금 세계는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건축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과학문명의 발전은 지구촌의 건축문화와 이에 따르는 인류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초가나 기와쟐 같은 목특한 전통양식의 건축물이 날로 줄어들고 있고, 신겨술에 의한 전혀 새로운 건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압니다. 나라마 다 나름의 전통을 계승해온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도. 사정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문화와 전통의 측면과 과학과 기술의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켜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인가가, 오늘날 우리 들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국의 다양한 건축문화 속에서 활동해온 아시아의 건축전문가 여러분이 어 떻게 한자리에 모여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이란 주제로 새로운 21세기 건축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대해, 모든 사 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이 각국의 문화전통과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바탕 위에서 인류의 새로운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미래의 아시아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각국의 건축문화를 더욱 발전 시키는 알찬 소득을 얻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카시아 포럼」의 개막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면서,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희원합니다.

arcasia forum XIXI.

건축인의 새로운 도약 기대

이건춘 / 건설교통부장관

제10차 이카시아 포럼에 참가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신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시아지역은 지난 20년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경제성장으로 도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대형건축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지역의 건축물 형태와 양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건축분야에서의 아시아 비전을 조망해 보는 대규모 학술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대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올해를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하여 다양한 학술대회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바 이런 포럼은 더욱 더 뜻이 깊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서구 과학기술만을 추구하여 아시아의 지역적 고유성과 소중한 전통을 소홀히 연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별 특성이나 지역적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아름다운 풍습과 귀중한 문화유산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세계확란 모든 국가가 하나로 같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나라별로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화될 때 더욱 값진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분야 역시 과학기술에만 의존하여 지역별 특성과 개성을 통한시 한다면 획일화된 건축문화속에서 우리의 도시환경은 삭막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이면 새로운 도약의 시대인 새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 천년에는 인류역사상 일찍이 보지 못했던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모든 분야에 걸쳐서 현재와는 또다른 더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주제가 시사하듯 전통과 기술의 조화로움속에 새로운 삶의 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건축사의 역할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번 국제행사가 미래의 아시아건축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건축문화로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적으로는 개방화의 거센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WTO출범이후 국제교류가 활발히 추진되면서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건축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6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건축가연맹인 비교통회에서는 「건축가에 대한 국제적 장려기준인」을 채택하는 등 건축설계분야의 개방화 추세가 가속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건축설계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가간 건축사자격상호인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각국의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토론회인 만큼 이시아 건축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펼쳐져 이시아 건축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번 포럼을 유치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대한건축사협회 이의구 회장님, 또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사의 위상을 드높이고 아시아 건축인이 새롭게 도약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카시아 프로네 arcasia forum 크샤

건축사들의 유대강화와 정보교류의 장

피 카시 / 아카시아회장

제20회 아카시아이사회, 교육위원회 및 각종 부대행사와 함께 개최되는 「제10차 아카시아포럼」행사를 대한건축사 협회에서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88년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 힘이 있으므로 이번 행사 역시 대단히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카시아는 아시아지역 16개국의 건축사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약 10만명의 건축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카시아에서는 아시아지역의 저명한 건축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주제 및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포럼이나 연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의 주제인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은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의 환경이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논의된다는 점에서 더욱 커다란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사회 각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진보 가 이루어지면서도 전통적 가치와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어 이번 주제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은 기술적으로 진보된 환경 내에서 전통건축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국가 중 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제는 특히 아시아의 건축전문가들에게는 더욱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아시아지역을 비롯한 세계각지의 전문가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며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 회가 될 것이며, 아울러 아시아의 건축사들의 상호 유대강화는 물론 폭넓은 정보교류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계최되길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친구와 동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아카시아 프,러. arcasia forum

세계 건축문화 발전에 아카시아의 역할 기대

바실리 스쿠타스 / UIA 회장

세계건축가연맹을 대신해서 제10차 아카시아포럼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에 이렇게 저명한 건축사 여러분들이 참여한다는 자체가 주제의 중요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적인 회의의 개최지로써 얼마냐 중요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가 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세계건축가연맹 총회가 열린 것은 북경이 처음이었지만, 북경회의가 성공리에 마쳐졌다는 자체가 앞으 로 여러 가지 도전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시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건축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건축에 있어서 전통과 기술이 항상 공존해 왔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미학적인 발전들은 바로 기술적인 발전 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전통적인 건축물이 다 보존된다고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보존하고 싶은 건축물들이 입자 가 전통적이었기 때문에, 예름들면 한국에 있는 궁궐같은 것들은 입지가 전통적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보존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그 렇지 않은 것들도 보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와 함께 세계건축가연맹은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 보존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산과 문화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건축물 보존 노력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보존은 건축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그와 여러 활동을 통해서 건축물과 여러 문화적인 유산 보 존에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기술과 전통의 병존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공평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장자크 루소가 오래전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만 또 그중에서 특히 다른사람보다 더 평동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유 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경제적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건축사 들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들이야말로 기술과 전통과의 균형을 염두에 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봉경에서 열렸던 회의의 주제는 「21세기 건축」이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과연 우리가 21세기를 맞을 준비가 되 어었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는 인구가 가장 많기도 하지 만 통사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맡고 있는 문제들이 세계 어느지역보다도 아시아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도 그만큼 더 아시아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아시아가 앞으로 건축의 면에 있어서도 가장 급격한 성장을 겪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카시아는 앞으로 이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미지막으로 앞으로 세계건축가연맹의 활동의 외미가 있기 위해서는 지역기구들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아카시아포럼에서도 마찬가지의 메시지가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건축가연맹 응 대표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빕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20세기 들어서 모던건축이 유행하면서 새로운 건축에 대한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이런 시도들은 건축기술의 발달에 의해 지원되었고 타당성을 획득하였다. 레이너배넘(Reyner Banham)같은 건축 비평가는 새로 발견된 건축적 기술에 의해 지어 지는 풀러(Buckminster Fuller)의 돔형태를 새로운 건축의 상징으로 극찬하며 전통과 결부된 어떤 형태의 건축도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풀러의 돔형태가 제시된 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물론 아직도 체육관 등 특별한 구조를 요하는 곳에는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건축을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건축은 과학과 기술에 연계되어 있고 과학과 기술의 시작은 과거, 전통의 밖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건축 역시 전통과의 연계를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논리였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이 전통 밖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가정자체가 그릇된 발상으로 모든 과학과 기술은 과거 선배들의 수없는 실수와 시도를 먹고 꽃피우게 되며, 더구나 건축은 과학과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아니기에 이런 논의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역사결정론을 논하는 사람들도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발견되면 역사는 그 패러다임으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과 과학의 시대에서 건축의 주제가 기술과 과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론도 완벽한 진리일 수 없다. 한쪽 방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나짜와 소련이 가졌던 문제를 반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건축이 과거로 회귀되어야 한다거나,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고 기술과 과학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축에 있어서 기술과 전통 사이의 역동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영국의 건축가중 그림쇼(Grimshaw)나 노만포스터경, 리차드로저스같은 건축가는 하이테크한 건물을 설계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어진 조건과 건축적 맥락을 존중하며 설계에 임한다. 기술과 과학을 내세워 주변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건축적 설계 접근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프랭크 게리같은 건축가는 옛날 같으면 도저히 그릴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는 건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하며 짓는 가장 현대적인 건축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계획설계를 진행하는 동안컴퓨터를 이용하기보다는 수없는 모형을 만들어 가는 전통적인 설계접근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결정된 안을 컴퓨터 터에 입력시켜 다듬은 후 최종 결과물은 다시 모형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물론 그의 건물은 최신의 컴퓨터 도면 작성기법과 시공기술에 의해 지어지고 대중들에 의해 이 시대 최고의 건물로 찬사받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과거에 못하던 방법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해야 한다'와 같은 의미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피할 수는 없다.

자칫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게리의 건축물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한다. 오히려 요즘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헤르족(Herzog)이나 켄 양(Ken Yeang) 혹은 건축가로 유명하진 않지만 기술과 전통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역 건축가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제시하는 건물들을 주목한다. 환경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며 과거에 사용했던 재료들을 새로운 기술을 통해 사용법을 넓히는 일을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재료들은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재료들로 중빙된 재료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건축적 기술을 통해 과거에 제약이 되었던 많은 것들을 제거하여 과거의 것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스러움이 아닐까 한다. 기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 건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도와주는 것이 기술과 건축과의 관계라 정의해 본다.

아시아건축의 희망찬 비전

이의구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번 행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종필 국무총리님과 이건춘 건설교통부 장관 남 그리고 내빈 여러분과 전국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멀리서 한국을 찾아주신 피카시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 장님과 스쿠타스 UIA회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단 여러분을 대한건축사협회 7천여 회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압니다. 이 번 포럼은 아시아 각 회원국 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건축의 공통과제와 현안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하고 미래의 비전을 조 망하는 중요한 국제학술행사입니다.

특히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제10차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포럼은 그동안 급격한 서구문화의 유입속에서도 건축문화의 전통보전에 힘써온 아시아 국가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켜감에 있어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기를 논하는 역사적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세기도 불과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21세기는 지식 · 정보시대인 동시에 문화가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건축분야 또한 한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자 국가적 역량을 대변하는 자산잎을 감안할 때 건 축문화 창담의 사명을 책임지고 있는 건축사들로서는, 한세기의 전환점을 맞아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세계는 대륙간 경제블럭화와 무역장벽의 철폐 등 새로운 경제질서의 흐름들이 국경없는 지구촌시대의 도래를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문제가 국제적인 현안으로 부상하는 등 세계 건축시장에 큰 변화의 기류 가 일고 있습니다. 아시이건축의 21세기 건축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가져다 줄 이러한 호름들은 각국 건축사들이 더욱 확고한 동반자 관계로서 변혁의 중심에 서서 미래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은 어떤 가시적 성과나 결론 도출의 중요함은 물론 아시아 건축사들간 공동인식과 연대강화에도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회원국간 기술 · 정보교류 및 우의증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아시아건축의 회망찬 미래를 밝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포럼준비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마마시아 교,리 저사 arcasia forum

21세기 건축문화의 발전방향 모색

김종필 / 국무총리

오늘, 「제10차 이키시아 포럼」이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각국 건축사 여러분의 한국방문을 환영 하는 바입니다. 먼저, 32년전 아시아 16개국의 건축사단체들이 한테 모여 결성한 '아시아건축사협의회'가 그동안 건축정보와 기술 을 서로 교류하면서 아시아 건축문화에 크게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고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건축분야에서 아시아의 비전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아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국의 건축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한 이번 학술대회가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21세기 건축문화의 방향을 제시 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있어서 올해는 '건축문화의 해 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지혜가 건축문화의 뜻있는 이 해에 우리에 게 좋은 조언과 결실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흔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말 합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지금 세계는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건축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과학문명의 발전은 지구촌의 건축문화와 이에 따르는 인류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초가나 기와쟐 같은 목특한 전통양식의 건축물이 날로 줄어들고 있고, 신겨술에 의한 전혀 새로운 건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압니다. 나라마 다 나름의 전통을 계승해온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도. 사정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문화와 전통의 측면과 과학과 기술의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켜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인가가, 오늘날 우리 들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국의 다양한 건축문화 속에서 활동해온 아시아의 건축전문가 여러분이 어 떻게 한자리에 모여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이란 주제로 새로운 21세기 건축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대해, 모든 사 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이 각국의 문화전통과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바탕 위에서 인류의 새로운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미래의 아시아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각국의 건축문화를 더욱 발전 시키는 알찬 소득을 얻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카시아 포럼」의 개막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면서,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희원합니다.

arcasia forum XIXI.

건축인의 새로운 도약 기대

이건춘 / 건설교통부장관

제10차 이카시아 포럼에 참가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신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시아지역은 지난 20년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경제성장으로 도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대형건축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지역의 건축물 형태와 양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건축분야에서의 아시아 비전을 조망해 보는 대규모 학술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대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올해를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하여 다양한 학술대회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바 이런 포럼은 더욱 더 뜻이 깊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서구 과학기술만을 추구하여 아시아의 지역적 고유성과 소중한 전통을 소홀히 연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별 특성이나 지역적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아름다운 풍습과 귀중한 문화유산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세계확란 모든 국가가 하나로 같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나라별로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화될 때 더욱 값진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분야 역시 과학기술에만 의존하여 지역별 특성과 개성을 통한시 한다면 획일화된 건축문화속에서 우리의 도시환경은 삭막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이면 새로운 도약의 시대인 새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 천년에는 인류역사상 일찍이 보지 못했던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모든 분야에 걸쳐서 현재와는 또다른 더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주제가 시사하듯 전통과 기술의 조화로움속에 새로운 삶의 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건축사의 역할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번 국제행사가 미래의 아시아건축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건축문화로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적으로는 개방화의 거센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WTO출범이후 국제교류가 활발히 추진되면서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건축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6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건축가연맹인 비교통회에서는 「건축가에 대한 국제적 장려기준인」을 채택하는 등 건축설계분야의 개방화 추세가 가속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건축설계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가간 건축사자격상호인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각국의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토론회인 만큼 이시아 건축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펼쳐져 이시아 건축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번 포럼을 유치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대한건축사협회 이의구 회장님, 또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사의 위상을 드높이고 아시아 건축인이 새롭게 도약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카시아 프로네 arcasia forum 크샤

건축사들의 유대강화와 정보교류의 장

피 카시 / 아카시아회장

제20회 아카시아이사회, 교육위원회 및 각종 부대행사와 함께 개최되는 「제10차 아카시아포럼」행사를 대한건축사 협회에서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88년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 힘이 있으므로 이번 행사 역시 대단히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카시아는 아시아지역 16개국의 건축사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약 10만명의 건축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카시아에서는 아시아지역의 저명한 건축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주제 및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포럼이나 연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의 주제인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은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의 환경이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논의된다는 점에서 더욱 커다란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사회 각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진보 가 이루어지면서도 전통적 가치와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어 이번 주제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은 기술적으로 진보된 환경 내에서 전통건축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국가 중 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제는 특히 아시아의 건축전문가들에게는 더욱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아시아지역을 비롯한 세계각지의 전문가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며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 회가 될 것이며, 아울러 아시아의 건축사들의 상호 유대강화는 물론 폭넓은 정보교류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계최되길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친구와 동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아카시아 프,러. arcasia forum

세계 건축문화 발전에 아카시아의 역할 기대

바실리 스쿠타스 / UIA 회장

세계건축가연맹을 대신해서 제10차 아카시아포럼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에 이렇게 저명한 건축사 여러분들이 참여한다는 자체가 주제의 중요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적인 회의의 개최지로써 얼마냐 중요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가 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세계건축가연맹 총회가 열린 것은 북경이 처음이었지만, 북경회의가 성공리에 마쳐졌다는 자체가 앞으 로 여러 가지 도전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시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건축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건축에 있어서 전통과 기술이 항상 공존해 왔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미학적인 발전들은 바로 기술적인 발전 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전통적인 건축물이 다 보존된다고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보존하고 싶은 건축물들이 입자 가 전통적이었기 때문에, 예름들면 한국에 있는 궁궐같은 것들은 입지가 전통적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보존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그 렇지 않은 것들도 보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와 함께 세계건축가연맹은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 보존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산과 문화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건축물 보존 노력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보존은 건축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그와 여러 활동을 통해서 건축물과 여러 문화적인 유산 보 존에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기술과 전통의 병존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공평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장자크 루소가 오래전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만 또 그중에서 특히 다른사람보다 더 평동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유 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경제적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건축사 들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들이야말로 기술과 전통과의 균형을 염두에 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봉경에서 열렸던 회의의 주제는 「21세기 건축」이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과연 우리가 21세기를 맞을 준비가 되 어었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는 인구가 가장 많기도 하지 만 통사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맡고 있는 문제들이 세계 어느지역보다도 아시아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도 그만큼 더 아시아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아시아가 앞으로 건축의 면에 있어서도 가장 급격한 성장을 겪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카시아는 앞으로 이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미지막으로 앞으로 세계건축가연맹의 활동의 외미가 있기 위해서는 지역기구들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아카시아포럼에서도 마찬가지의 메시지가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건축가연맹 응 대표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빕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20세기 들어서 모던건축이 유행하면서 새로운 건축에 대한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이런 시도들은 건축기술의 발달에 의해 지원되었고 타당성을 획득하였다. 레이너배넘(Reyner Banham)같은 건축 비평가는 새로 발견된 건축적 기술에 의해 지어 지는 풀러(Buckminster Fuller)의 돔형태를 새로운 건축의 상징으로 극찬하며 전통과 결부된 어떤 형태의 건축도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풀러의 돔형태가 제시된 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물론 아직도 체육관 등 특별한 구조를 요하는 곳에는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건축을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건축은 과학과 기술에 연계되어 있고 과학과 기술의 시작은 과거, 전통의 밖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건축 역시 전통과의 연계를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논리였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이 전통 밖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가정자체가 그릇된 발상으로 모든 과학과 기술은 과거 선배들의 수없는 실수와 시도를 먹고 꽃피우게 되며, 더구나 건축은 과학과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아니기에 이런 논의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역사결정론을 논하는 사람들도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발견되면 역사는 그 패러다임으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과 과학의 시대에서 건축의 주제가 기술과 과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론도 완벽한 진리일 수 없다. 한쪽 방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나짜와 소련이 가졌던 문제를 반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건축이 과거로 회귀되어야 한다거나,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고 기술과 과학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축에 있어서 기술과 전통 사이의 역동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영국의 건축가중 그림쇼(Grimshaw)나 노만포스터경, 리차드로저스같은 건축가는 하이테크한 건물을 설계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어진 조건과 건축적 맥락을 존중하며 설계에 임한다. 기술과 과학을 내세워 주변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건축적 설계 접근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프랭크 게리같은 건축가는 옛날 같으면 도저히 그릴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는 건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하며 짓는 가장 현대적인 건축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계획설계를 진행하는 동안컴퓨터를 이용하기보다는 수없는 모형을 만들어 가는 전통적인 설계접근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결정된 안을 컴퓨터 터에 입력시켜 다듬은 후 최종 결과물은 다시 모형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물론 그의 건물은 최신의 컴퓨터 도면 작성기법과 시공기술에 의해 지어지고 대중들에 의해 이 시대 최고의 건물로 찬사받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과거에 못하던 방법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해야 한다'와 같은 의미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피할 수는 없다.

자칫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게리의 건축물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한다. 오히려 요즘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헤르족(Herzog)이나 켄 양(Ken Yeang) 혹은 건축가로 유명하진 않지만 기술과 전통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역 건축가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제시하는 건물들을 주목한다. 환경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며 과거에 사용했던 재료들을 새로운 기술을 통해 사용법을 넓히는 일을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재료들은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재료들로 중빙된 재료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건축적 기술을 통해 과거에 제약이 되었던 많은 것들을 제거하여 과거의 것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스러움이 아닐까 한다. 기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 건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도와주는 것이 기술과 건축과의 관계라 정의해 본다.

주제토론: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

Paper Presentation: Technology and Tradition in Architecture

20세기 초반에 건축은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을 도입하여 건축의 표준화 및 대량생산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인류 주 거공간의 절적 항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세기가 지남에 따라 동일한 그 기술이 오히려 자연 및 전통의 파괴를 불러와 결국 인류의 생 할 수준을 잘적으로 저하시키고 말았다. 오늘날 건축은 기술을 순수하게 상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대적 유산으로 하나의 왜곡된 표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켜가면서 나름대로 그들만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기 술과 전통의 전반적인 관계, 특히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 및 아시아 건축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제10차 아키시 이 포럼은 이런 건축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기술시대에 전통은 왜 계속 유지되는가

인류사회는 오늘날 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술수준을 가진 시대의 건축이 기술수준이 높은 시대의 건축보다 더욱 더 훌 룡한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적절하다거나 혹은 부적절하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 가? 과연 있다면, 성공적인 건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기술수준과 그 사회의 전통과의 조화로운 만남을 가능케 하는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풀어가서 건축기술의 실제적인 의미란 과연 무엇인가?

◇ 기술이 어떻게 전통을 극복할 수 있는가

건축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술혁신이야말로 건축에 있어 신기원을 가져다 주었음을 시시해 준다. 한 사회 또는 건축분 야 모두에 있어 새로운 기술은 돌파구를 마련해 주고, 그 새로운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옛기술을 대체하게 된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건축은 과거 및 현재의 기술혁신에 어떻게 순종 또는 거부하였을까? 기술이 어떻게 건축혁신을 가져왔는 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이 건축관행 및 더 나이가 우리의 주거공간을 얼마나 변형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주제발표〉

□ 건축에서의 전통, 기술, 아이덴티티 / Neia De Zoysa(스리랑카)
□ 도시와 강철, 실리콘에 대하여 / Michael McNamara(영국)
□ 경량성, 신속성, 정밀성 / Jean Francois Blassel(프랑스)
□ 괴감한 건축 / Hiroshi Naito(일본)
□ 전통과 기술에 대하여 / Kenneth Yeang(말레이지아)
□ 전통과 기술의 통합 / 감석철(아키반)
□ 참관후기 / 이필훈(태두건축)

주제발표

[=[^]of "_=1 arcasia forum

Paper Presentation

건축에서의 전통, 기술, 아이덴티티

Tradition, Technology and Identity in Architecture

넬라 디 조이사 / 스리랑카 by Nela de Zoysa



사람의 행동 패턴 은 유전적으로 결정되거나, 배움 의 파정을 통해 습득된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여서 개미나 벌. 거미 등은 대대로 전해지는 직감 에 의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가 하면, 일본 감자 농장 지역에 사는

원숭이나 늑대, 일부 조류의 경우처럼 환경에 대한 적용법을 전파하는 종도 있다. 우리는 자연에서 얻은 영감에서 비롯된 위대한 건축가들의 건축물을 많이 보아 왔다. Antonio Gaudi 의 유기적인 구조물은 개미 언덕의 형태에 비유할 수 있고. Buckminister Fullers 경의 지오데식 돔은 벌잡과 비슷하며, Calatrava의 구조물은 신장력을 지난 거미줄에 견줄 수 있다.

결국 전통은 시간의 시험을 거친 관습과 믿음. 지식과 경험의 집합이다. 아이덴티티는 축적된 정보를 통해 개 인을 식별하거나 알아보게 하며, 존재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 는 일군의 특성이다. 기술은 개인이 환경을 조절하는 방법이지 만, 현대에 와서는 발전된 과학적 지식, 특히 산업, 농업, 커뮤 니케이션, 무역, 의학, 그리고 일상과 연관된 분야의 지식의 활 용을 의미하고 있다. 인간의 창조적 정신에 기초를 둔 신 소재 와 신 기법이 점차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전통은 서간의 시험 을 거쳐 옳다고 검증된 것이지만, 지난 50년간 급격한 변화를 보게 되었다. 즉 전통은 '원시적' 이고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 은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전통은 인간에게 이롭지 않은 것 을 배척하면서 진화한다. 기후, 믿음, 관습이 전통의 저변에 있 는 만큼 문명마다, 시기마다 따른 전통을 지니며, 독자적인 건 설 환경과 아이덴티티, 통일성을 갖게 된다. 또한 전통은 결코 정적이지 않고, 유입되는 영향력에 의해 변화한다. 스리랑카의 전통을 예로 들면, 식민기를 거치면서 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 아 더욱 활발하고 풍성해졌고 순수한 유럽 스타일이 아닌 독특 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전통, 기술, 아이덴티티는 아주 먼 옛날부터 본질적인 것이었다.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구, 환경 및 기후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은 다양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중국 북부의 일부 지역에 가면 땅 속의 개미 집 같은 파 격적인 주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황토 층을 40피트 깊이로 파서 만든 주거에서 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 중청을 통해 채 광과 산소 공급을 해결한 이 주거는 깨끗하고 병충해를 피할 수 있으며, 겨울에 따듯하고 여름에 시원하다. 그 밖에도 진흙 이나 통나무, 대나무 같은 재료들을 사용해 토속적인 기술로 세운 구조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물들은 건축의 관점에서는 무시되고 문화 인류학적 차원의 관심만 끌 고 있다. 석기 시대 이후에는 석조 기술이 주거의 건설에 주로 활용되었다. 이집트 전통 건축의 무덤과 사원으로 대표되는 석 조 기술은 비교적 가까운 과거까지 명맥을 이어갔으며, 중미의 마야 문명의 태양 신전, 10세기 인도의 Kajuraho 사원 등을 낳았다. 또한 드라비드와 아리안 문명과 더불어, 중동의 이집 트, 페르시아, 시리아 문명, 극동의 중국, 일본, 한국의 문명은 수학, 천문학, 인쇄에 관련된 기술적 사고, 그리고 화약의 발명 에 있어서 핵심적인 세력이었다. 석조 기술 이후에는 기둥과 인방을 활용한 건설 기술이 등장하였다. 종교 집회를 위해 보 다 넓은 공간이 요구되면서 둥근 천장과 아치, 돔이 탄생하였 으며, 돌과 벽돌, 목제가 널리 활용되었다. 전통과 기술은 팽창 과 침략의 역사에 의해 상호 교류되었다. 실크로드와 알렉산더 의 정벌, 아랍은 동서양의 문화 교류에 교두보가 되었다. 아랍 과 그리스를 통해 전파된 인도의 방대한 의학 자료는 서양 의 학 전통의 근간을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아시아 의 지적 전통은 격하되고, 지난 몇 세기 동안 만들어진 서양 과 학의 전통이 전적으로 활용되면서 정통적인 지식으로서 대학 및 과학 기술 센터에서 연구, 활용되고 있다.

기술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18세기 후반 산업 혁명과 함께 나타났으며,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 기속적 으로 발전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기술은 1783 년 영국의 산업 혁명에서 시작되었다. 캐스트 아이언은 경이로 운 재료였고, 증기 기관은 팽창하는 제조업의 욕구에 발을 달 아 주었다. 캐스트 아이언에 의한 기술적 발전으로 경간이 긴 다리와 고층 건물이 현실이 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건물은 19세기 도시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Crystal Palace이다. 유리와 철로 된 이 위대한 전시관은 직경 72피트 높이 198피트에 1848 피트x 48 피트의 거대한 공간을 차지 하고 있다. 이어서 1865년에는 세계 최대의 단일 아치 구조물 인 St Pancreas 기차역과 그 시기의 대표적 구조물이자 오늘 날 파리의 상징이 된 에펠 탑이 1889년 세워졌다. 이러한 기 술적 발전은 그 시기의 건축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맨하탄 과 시키고의 고층 건물을 실현시켰다. 이처럼 급변하는 다양한 건축 형태와 사고는 전통을 현대 건축과 괴리된 것으로 여기게 했다. 산업 혁명은 식민 정책을 통해 인도와 실론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남겼다. 1830년대에 가스동 같은 캐스트 아이언 구조물이 등장했고, 1873년 Pettah에 세워진 새 시청 건물에 서도 이같은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영국의 William Morris가 산업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트 앤 크래프 트 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실론에서도 유사한 반작용이 나타났 다. 한편 Ananda Coomaraswamy 같은 실론의 학자들은 영국에서 유입된 이러한 과정과 상품 전반에 대해 회의를 가졌 다. 그는 위대한 건축과 예술의 전통을 물려받은 그들이 영국 인의 하부 도시적 모델을 따르는데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자신 들의 유산을 져버리고 기술적 발전의 이름으로 식민주의 모델 을 포용하는 까닭을 탐구했다.

기술적 발전을 이룩한 20세기 근대기를 있게 한 중대한 사건으로 두 번의 세계 전쟁을 들 수 있다. 두 차례의 전쟁이 끝난 후 유럽의 과학과 수학 개념이 군림하고, 아시아 문 화와 얽힌 전통적인 기법은 서양 문화의 추종적 위치로 전략하 게 되었다. 한편 프리페브 공법과 철근 콘크리트의 발명은 전쟁 이 낳은 수많은 부랑자를 빠른 시간에 수용해야 하는 사회적 요 구쿌 해결했다. 이러한 기술로 인해 건축가는 전통을 져버린 성 낭갑의 제공자가 되었다.

스리랑카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고대 실 론이 지녔던 건축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싶다. 고대 살 론 문명이 기원전 7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실을 밝혀 준 Brahmin Script는 기원전2세기 스리랑카에 강철이 존재했으 며, 궁전이나 공원의 연못을 만들 돌을 깎기 위해 고도의 인장력 을 지난 강철 도구가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또한9세기의 이슬 람 문헌은 18세기 산업 혁명으로 캐스트 아이언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스리랑카에서 강철 기술을 활용했음을 입증한다.

Anuradhapura 시기 (기원전 750 - 12세 기)에는 높은 구조물이 세워졌다. 기원적2세기에 세워진 Jetavana 탑은 높이가 483피트에 달하는데, 이집트의 피라 미드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구조물이다. 고대 실론 구조물이 보여준 기술과 그리스나 로마 문명의 구조물이 시기 적으로 평행선을 그린 경우는 없었으며, 이는 실론 문명이 서 양 보다 앞서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했음을 말해 준다. 기원전3 세기 승려의 집회장이었던 Brazen Palace에는 목제와 돌의 프리페브 기술이 활용되었다. 7층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물에 는 모두 1600개의 돌 기둥이 세워져 있다. 독자적 수리 체계 를 갖춘 Sigiriya 요새와 정원은 5세기에 유래하는데, 세계적 미스터리의 하나로 여겨지는 경이로운 유산이다. 또한 Minneriya 저수조를 비롯한 뛰어난 관개 시설물을 통해 기원 전 250년에 수문이나 밸브를 발명했을 정도의 기술이 존재했 음을 알 수 있다. Anuradhapura와 초기 도시들의 번영은 발 전된 건물 기술과 대형 저수지, 급수 체계 네트워크에서 파생 된 산물이었으며, 여기에 사용된 재원은 해안 도시의 국제 교 역을 통해 확보되었다.

Polonnaruwa 시기(11세기 - 12세기)에는 석회석 몰타르에 벽돌을 쌓는 기술이 널리 활용되었다. 벽돌 지붕이 씌워진 Lankatilake는 이러한 구조물 중 최대 규모로, 길이 124 피트, 높이 100 피트, 신전의 폭이 66 피트에 달한 다. 12세기에 세워진 Alahena Piriyana는 예술 및 과학을 연 구하던 대학 단지로, 뛰어난 디자인의 수술 도구와 저울 등이 발굴되었다. 돌과 벽돌로 된 건물 기술이 차츰 쇠하면서 목제 와 진흙을 사용한 토속적 건물 기술이 발전되었다. 목재는 고 대 문명에서 가장 먼저 활용된 중요한 재료이다. 14,5세기에 목조 기술로 지어진 Embakke devale는 중세 목조 건물의 좋 은 예로, 풍성하게 조각된 목각과 채색된 내벽이 등장한다.

금세기의 기술을 생각할 때 위대한 20세기의 거장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Frank Lloyd Wright는 벽 돌과 돌, 목제 같은 유기적 재료의 가능성을 극대화했으며, 자 연과 융화된 건축물을 승화시켜 환경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만 들었다. Mies van de Rohe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를 외 치면서 미니멀한 개념으로 강철과 유리 건설 기술을 펼쳤다. Corbusier는 롱상과 인도 북부의 찬디가르 프로젝트를 통해 뛰어난 콘크리트 활용 기술을 보여 주었다. 찬디가르 프로젝트 에서는 인도의 석조 기념물의 다양한 색상을 띠는 노출 콘크리 트를 활용함으로써, 인도적 전통을 구현했다. 구조 공학자이자 건축가인 Oscar Niemeyer와 Candela는 현대의 혁신 기술 을 도입해서 구조를 최대로 활용한 강력한 건축물을 선보였다.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Louis Khan의 벽돌 건물에는 그 지역의 벽돌 건물 전통이 활용되었으며, Hassan Fathy의 이집트를 위한 새로운 건축은 지역성, 장소, 이집트인의 아이덴티티를 창출했다. Kenzo Tange는 일본의 기술을 상징하는 구조물을 보여 주었다.

이 무렵 아시아에서는 식민 전통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건축가들이 뿌리를 내렸다. 스리랑 카의 경우에는 아시아 최초의 여성 건축가인 Minette de Silva, Justin Samarasekera, 전설적인 Geoffry Bawa 같 은 일 세대 건축가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서양의 기술을 사용 하면서, 특유의 아이덴티티, 목표, 잊혀진 전통과의 고리를 찾 으려 힘썼다. 스리랑카 독립 이후의 건축가들은 크게 전통주의 자, 현대적 전통주의자, 근대주의자 , 대형 설계 사무소의 네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통주의자: Minnette de Silva, Ulrik Plesner, Geoffry Bawa, C Anjalendran, Vinod Jayatsinghe 전통주의자는 전통적 설계 언어만을 사용한 건 축가들로, 기술을 회피하고 과거에서 현대의 문제의 해결책을 빌어 온다. 식민 전통에 대한 반작용으로 출발했지만, 스리랑 카라는 국가적 차원 보다는 개인적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데 치중했다. 테라코타, 돌, 벽돌, 기타 천연재와 같은 전통적인 건물재를 주로 활용했으며, 열대 건축물의 핵심인 지붕이 건물 의 결정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2. 현대적 전통주의자: Justin Samarasekera, Pani Tennakoon, Anura Ratnavibushana, Mihindu Keerthiratne, Ashley de Vos, Nihal Bodhinayake, Nela de Zoysa 현대적 전통주의자들은 전통에 뿌리를 두지 만 기술을 도입해 열정적으로 솜씨 좋게 활용한다. 이들은 개 인의 차원 보다는 스리랑카라는 국가적 아이덴티티를 세우려 했다. 천연재 뿐 아니라 인공적인 재료의 활용을 서슴지 않아 서, 폴리스티렌, 유리, 강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전통에 뿌리를 두었으면서도 미나멀한 접근을 보이기도 했다. 타고난 모험가이자 탐험가로서 때로는 과감하게 접근하는 이들은 앞 으로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을 실험하면서 다양한 영향력을 일 으킬 창의적 작품들을 내놓을 것이다.

3. 근대주의자: Valentine Gunasekera, Ranjith Alahakoon, Hiranthi Welendawa, Madura Prematilake, Suchit Mohotti 이들은 식민 정책 뿐 아니라 전통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된 역랑있는 건축가들로,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강력한 건축물을 선보였다. 지역적 아이덴 티티를 표현하지 않은, 미래적이면서 우아하고 미니멀한 경향 의 건축을 보여 준다. 그들은 콘크리트와 신 재료, 기술을 이용 하지만, 현대적 전통주의자들처럼 기술과의 유희를 즐기지는 않는다.

4. 대규모 설계 사무소: S. Wickremasinghe (Surath Wickremasinghe 설계 사무소), Lakshman Alwis(Design Consortium), Suranjith de Silva(Design Group Five), Elmo de Silva (Kahawita de Silva 설계 사무소) 이 들 대규모 설계 사무소는 안정적인 건축 행위를 통해 스리랑카 건축에 많은 기여를 했다. 전통이나 기술에 대해 어떠한 친화 성을 보이기 보다는, 건축주의 요구나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 족시키는 건축물들을 창출했다. 이들은 논리적인 접근을 펼치 면서, 현대적 재료에 실질적으로 대응한다. 사실상 도시의 스 카이라인을 책임 지고 있는 이들은 특정 경향에 흐르지 않는 중림적인 설계를 보인다.

결론

누가 다음 세대 건축가가 될 것인가? 그들은 다른 그룹에 속하게 될까? 마이크로 칩 기술이 어떻게 건축에 스며들지를 자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전통이 마이크로 칩 기술의 이름으로 뒷전에 물러서고, 알아볼 수 없는 건축이 탄생될 것인가? 곧 알게 될 것 같다.

주제발표

아카시아 프로네 arcasia forum

Paper Presentation

도시와 강철, 실리콘에 대하여

Concerning the City, Steel and Silicon

마이클 맥나마라 / U.K. by Michael McNamara



서론: 기술이 전통을 제압한다.

영국의 한 텔레비

전 프로에서 Norman Foster는 기장 좋아하는 '건물'로 747 제트 기를 소개했다. 일찍이 '새로운 건 축을 위하여 를 통해 Corbusier가 선박에 대한 논쟁을 일으킨 적이

있지만, 747 제트기는 떠있는 호텔이 아니라 단순한 이동 수 단이라는 점에서 보다 파격적이다. Foster의 접근법은 건물에 대한 개념을 발전된 공학 분야의 고려에 국한한, 기술 전파의 입장을 띤다. 그에게 있어서는 기술이 전통을 제압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 나는 건축가들이 어디에서 나 똑같아도 그만인 제트기를 선호하고 장소에 따른 요건을 무 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행의 목적은 비행기 자체가 아니라 가고자 하는 장소와 그곳의 사람 들이다. 비행기를 만들어낸 과학자들에게 감사하지만, 건축가 들은 장소의 잠재력과 독특함에 초점을 두여야 한다고 주장하 는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의 기술적 발전이 건설 체 계 같은 건설 기술 개념에 치중했던 것에 비해, 미래의 기술은 투영력이나 표현력에 작용한다. 현재의 기술의 혁명은 재료나 방식 보다는 설계 도구에 관심을 둔다. 건설 과정이나 체계가 계속 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의 많은 건축가들은 새 건물 체계가 발전을 보여야만 하는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다. 마치 혁신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앞선 시대 보 다 뛰어나게 보여야 한다는데 건물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없 을 것이다.

이 강연을 통해 나는 우리가 도구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증쪽제나 상상력처럼 작용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영 기법의 관점으로 건축을 재형상화하 는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무엇인가?를 질분 하려 한다. 현재의 가능성은 장소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장소의 특성과 독특함을 부여하는 요소를 증가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대지를 무시하면서 사용되던 정보 기술의 도구 덕 분에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적극적 개요: 동사로서의 개요, 공공 생활의 무대로서의 대지

정보 기술을 통해 건축기를 대지로 되돌리는 첫 단계는 직설적인 것으로, 이 단계는 기술이 요구되기 보다 는 건축 개요를 생각하는 방법만 바꾸면 된다. 일부 건축가들 은 건축 개요를 침실, 주방, 식당 같은 명사들의 나열물로 여긴 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사 내지는 행위의 나열로 생각하고, 이러한 건축적 개요가 갖는 잠재력을 활용한다. 우리는 그 장 소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초점 을 장소로 모은다. 즉 인간의 행위가 설계의 초점이 되는 것이 다. 우리가 설계한 건물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거주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다. 일상 생활의 무대가 되는 도시의 지역과 거리, 건물들은 개인이 맡은 역할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과의 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요를 인간의 행위로, 또 건축을 이러한 행동 의 안무 체계로 생각하고 나면, 정보 기술을 통해 우리의 통상 적 표현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술 은 시간을 설계의 고려 사항으로 재도입했다. 예를 들면 과거 의 도면에서 차량은 평면도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박스 모양이 었다. 오늘날에는 움직이는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차량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단순화되었다. 우리는 시퀀스 (Bernard Tschumi가 영화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 용어)라는 사진 및 컴퓨터 도구불 활용한다. 시퀀스 트로잉과 모델은 건 축 공간 속에서의 과정과 행동을 보여준다. 건축적 배경이 이 벤트에 반음하는 것처럼 나타난 반면, 행동 과정은 차단된다. 시퀀스는 평면이나 단면을 볼 수 있는 표면에 시간을 도입한 것으로, 이러한 복합적 표현은 이벤트를 하나 이상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차단된 물체 대 상호 연결된 환경

행동의 개요와 시퀀스의 활용에 힘입어서, 나 는 건축의 주된 이슈로서 형태에 치중하는 경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설계물에 대한 집작은 건축계에서 풍토적인 것 으로, 건물 혹은 물체의 창출은 결국 계약상의 주된 임무다. 하 지만 건물 보다 환경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프로젝트에 도시 장소의 연결성을 보다 많이 편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각각의 프로젝트를 공적 영역과 연결함으로써 더욱 성공 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건축주를 설득하는 작업도 포함 된다. 이제 형태에 치중하지 않은 다소 색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도구들에 대해 말해야 할 것 같다. Le Corbusier의 베 니스 병원 프로젝트는 부분들의 관계와 구조의 연결을 증대시 켜서, 베니스의 한 모퉁이에 어떠한 특성을 창출했다. 건물 내 부의 관계는 베니스의 패브릭과 연결된 병원의 특성의 일부가 된다. 중앙의 동선 볼륨이나 부분 간의 위계가 없이 기존 도시 와 창의적으로 연결된 이 병원은 도시 환경의 연속성을 추구하 는 현대 건축가들이 볼 때 독창적이다.

Enric Miralles의 작품도 교훈적이다. Archery Pavailion과 Community Center는 연속성과 연결성 의 관점에서 구성된 프로젝트로, 도시 패브릭의 한 모서리와 중 첩을 형성하면서 기존 건물 및 경관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첩적인 공간과 개요는 CAD 프로그램의 레이 어나 층 구조로 즉각 그릴 수 있지만, 우리는 표현에서의 다양한 차원을 보기 위해 중첩적 도면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했다. 시퀀 스 속에서의 시간에서 시작해서 도시 장소에서 작용하는 가시적, 비가시적 요소들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는 밤과 낮, 계절, 날씨 같은 비 인간적 요소들과 시간의 역사적 차원 및 정치적, 제도적, 개인적인 소유권 같은 인간적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다.

상호 연결성, 거기 있는 것과의 조화

어떤 것이 전통이 되려면 얼마나 오래 동안 지 속되어야 하는가? 젊근 콘크리트는 전통적 재료인가? 건축에 서의 전통에 대한 인식은 특정한 건물 문화를 일군 사람들의 소멸과 관련된다. 후세대에게는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유산 이 남겨진다. 흰색의 근대주의 건물들은 세계 대전이 끝난 뒤 영국에 등장해서 빅토리아 스타일의 건물들과 대조를 이루었 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는 빅토리아 건물들이 이전의 전통 적 경관을 변형시켰다. 전통은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으 로, 같은 시기나 스타일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도 독자적인 어 려움을 갖는다. 대도시에서는 특정의 전통적 도시 패턴을 따르 는 것이 특히 어렵다. 런던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대자 들 속에 의미있게 삽압할 수 있는 설계 과정을 개발하게 되었 다. 우리는 이 과정을 상호 연결성 혹은 원래 거기 있던 것과의 조화로 지칭했다.

전통적인 주변 건물과 강력하게 대조적인 새 건물이 어떻게 해서 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상호 연 관 과정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해 대지와 제안을 연 결한다. 우리는 복잡한 런던 내부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 해 사진 프로그램과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분맥적인 접근과 구별된다. 우리는 기존 패브릭에 담긴 의미와 새로운 공간을 화해시키고자 했으며, 이를 위한 지적, 겨술적 도 구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대지의 특성이 인간적 가치를 지녔다. 면,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AA의 학생들에게 연결성의 개념을 활용하고, 각 장소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는 갈등 적인 요인들의 공존을 존중하라고 권한다. 그 장소 뿐 아니라 그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가는 감각적으로 도시를 경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 진적일 수도 있으며, 기존의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새로 운 도시 요소들의 강력한 연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모델

1994년 베니스에서 열린 르네상스 건축 전시 회에 장대한 성당 건물을 묘사한 경이로운 나무 모델이 전시되 었다. 이러한 르네상스 모델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는 모델의 개념이 건축기를 대지, 도시의 패브릭, 그리고 새로운 공간의 건설에 보다 밀접하게 다가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현재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파라 다임이다. CAD 아티스트는 디자인 팀이 발전시킬 환경을 보 여주는 1:1의 전자 모델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의 사진-꼴라쥬 는 David Hockney의 꼴라쥬 보다 더 알아 보기 쉬울 것이다. 골 위치를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진적 특성을 지닌 삼차원의 기존 환경 모델에 점과 선, 면을 직접 배 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 인터넷에 올려지고, 토론과 논쟁을 거치게 될 것 이다. 건축가는 새로운 제안이 개인적 차원을 뛰어 넘어 도시 의 영역까지 연장될 기능성을 건축주와 지역 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그 도시에 적합한 기술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결론

생산 수단의 면에서 건축의 규범은 혁명을 거 쳤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건축가들처럼 나 역시 연 필과 종이로 건축을 배웠다. 설상가상으로 건축은 아래부터 위 까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띠고 있다. 이제는 전통적인 설계 도구가 미래의 건축가 시무실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게 될 것이 라는 회망을 버릴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제도판 이 사라진 것처럼, 기술이 이미 전봉을 제압했다. 하지만 분명 한 것은 새로운 정보 기술 도구의 활용이 그 장소의 의미에 대 한 관심의 부족과 연결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미래에는 건축이 예술 혹은 인문학으로 여겨 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 건축의 이미지 제작 방식이 미술의 그 림을 뛰어 넘었기 때문이다. 아제 건축 창출의 파라다임으로서 의 도면은 쇠퇴하고 있다. 초창기의 CAD 판매 전략은 수작업 과 같은 것을 하는 소프트웨어에 의존했다. 하지만 전통적 도 면을 기초로 한 오늘날의 전략은 매우 광대해졌으며, 이메일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

건축이 이미지를 만들면서 그림을 바탕으로 한 예술과 인문학으로부터 멀어지고 컴퓨터를 기초로 한 정보 작업 방식으로 다가감에 따라, 건축이 갖는 인간적 목표를 잃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정보 기술의 도구가 무명의 세계 건축을 영속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보 기술의 도구로 인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장소에 보다 많이 근접하고, 각 장소 고유의 잠재력에 노력을 집약할 수 있을 것 이다. 우리는 진보된 시각화 수단을 통해 특정한 장소에 대한 복합적 연구를 해야 한다. 대지의 즉각적 해석으로 용타쥬된 삼차원적 표현의 뛰어난 명확성 때문에, 건축가는 비평에 민감 해질 것이다. 이것은 분명 제안에 대한 보다 많은 비평과 피드 백을 의미한다.

우리의 새로운 도구는 돌, 바닥 포장, 오래된 벽돌 벽에 낀 푸른 녹처럼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세월을 거친 도시의 요소들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내 생각 으로 미래의 기술은 장소와 그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 해를 표준화된 물체로서의 건축으로 대체해버린 근대 전통율 극복할 기회이다. 도시 생활의 즉각적 드라마와 직접 대응하기 위해 정보 기술의 도구는 픽춰 프로그램, 벡터 드래프팅, 후기 산업사회 생산 기법을 결합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ratalor = 221 arcasia forum

Paper Presentation

경량성, 신속성, 정밀성 Lightness, Quickness, Exactitute

> 쟝 프란시스 불라셀 / 프랑스 by Jean-Francois Blassel



기술이 전통이 될 수 있을까?

민속학자이자 선

사 시대 전문가인 Andre Leroi-Gourhan은 '몸짓과 말' (1964 년, 파리)에서 직립한 이후 인간의 삶이 얼마나 급변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직립 보행하게 된 이후 이

동 수단이었던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인 간은 이처럼 조금씩 발전하면서 도구를 갖게 되었다. 경험과 지식, 노력의 축적을 통해 발전된 기술은 신체의 연장물처럼 여겨진다.

도구와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변형되었다. 건축 분야를 보면, 불과 목조 건물, 석조 건물, 전기,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강철, 유리, 몰리머, 그리 고 기타 합성재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건물과 도시에 대한 사고 방식이 현저히 달라졌다.

오늘날에는 위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우주 여행, 정보 혁명, 유전 공학, 신 생명 과학 기술이 세계의 가치 를 극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기 술이 문화 및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어 아니다. 사실 그 파급 효과는 너무나 지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처럼 도구의 명칭을 그 시대의 상징으로 삼은 경우 도 있었다. 전통은 그 시대가 제공했던 최첨단 기술과 연결되 이 있다. 역으로 기술과 변화는 문화와 시간을 초월한 인간 전 통의 한 형태로 여겨질 수도 있다.

비인간화된 기술

문화와 기술의 갈등은 기술이 인간의 인식을 묵살했으며, 인간은 이상적인 과거와 전통에 대한 항수를 열망 한다는 해묵고 그릇된 느낌에서 비롯된다. 최근에는 기술에 대 한 인식이 양극단으로 흘렀다. 한편으로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낙관적인 발전의 시각이 있었는데, 아는 에펠탑에서부터 우주 선의 발사까지 현대 기술 행위에 대한 열광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한편으로 19세기와 20세기에는 괴테나 보듈레르 문학에 나타난 대로 기술과 근대성이 인간과 자연에게 줄 수 있는 재 앙적인 영향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등장했다. 사실 기술에 의 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진 생활의 활력에 위험이 없 는 것은 아니다. 체르노발 원전 사고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로 기술은 엄청난 대가를 남기고 사라진다. 파괴와 황폐화된 경관, 자동차 매연으로 질식된 도시의 이미지가 초창기의 밝고 새로운 세계관에 중첩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기술의 역 할에 대한 회의와 각성을 가져왔다.

기술은 어느 면에서 자유방임 경제에 의해 발 전되었다. 하지만 기술적 혁신이 시장 이윤 증대를 목표로 하 는 제정적, 상업적 전략의 일환이 되어감에 따라, 복제 가능한 제품을 구상하고 투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에 기술이 한 정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회는 극도로 제한 된 형태만을 낳아, 건물의 유용성을 제한하고 장기적 차원의 가치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에서 선호하는 것은 기법과 방식의 표준화다. 건축과 공공 건설 부문에서 이러한 경향은 기술의 잠재적 활력과 창의성, 생기를 말살하고, 회색 을 띤 억압적이고 군림하는 듯한 기술적 표현을 허용한 정책을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은 단기적 논리는 건설 산업에서 보편 적인 두 전략으로 입증할 수 있다.

•첫번째 전략은 천연재와 인적 자원의 낭비 률 아기하는데도, 신속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같은 해결책 을 불합리하게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도 이러한 전략에 속한다.

• 두번째 전략에서는 매우 원시적인 기술적 접 근법이 사용된다. 여러 요소들을 겹겹이 쌓아 놓고. 상호 작용을 최소화한다. 이 전략은 모든 부분이 서로 관계하면서 시너지를 증대시키는 최소의 유기체를 지항하는 기술 혁신과 정 반대다.

더욱이 설계 과정은 다층 건물의 건설 과정과 유사해 지는 경향이 있다. 문화와 기술의 분리는 위대한 건설 가의 역할을 건축가와 공학자의 기능으로 분리시켰고, 궁극적 으로는 보다 많은 수의 전분가들로 세분화시켰다. 이러한 접근 이 불가피할 지도 모르지만, 종종 그 결과물이 전체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길

기술에 의한 전통의 파괴를 생각하면 안타까 운 것은 기술적 인위물에 인간적 가치가 들어있지 않은 듯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기술은 비인간화의 우울한 길을 밟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길은 보다 흥미롭고 활기차지만, 그 길을 걷기란 매우 어려우며 궁극적으로 설계자들의 정치적, 윤리적 결단을 요구한다.

최근까지 건물에서 기술이 갖는 보편적 파라 다임은 기계였다. 구조 기술 면에서 보면, 19세기의 기계적 구 조 장치와 고도로 다이아그램화되고 분석적이고 추상적인 구 조 조직은 놀랍게도 유사성을 갖는다. 무게도 형태도 없는 정 보, 교환, 상호 작용율 기초로 하는 두 번째 산업 혁명이 이제 건설의 세계를 형상화하기 시작했다. 컴퓨터로 인해 부상한 새 로운 기하학과 새로운 구조, 새로운 CFD는 건물 내부 환경을 위한 능동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한, 보다 점세하면서도 덜 노 골적인 분석 기술의 접근법이다. 기술에 의해 건물의 표피는 민감하게 상호 작용하면서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을 통제 및 조 절하는 여과지로, 건물 자체는 증대되는 엔트로피의 바다 속의 섬으로 변형되었다.

최근까지 자연은 경험하는 것이었고, 어느 면 에서는 위협의 대상이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자연을 인간의 행위와 기술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면에서 천연재의 보존은 재 료의 경제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량성, 최소한의 메스가 결 정적이고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필요한 만큼의 재료를 쓴다는 것은 여러 층과 요소의 과잉을 탈피해서 성기면서도 효 율적인 구조률 개발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용이해진 것은 각 기 다른 특성을 지난 다양한 현대적 소재가 나왔고, 재료와 구 조, 외피의 경계가 흐려졌기 때문이다. 갈대나 나뭇가지, 대나 무, 흙, 돌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들은 전통 문화에서 오래 동안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건물 기술에서 건물 재로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재료를 바탕으로 한 구조 물은 궁극적으로 독특한 표현과 미학을 이룬다. 이러한 형태의 특이성은 점차 광범위하게 확산된 표준화 경향과 배치된다. 사 실 오늘날 기술은 매우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데 얽혀 있으면서 상호 작용하는 전체의 일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모 순을 풀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프 로젝트 하나하니가 문맥과 주변 상황의 특성을 보여주는 독창 적인 기술적 해결책이 되는 것이다.

기술에 부과된 이러한 역할 덕분에 기술은 건 축에서 감수해야 했던 한계에서 벗어나 건축가의 작업의 중심 에 놓이게 되었다. 기술이 설계의 중심이 되는 접근법은 분명 특정한 유형의 건물이나 구조물에 적절하다. 기술이 끊임없이 갱생하기 때문에 설계자는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해 석과 이해의 여지를 남기는 신비로운 문화적 산물이자 예술 형 태로 인식되었을 때, 기술은 보다 친근해지며 궁극적으로 인간. 적이 된다. 기술적 물체를 설계할 때 추구해야 할 특성은 수학 자들이 질문과 답이 완벽하게 동형일 때의 미니멀한 형태를 지 청하는 '우아함'과 유사하다. 이러한 특성은 Italo Calvino가 "다음 밀레니움을 위한 메모"에서 피력한 경량성, 신속성, 정 <u> 일성의 세 요소와 연관될 수 있다.</u>

주제발표

아카시아 『고리』 arcasia forum

Paper Presentation

과감한 건축 **Bold Architecture**

히로시 나이뿐 / 일본 by Hiroshi Naito



건축이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주고 있는지 생각 해 볼 때가 온 것 같다. 과거의 기 술은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희망 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건축에 거는 기대의 종류 가 변하는 것이 실감된다. 건물의

수명이 상당히 긴 것에 반해 세상은 빨리 변하고 불확실하다. 건물들이 언제나 변하고 있는 요안들에 의존하고 있다면, 결국 표현에 있어서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면을 갖게 될 것이다. 사회의 거대 체계의 변화에 무력한 건물들을 나는 '약한 건축' 아라고 부른다. 또 한 편으로는 경제적 상황이나 에너지 수급 의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건물들이 있는데, 이를 '과감 한 건축'이라고 이름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사 회에 자산이 될 '과감한 건축' 올 배양할 수 있을 지 연구해야 한다. 기술과 전통을 스타일적인 표현에만 사용한다면, 텅 빈

상징주의만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술과 전통은 '과감한 건 축'을 태동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다.

우리는 전통에서 기술을 발견한다. 기술은 전 통에게서 여러 특성을 물려 받았다. 우리 시대의 특성의 하나 는 기술과 전통을 동등한 가치로 여기는 점으로, 필요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물을 결합시킬 수 있다. 기술과 전통 에 대한 탄력적인 접근은 건축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데 도 움이 될 것 같다. 괴감한 건축 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 회 체계와 거리를 둔다. 이들은 물리적인 안정성, 견고성, 장소 에 대한 존중 등의 특성을 보이는데, 바로 이러한 특성이 건축 을 새로운 시각과 회망으로 이끈다.

지난 몇 년 동안 동남 아시아는 거품 경제에 의한 혼란에 빠졌다. 1985년에서 1992년의 일본 역시 비슷해. 서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너무 많은 건물들을 단시간에 지었 다. 오늘의 일본은 그 시기를 분석하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노 력하고 있다. 거품 경제 동안에는 기술의 생산적 활용이 근대 화의 증거로 여겨졌었다. 역사와 특정 지역의 문화, 기후, 그곳 에 기존하는 건물과 생활 양식에 대한 지식이 모두 무시되었 다. 나는 건축이 경제적 입안의 장난감이 된 것에, 그리고 현명 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무기력한 건축가들에 무척 실망했다. 도시와 건축은 시회와 사람들을 위한 장기적 자산으로 작용해 야 하는데, 세계 경제의 기복에 말려들었던 것이다. 일부 건축 가들은 극도의 전통주의로 되돌아가기도 했는데, 이 또한 서양 적 근대화를 실현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도시와 건축은 세계적 불안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하드웨어가 되어야 한 다. 과감한 건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거 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통과 기술이 생산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건축에 현실주의, 과거 와 현재와 미래를 인식하고 있는 현실주의를 다시 불어 넣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 비록 사람마다 다른 관점을 갖고 있겠지 만, 기술과 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간략하게 차트를 만들어 보았다.

기술(건축)		전통 (인간)		
전통 기술	현대 기술	형태적 전통	잠재적 전통	
장인	시스템	스타일	분별력	
솜씨 있는 수작업	대량 생산	주문	취향	
경험	표준화		재료의 존중	

기술은 전통 기술과 현대 기술로 구분된다. 전 통 기술은 장인의 경험과 솜씨를, 현대 기술은 체계적 생산과 대량 생산된 표준화 부품을 바탕으로 한다. 전통 역시 형태적 전통과 잠재적 전통으로 구분되는데, 형태적 전통은 건축 스타 일처럼 시각화 할 수 있는 전통이며, 잠재적 전통은 구체적이지

않고 개인의 선호도와 분별력, 재료 처리에 나타난다, 이러한 4 요소를 결합시키면 건축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전통 기술 + 형태적 전통
- 2. 전통 기술 + 잠재적 전통
- 3. 현대 기술 + 형태적 전통
- 4. 현대 기술 + 잠재적 전통

얼마 전 텔레비젼에서 방송된 '경복궁 재건' 에 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는 전통적인 건설 기법으로 전통 건물을 재건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렸다. 이런 종류의 건축은 첫번째 유형에 속한다. 아래 사진 속의 우리집 근처에 있는 사원은 이전의 목조 건물이 불타서 칠근 콘크리트로 재건 되었다. 건물의 형태적 측면만을 존중하고 잠재적 전통, 다시 말해서 정서적인 요인은 무시되었다. 이런 종류의 건축은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은 화재와 지진에 강하고 과거의 스타일을 물려 받았지만, 미래에 의미를 갖게 될 특성을 담아 내지 못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 1964년 Tange Kenzo가 설계한 요요기 올림픽 수영장에는 그 시기의 현대 기술의 집약되었다. 그러면서도 지붕의 형태는 전통적인 시원을 연상시킨다. 작은 단면들로 분리된 실내 천정 역시 우 리 문화에 잠재되어 있는 감성을 불러 일으킨다. 이런 건축은 네 번째 유형에 속한다. 이번에는 전통과 기술의 관계를 좀 더 분석하기 위해 우리의 프로젝트 두개를 보여 주고 싶다.

해양-민속 박물관 (1985-1992)

어민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수집, 전시하기 위 해 설계되었는데, 적은 예산으로 매우 견고한 건물을 설계해야. 했다. 이처럼 모순적인 상황에서 나는 옛 것이든 새로운 것이 든 과감한 건축의 특성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을 받아들이기. 로 마음먹었다. 바다에서 전해지는 염분을 고려해 지붕에는 세 라믹 지붕 타일을 활용했는데, 이로 인해 지붕 형태가 매우 제 한적이 되었다. 이상적 지붕의 경사를 취해야 타일이 제 역할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에 넓게 트인 <mark>공간을</mark> 조성하기 위 해 구조에는 현대 기술을 활용했다. 창고는 포스트 텐션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전시 홀에는 집성목으로 된 복합 트러스 구조가 활용되었다. 높은 천장으로 인해 공기의 대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계적 냉난방 시설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과 감한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붕에는 전통 기술과 형태적 전 통이 결합된 반면, 구조에는 현대 기술과 잠재적 전통이 활용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형 1과 4가 혼합된 건물이다.

마키노 기념관

실험실과 박물관 컴플렉스로 이루어진 이 기 념관은 1993년 설계를 시작해서 곧 완공될 예정이다. 설계 과 정에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했다. 대지가 역사적 중요성 을 지난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주변 경관에 주는 영향을 최소 화해야 했다. 이 때문에 경관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두드러 지지 않는 건물을 설계했다. 완공 후에는 건물이 숲에 가려서 거의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사항은 이 지역이 빈번한 태 풍의 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한 점이다. 산 꼭대기에 위치하는 건물은 기후를 견딜 수 있는 과감한 건축이어야 했다. 현대 기술은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제련소에 제작한 캐스트 스틸 접합부는 나무 단면들 을 한데 연결한다. 우리는 전통 목수들이 사실 나무로 같은 작 업을 하는 것을 생각했다. 다른 각도와 길이로 된 420개의 목 제 보가 사용되었으며, 절개부와 접합부를 필요에 따라 달라. 했다. 처음에 우리는 전통적 목조 기술이 구조의 복잡한 요구. 에 부응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지만, 그들은 현대 기술과 호 환될 수 있는 정밀한 작업으로 건물을 마감했다. 결국 우리는 전통적 목조 기술과 현대 기술을 결합시키면, 그 위력이 극대 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이 건물은 유형 2와 4의 결 합이라고 할 수 있다.

향수적 역사주의와 비현실적 기술 표현은 분 명 환상적인 환영만을 낳는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전통 건축이라고 부르는 있는 것도 한때는 그 시기의 선 도적 기술이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기술과 전통의 의미를 재고하고 둘 모두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과감한 건축을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건축을 위한 조건이 되는 특성을 나열해 보았다.

- 기간 시설의 의존의 최소화
- 고도의 견고성
- 환경 및 기후에 대한 고려
-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낡을 것인가에 대한 상상
- 전통과의 양립성
- 미래약 표준이 될 수 있을 특성

주제발표

|=|^|o{ = _= | arcasia forum

Paper Presentation

전통과 기술에 관한 글

Concerning the Tradition and Technology

케네시 양 / 말레이지아 by Kenneth Yeang



이 글은 서양적 가치와 개념을 공격하자는 것도, 아시아 문화의 우월성을 오만하게 주장하자는 것도 아니다. 단지 동 서양이 동등하게 만나 협력해야 할 필요에 대해 말하고 싶다.

고대 동양의 업적에 대한 인정

우선 아시아가 고대에 이룬 업적이 인정되어 야 한다. 일부 국수적 서양인들은 고대와 중세 때 유럽이 아시 아에 진 빚율 최소화하려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 의 초창기 발명품과 시고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로부터 전해진 것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

서양의 지배와 근대화에 대한 인식

하지만 그 후 상황이 역전되었다. 17세기 세 양 과학의 혁명 후부터는 서양이 광범위하게 세계를 지배했다. 자연에 관한 가설의 수학화와 끊임없는 실험에 힘입어 근대 과 학이 비약한 서양의 과학 혁명이 일었던 것이다. 아사아 사람 의 입장에서 볼 때, 서양인들이 자기 만족과 우월성을 보이면 서 지기들의 혐으로 근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자축하 는 현실은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아시아의 고뇌

아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은 물리적 식민화가 아니라 정신적인 식민화였다. 많은 아시아인 들이 서양인보다 자신을 열등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1860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 이를 극복한 일본 같은 예외도 있지만, 이같은 고뇌와 정신적 식민화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잔존하고 있다.

아시아 건축가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현대 건축 기술을 다루는데 곤란해 하고, 풍토적 건축이나 지역적 건축의 아이덴티티의 중요성에 호소하고 있다. 시실 세계 어디를 둘러 보아도 아시아처럼 많은 건축가들이 건축의 아이덴티티에 대해 걱정하는 곳은 없다.

지난 20년간 무수하게 많은 동양 학생들이 아 시아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논문을 되풀이해서 써냈고, 그와 유 사한 주제를 다룬 건축가들의 컴퍼런스도 해마다 셀 수 없이 열 렸다. 서방 국가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마 도 아시아에서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역사적인 과 거를 다시 이으려는 욕구처럼, 현재의 동양 정신에 내재되어 있 는 통기나 열망 때문일 것이다.

현대의 아시아 정신은 적절한 균형감으로 젊 은 세대를 길러내서,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세계에 개방적이면서도 선조의 전통과 문화에 뿌리내리게 하려 한다. 이것은 앞선 세대들이 서양의 세상에서 작은 존재였음을 무의 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세계에서, 자존심의 고 양으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려는 단언 적인 시도이다.

간단히 말하면, 아시아 건축적 아이덴티티의 추구는 사회의 재탄생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갱생과 재발견 의 과정을 상징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시아 건축가 들은 계속된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나 시람들과 장소, 기후의 요. 건을 충족시키는 한편, 진지하고 독창적이고 지적인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세계적 기술

그렇다면 아시아 건축가들은 현대화와 현대 기술의 건축적 활용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서양 기술을 활 용하는 것과 서구화가 별개의 것임은 분명하다. 여기서 서구 화라 함은 개인의 자유와 합리주의로 전형적으로 규정되는 서 구적 가치 체계를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는 서구화 없이 현대화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떠한 기술이 든지 일단 시판되고 나면 ,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활 용할 수 있다.

이제 아시아 건축가들은 현대 기술을 건축에 활용하되, 전적으로 혁신적인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해야 한 다. 형편없는 시인은 영감을 빌어 오고, 훌륭한 사인은 훔쳐 온다 뇬 옛 말처럼, 좋은 건축가는 현대 기술을 뛰어나게 목 창적으로 활용해서 그 기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아시아의 가치

최근의 경제 위기 이전까지 아시아가 이룬 경 제 발전의 속도는 놀라운 것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경 제적 성공의 공로를 아시아적 가치로 돌렸다. 가족과의 합일, 대결 보다는 동의, 권위의 존중과 사회적 이해에의 복종, 검소,

보수성 등이 포함된다.

경제 위기 이후 이러한 주장은 빛을 잃게 되었 다. 한동안 아시아의 빠른 성장이 서양에 걱정을 만들더니, 뒤 를 이온 위기는 서양으로부터 '그것 <mark>봐라</mark>' 하는 식의 반응을 일으켰다. 하지만 아시아가 분명 성장할 것이며, 서양과 같은 수준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현실은 새로운 아시아 정신 속 에 있는 확신과 자신감이다.

혁신에 대한 찬사

아시아 경제는 처음에는 저 비용-저 부가 가 치 상품을 생산하면서 출발했다. 그러다가 차츰 그 한계를 느 끼면서 보다 높은 보상을 주면서 세계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 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건축가들은 건축적 아이덴티티 를 찾아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보는 차원을 넘어. 세계 건축에 기 여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 속에서 겨루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 지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많다. 상품의 이미지 개선, 양질의 상품 제공, 보다 나은 서비스, 혁 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건축도 산업과 유사하다. 다가오는 세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는 저 비용-저 부가가치의 파라다임에서 벗어나 혁신을 통해 상품의 선도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동양과 서양으로부터의 교훈: 생태적 설계와 동등한 동 양의 풍수로 본 예

건축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기술로부터 배우면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건축 설계는 저식을 바탕으로 한 접근법을 취해야 하는데, 이것은 환경이 유지되는 미래를 위한 생태적 설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테면 풍수 이론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 (그린 디자인)가 광범 위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풍수는 유 사 과학이며, 생태적 설계에 대한 현대적 접근과의 관계도 직 설적으로 일대일로 대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대의 환경 기 술과 개념의 상당 부분이 고대의 풍수 이론에 빚진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인 저 에너지 설계 전략의 생태 환경적 원 칙은 아시아의 토속 거주지의 건물 기술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무수한 저 에너지 설계, 재료의 생태적 자동 제어, 생태적 배치 등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결론

세계 건축에서 아시아 건축가들이 미래에 많 게 될 역할의 핵심은 동서양의 개념과 가치를 현명하게 조화시 키고, 혁신에서 출발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주제발표

아라시아 프로네 arcasia forum

Paper Presentation

전통과 기술의 통합

A New Architecture that combines **Tradition and Technology**

> 김석철 / 한국, 아키반: by Kim Seak-Chul



오늘 내 강연의 주제는 고고학적 미래주의 (Archeological-Futurism)와, 아 시아의 기술과 전통의 분리를 극 복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의 필요 성에 관한 것이다.

우선 전통과 기술

의 분리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이 분리가 실제적으로 무 엇이며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다음에 아시아의 건축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언 급한 후, 고고학적 미래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끝으 로 내가 작업해 온 여러 다양한 작품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 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고고학적 미래주의에 담긴 나의 생 각, 그리고 전통과 기술의 통합의 창조를 향한 시도를 보다 구 체적으로 전하고자 한다. 이 통합은 전통과 기술이 서로 분리 되지 않은 일종의 새로운 건축일 것이다.

전통과 기술의 분리

먼저, 우리가 건축에서 "전통" 과 "기술"에 관해 논의 할 경우, 우리는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 가? 전통은 단지 과거의 것, 즉 옛날로 돌아가는 것, 혹은 정해 진 무엇인가? 우리는 단지 초기에 반복을 통해서 우세해져 오늘 날까지 내려온 어떤 수행방식, 즉 양식적 경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매우 자유롭게 사용하는 말인 기술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는 지금 소위 "기술 시대"에 살 고 있으며, 기술은 혁신, 변화 그리고 진보의 힘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것이 필연적인 상황인가? 기술의 발 전은 항상 진보인가? 예를 들어, 유리를 사용한 현대적인 하이 테크 마천루는 과거의 주택보다 생태학적으로 그리고 환경적 으로 보다 발전한 것인가?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기술과 전 통이라는 이원성(二元性)이 두 개의 분리된 것으로서 항상 존 재해 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역사적 관점을 통해 건 축의 발전을 살펴본다면, 이 두 가지를 대립된 두 힘으로 단순 히 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힘으로서 보여지고 있다. 는 점은, 오늘날의 건축이 가고 있는 방향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이 점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논해 보자.

전통과 기술의 진보

전반적인 건축의 역사를 흝어보면, 대부분이 지난 150년까지 매우 점진적인 진보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 다. 산업혁명과 새로운 건설방식이 도입되기까지는, 거대한 도 약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원리 에 있어서 인식할 수 있는 변화의 연속은 있었다. 따라서 재료 는 본래대로 유지되는 동안 건설에서 이용되는 특별한 기술 공 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점 은, 구조 원리와 건설 기술에서 발생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미 적 표현도 또한 필연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는 나란히 진행된 것이다. 유럽 전통의 경우, 기술이나 건설 기 술이 발전함으로써 미적 표현 또한 변화한 것이다. 이것은 구 조와 형태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간단하 말하자면, 건설의 내적 원리와 외적 원리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자체였다. 따라서 우리가 기술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 는 것은, 그리스로부터 로마네스크, 바로크, 고딕 등으로의 다 양한 건축적 양식을 통한 발전이다. 여기에는 미적 표현과 기 술적 발전이, 통전의 양면처럼 나란히 진행된 동시적 진전이 있었던 것이다. 건설 기술이 다시 창안됨에 따라, 각각의 양식 은 연속적인 각 시대의 사조 혹은 시대정신을 표현하기에 아르 렀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구조 언어로 된 건축의 각각 다양 한 다른 양식에서, 그 시대만의 깊이 내재된 철학과 미적 표현 을 발견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시각적 표현, 즉 "전통" 이라 불리어 온 것과 표현의 수단인 "기술"이 벗어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각 시대의 미적 철학적 정신이 표 현되는 것은 이 둘의 수렴을 통해서인 것이다.

오늘날의 전통과 기술

산업혁명의 출현과 새로운 건설 재료의 도입 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변화했다. 가능성의 영역이 급작스럽게 폭발하여, 전통과 기술이 거의 완전히 분리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형태, 즉 건물의 표현은 단순히 장식적으로 되 었다. 따라서 형태나 표현에서 건물들이 약간 다르게 보일지라 도, 건축적 본질에서는 모두 동일한 것이다. 미적 형태는 더 이 상 내부의 구조 자체의 형태화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야전 에는 건축적 표현이 구조와 형태의 결합이었던 반면, 오늘날은 구조는 구조이고 형태는 형태이다. 일반적인 구조는 공간을 만

들기 위한 것이며, 이 공간에 잠식적 파시드가 참가된다. 따라 서 보이는 면은 단지 표면적인 것이며 건물은 그 나름의 특성 을 획득하지 못한다.

건축의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 오 늘날의 뚜렷한 양상은 방향을 잃어버렸다. 사조나 시대정신의 표현은 더 이상 없다. 게다가 우리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날 때. 느끼는 것은 건축 언어의 단조로움이다. 각 지역의 문화적 다 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건축의 언어나 기호(階好)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후기근대의 질병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을 통해 실제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스펙트럼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길로 가야할 지 모르고 있다. 항공 우주 산업과 같 은 관련 분야에서 해마다 생겨나는 믿기 어려운 개발들을 통 해, 우리는 광범위한 새로운 건축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 나 몇몇 개별 건축가들의 작품을 예외로 하면, 이러한 기술은 단지 외피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아직 건물자체의 구조나 특성 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기술은 21세기를 바라 보는 우리의 문화 환경 사회 생태학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 는, 즉 본질적으로 새로운 건축 창조에 있어서, 그 잠재력을 충 분히 적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아시아의 상황

아시아의 경우, 상황은 보다 더 심각하다. 2000여 년간 구조원리와 미적 기준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존재했다. 지난 100여 년 간 갑자기 등장한 유럽에 뿌리를 둔 건축방식이 아시아의 전통 건축 양식에 소개되면서 혼합되었 다. 그 결과는 소위 "국제주의 양식"이 전통적 형태를 거의 완 전히 대체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 은. 그 지역의 정신이나 전통을 표현한 건축적 언어를 거의 찾 이볼 수 없는 완전히 서구적인 것이다. 우리가 동양적인 것에 서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근대 건축은, 완전히 그 자체의 철학 과 미학이 결핍되어 있고, 그 장소의 전통이나 건축적 유산과 어떤 관계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보다 아시아의 기술과 전통의 분리가 훨씬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건축은 우리 시대에 근거한 뿌리도 과 거에 근거한 뿌리도 갖고 있지 못하다. 더 심한 것은 아시아에 서 진행된 근대 건축이, 서구에서 누적된 여러 실패의 탄순한 반복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고고학적 미래주의

따라서 동양에서 각 국가에 맞는 고유의 건축. 즉 그 문화와 산업화의 국면을 반영하는 새로운 건축을 창조해 야할 필요의 절박성은 명백한 듯하다. 그것은 과거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만 단순한 복제는 아닌, 전통에 뿌리를 둔 건축 임에 틀림없다. 단순한 양식재연이나 모방은 새로운 건축형식 울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각 나라가 각자의 고고학적 이고 신화적인 과거로, 자신만의 선사(先史)로, 그리고 우리 공동의 건축 의식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근원적 정체성을 찾아 아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일단 이렇게 되면, 현재와 그 역사적 과거간의 맥락에서 그 전통의 진정한 수단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분명해 잘 때, 현대 기술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과 미적 기준에 맞는 진실된 표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한 전통과 거술의 결합에서 우리는 창조적이고 새로운 건 축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그러한 건축이 시대정신 의 표현일 것이다. 이것이 내가 고고학적 미래주의를 통해 말 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론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이제 전통과 기술이라는 두 개의 주제에 대해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 해온 방식을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몇몇 예를 보여주고자 한다.

해인 불교 문화 단지

첫 사례로 들 작품은 해인 불교 문화 단지이다. 나는 해인사 내에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화 의장을 포함하는 새로운 문화관 설계를 의뢰 받았다. 경상남도 기이산에 위치한 이 시찰은 12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날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전통 사찰일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전통과 기술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 위대한 고전 앞에 전적으로 새로운 건 물을 계획함에 있어서 형태와 현대적 기술을 얼마만큼 표현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만 했다. 전통적 사찰 건축의 외형과 양 식을 유지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전통과의 단절인가? 어떤 재 료를 사용해야 할까?

오랜 숙고 후에, 옛 사찰을 현대적으로 복제하 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 은 구성 체계는 완전히 현대적이지만, 형태에 있어서는 동양의 전통적 사찰 건물의 외관 형태를 모사하지 않는 가운데 반영하 는 건물이었다. 전통을 흉내내기보다는 기존 사찰 군(群)에 대 용하는 것이다. 이 접근은 부분적으로 새로 들어서게 될 건물 의 대지가 기존 사찰 군의 약간 바깥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새 문화 단지의 현대적 외관이 기존 사찰들의 조화를 깨지 않는다. 는 가능성에 근거했다.

기술의 측면에서는 기존 사찰들의 전통적 기 초방식을 수용하고자 했다. 따라서 내가 취한 방식은, 옛 사찰 축조의 지침이었던 전통적 풍수 원리를 이용하면서, 순전히 현 대적인 건축 언어와 결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새 문화 단지는 옛 사 상과 미적 기준이 현대 기술과 긴밀한 결합을 이루게 된다.

옛 사찰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된 것 이기 때문에, 나는 같은 속성으로 된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면 환기와 냉방 시스템의 계획에서 기 존 건물에 이용된 것과 같은 원리, 특별히 약 600여 년 전의 장판각에서 이용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생태적으로 성공 적인 방식을 이용하고자 노력했다.

새 문화 단지는 이 방식을 통해서 옛 기술, 즉 우리의 고고학적 과거와 현대적 건축 언어를 통한 고전적 미학 을 표현하는 새로운 기술이 결합된 것이라 믿는다.

제주 영화 박물관

두 번째 사례로 둘 작품은 제주 영화 박물관이 다. 이 작품은 첫 작품인 해인 불교 문화 단지와는 전혀 다르 다. 이 박물관은 영화 관련 박물관으로서 제주도에 위치한다. 대지는 완전히 토속적인 환경의 해변에 있다. 근처에는 다른 건물이 없으며, 이전에도 다른 구조물은 존재한 적이 없는 환 경이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전통과 기술의 결합 방식에 관한 문제는 전혀 다른 시도를 의미했다.

간단히 말해서, 건축대지는 어떠한 전통과도 완전히 무관한 환경이었다. 유일한 것은, 푸른 하늘, 땅, 바다 와 같은 자연, 그리고 대지 저 멀리로 어렴풋이 보이는 제주도 의 중심이자 잠든 화산인 한라산뿐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은 일상적인 관점의 의 미를 잃는다. 이 환경은 과거나 현재와는 무관한, 즉 역사이전 이며 시간을 초월한 원시적 실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 는 전통과 기술의 분리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함을 느 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다다른 점은, 원시적이고 유기적인 무 어, 자연의 근본적인 힘의 표현인 전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의 탄생이었다. 한라산의 심장인, 어머니와 같은 대지의 자궁에 놓인 화산의 힘을 반영하는 창조적인 잠재력의 폭발인 것이다.

이상이 내 생각의 한 단면이다.

다음으로는 기능적인 관점으로서, 박물관이 이용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영화관 자체는 전혀 다른 것이다. 환상의 세계이자 초현실, 실체가 없는 순수한 형상의 세계인 것이다. 영원성 속에 달려 부유하는 무엇인 것이다. 그래서 나 는 꿈과 환영을 담은 이러한 영화필름의 세계를 표현하는 건축 을 원했다. 이 건물은 이러한 생각들, 즉 주변의 원시적이고 유 기적인 자연환경과, 결국 실제로 건물로서 드러나게 될 형태 이면에 있는, 나만의 근원적 근거의 배경을 이루는 환상의 세 계가 통합된 것이다.

전체 건물의 조형성을 보면, 유기-원시적이고

견실하다. 전경의 매끄러운 부분이 되기까지 풍화된 화산 분출 물과 같이 흐르는 듯한 곡선의 배열, 구조의 보다 상세한 측면 을 보면, 영화 세계의 표현과 참조에 보다 접중했음을 알 수 있 다. 예를 들어 구조의 최상부는 두 개의 반구형으로 씌워져 있 는데, 이것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상징한다. 이는 영화사에 있 어서 지배적인 주제이었던 사랑에 대한 영원한 매혹과 남과 여 의 끊임없는 만남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박물관의 주안점은, 전통-기술이라는 이원 성에 대해 여기에서 결심한 접근방식이, 첫 사례로 든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전통의 부재(不在)가 결정 적인 요소이었다.

서울 디자인 박물관

세 번째 사례로 들 작품은 서울 디자인 박물관 이다. 앞의 사례와 같이 박물관이지만, 대지의 위치가 전혀 다 르다. 비록 건축 시공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대지는, 서울의 유 서 깊은 이씨 왕조의 궁궐 중 하나인 비원 옆의 경사자이다. 대 지와 궁궐은 사이를 지나는 골목길로 분리되어 있다. 이 골목 길의 한 쪽은 전통적인 기법으로 지은 닫이 있다. 대저 쪽에도 이 담과 나란하게 유사한 담이 세워져 있다.

나는 다시 새 박물관의 설계에서 전통-기술이 라는 이원성의 문제에 작면했다. 어떤 형태로 해야 할까? 형대 적이야 하는가, 아니면 전통적 궁궐 형식을 따를 것인가? 또한 어떤 재료를 써야 할 것인가? 만일 완전히 현대적인 구성으로 하게 될 경우, 고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만일 지. 나치게 세련되고 하이테크적으로 되면, 전통 궁궐과 다투게 되 지 않을까? 원래 있던 고궁 보다 새로 들어설 박물관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들이 디자인 해결의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었다.

따라서 내가 해야할 일은 우선 우리의 고고학적 괴거에 대한 조사였다. 내가 내린 결론은 내용과 형태라는 두 가 지에 요소에 있어서 전통과 기술의 통합이었다. 대지의 한 쪽에 있는 전통 형식의 담은, 600여 년의 역사뿐 아니라 한국 전통 건 축 양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전통적 표현을 확 장시켜 건물 자체로 만듦으로써 이것을 구체화했다. 즉 박물관 대지에서 비원에 면한 쪽은 한국 전통 건축 방식으로 하고, 다른 쪽은 현대적인 유리 철 콘크리트로 한 것이다. 이 방식을 통해서 기술과 전통, 현대와 고전은 분리되어 인식되지만, 서로 충돌하 지 않는 기운데 실제적으로는 통합된다. 따라서 이 해결은 비원 과 그 주변의 균형을 깨지 않으면서 이원성의 조화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할 점은, 전통과 기술이 라는 두 개의 요소가 통합되고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 가지는 보다 큰 범주에 있어서 맥락과의 관계이다. 해인 불교 문화 단 지의 경우 전통 사찰에 현대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반면, 여기 에서는 고궁의 대지 자체가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같은 방 식이 부적절했다.

조계사

네 번째 사례로 둘 작품은 조계사의 재건축이 다. 대지는 옛 조선시대 수도의 중심인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에 위치한다. 현재 그 대지는 전통적 동양 건축 양식으로 지어 진 주불전(主佛展)과 추한 상업적 양식으로 된 다양한 기능 행 정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 프로젝트를 논의함에 있어서 내가 보이고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은, 전통과 기술간의 관계성이 건물의 건 축적 측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적 스케일의 차원까지. 관계된다는 점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계사를 한국의 고고 학적 과거와 넓은 의미의 한국의 "전통"이라는 점에서, 서울에 별로 남지 않은 영역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선 왕조 몇 백년동안 조계사 대지가 바로 옛 조선의 수도의 심장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조선 왕조에서 억불 정책을 통 해 사대문 안에 사찰 건립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고려해 보면. 그 자체로서 흔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찰은 주로 지방에 위치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전통적" 관계의 영 역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루었다.

아쉬웠던 점은 조계사의 주변 지역이 값싼 상 업 건물들로 황폐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동과 안국동에 흩어져 있는 한국 전통 기옥들 덕분에, 전 통율 담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 들 어서게 될 조계사의 도시적 배경을 이루는 전통이다.

이러한 맥락의 경우 "기술"은 어떤 의미를 갖 게 될 것인가?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상황에서 기술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도시생활의 부분으로서 전통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데 관심을 가져야만 한 다. 옛 도시의 잊혀진 조직구성의 전통을 재발견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은 이 옛 조직구성을 찾고 재구축하는 도구가 된다. 나는 이것을 "도시적 기술"이라 명명하고 싶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 나는 옛 서울의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이 작은 지역을 연결시킴으로써, 전통적 조직구 성을 회복하는데 기술을 이용하고 싶었다. 현재 이 지역은 심 각한 교통량과 값싼 상업건물들로 파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나 의 제안은 이 구역의 전통적 도시 조직을 재결합하고 통합하는 보행자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조계사는 이것의 중심에 위치 하게 될 것이다.

이 본부는 정면과 후면 양쪽에서 진입하여 지 나갈 수 있다. 정면출입구는 대형 아치형태로 관리사무소로 재 건립 된다. 내부는 불교 관련 상점들과 불교 관련 예술품 전시 영역으로 계획했다. 이 두 출입구 사이에는 긴장된 공간을 계

획했다. 이 내전(內殿)의 중심에는 옛 사찰이 있다. 따라서 행 정 본부 건물은 기존 사찰의 위엄스런 분위기를 침해하진 않아 아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소극적인 현대적 스타일을 선 택했다. 수용적이고 기존 건물과 우위를 다투지 않는 건축 언 어로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 들어서는 건물은, 전적으로 현대적 언어로 되어 있지만 배경 막으로 보여야 한다. 이를 통 해서 옛 시찰은 생명력을 회복할 것이다.

기술을 주의 깊게 사용함으로써, 소위 "전통"은 이전의 예의(禮義)와 호흡하며 되살아난다. 반전된 거울효과를 이용함으로써, 20세기 상업적 도시 개발로 황폐화된 도시의 중 심에 놓인 전통의 오아시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판

마지막 사례를 들 작품은 베니스 비엔날레 한 국관이다.

1994년에 베니스는 비엔날레 100년 기념행 사를 개최했다. 축하의 일환으로 스물 다섯 번째 와 마지막 전 시관 건립을 위한 대지를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엄격한 심사 후, 한국이 선정되었다.

각 전시관은 대표적인 국가의 문화상(文化象) 과 정체성을 상징하고, 현존하는 전시관의 대디수는 조셉 호프 만, 알바 알토, 제임스 스털링과 같은 저명한 건축가들의 작품 들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관 설계 건축가로 선정되었을 때, 한 국의 미와 정신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욕을 갖게 되었다. 한국관이 들어서게 될 대지는, 일본관의 정원 뒤 쪽과 독일관 사이에서 러시아관에 근접해 있었다. 이 대지는 라구나(Laguna)강에 면해 있음으로 인해, 조망을 침해하지 않는 건물로 계획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또한 더 중요한 제한 요소는 베네치아 풍으로 지은 작고 오래된 사각형 형태의 공공 건물인데, 이것은 베네치안 공공 계획법규에 의한 것이어 서 철거하는 계획은 배제되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전 통과 기술이라는 문제를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건물을 한국관 전체 체계 에 수용해야만 했다. 즉 이 옛 베네치아 풍의 건물은 완전히 새 로운 전시관과 통합되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내가 결정한 접근방식은 정확히 고고학적 미 래주의의 원리를 보여준다. 나는 동양적 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 옛 베네치아 풍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의뢰 받았 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유일 하게 기장 적절해 보인 해결책은 산업화, 전통, 그리고 문화 이 전의 최초의 조건, 동서양이 분리되기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 는 것이었다. 동서양의 이원성을 초월한 이러한 유사이전의 고 고학적 원시적 과거에 철학 기초를 둠으로써, 그리고 이 철학을 20세기 후반의 기술과 결합시킴으로서 나는 만족스런 해결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전시관은 고고학적 과거와 역사적 미래를 미학적으로 융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한 것은 먼 동양의 고고학적 과거에 서 돌아온 우주선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초현대적인 방법론 을 사용함으로써, 우주선은 기존 베네치아 풍 건물로 내려와 정 착하는 소선(小船)으로 구성되었다. 지붕의 돛대와 밧줄 이미 지는 라구나강에 정박한 상선(商船)이란 전통의 연상을 불러일 으키는 반면, 개념은 기술적 열망이란 점에서 완전히 미래적이 다. 하지만 이 열망 또한 그 근원적 뿌리는 고전에 둔 것이다. 이 개념을 고고학적 미래주의라 명명한 이유는 이상과 같다.

결론

이상은 내가 오늘 사례로서 준비한 작품이다. 이를 통해 내가 전통과 기술이라는 이원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 루고 있는지가 전달되었기를 바란다. 이제 간단하게 종합함으 로써 내 강연을 줄이고자 한다.

우리 아시아는 우리의 과거와 연결된 끈을 잃 어버렸다. 우리는 우리 전통만의 고유 언어를 잃은 것이다. 따 라서 우리의 문화를 회복하고 재생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렇지만 세계문화의 기술적 진보를 거부하지 않는 범위 에서여야 한다. 불행하게 우리에게는 전통 언어와 기술 언어가 완전히 분리되어 관계를 맺고 있질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고고학적 미래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고고학적 뿌리, 즉 우리의 문화와 산업화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 전통은 경향이 아니다. 전통은 그 자체가 가치이며, 민중 정신과 산업화의 핵 심이 담긴 것이다. 지역성은 전통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 리의 전통과 기술적 영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파 해쳐야 한다.

동양에서는 건축의 발전은 단절되었다. 과거 에는 각 국가가 침략과 상호 문화교류를 통해 외적 영향을 받 았지만, 어느 곳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비교는 없었다. 전 세계를 휩쓴, 특히 전후(戰後) 서구의 영향에 의해, 아시아 국 가들의 건축적 전통은 거의 완전히 없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의 영향에 침해되기 이전 그대로의 상태, 말하자면 각각의 문화 DNA를 찾기 위해, 우리의 뿌리를 찾아 파 내려가고 탐구 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우리의 고고학적 원시 뿌리, 즉 우리 아시아 공통의 유산과 20세기 서구의 영향을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전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미래와 현대 기술의 전망과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 과거의 정신과 우 리시대의 정신을 표현하는, 진정한 우리만의 건축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미래의 기술에 의해 표현되는 고고학적 과거의 미적 문화적 경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에 기초한 창조성이 다. 이것이 고고학적 미래주의이다.

제10차 아카시아포럼 행사 중 포럼세션 (Forum Session)은 9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기술과 전통' 으로 건축에 있어서의 기술과 전통에 대해 발표자로 나선 건축사들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토외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9월 15일 포럼 첫째날

오전 9시부터 세션이 시작되었다. 오전에 3 명의 건축사들이 발표를 하고 점심식사 후 발표자와 사회자 그리고 패널리스트들이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의장인 홍콩대학의 베리 윌(Barry F.Will) 교수가 '기술시대에 전통은 왜 유지되는가?''란 주체 : 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발표자들을 차례로 소개하는 것으로 세션의 문을 열었다.

첫 발표자는 스리랑카의 넬라 드 조이사 (Nela de Zoysa)로 이번 아카시아건축상에서 산업용건축물부문의 금상을 수상한 여성건축사였다. 조이사는 건축에 있어서의 전통, 기술 그리고 아이덴티티 라는 제목으로 논의를전개했다. 먼저 전통과 기술 아이덴티티 라는 제목으로 논의를전개했다. 먼저 전통과 기술 아이덴티티를 나름대로 정의하고건축에 있어서의 이들 전통과 기술 그리고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존재했고 적용되었는가에 대해 역사적 예와 유명건축사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는 스리랑카 독립이후 자국건축사들을 전통주의자, 현대전통주의자, 현대주의자, 대형프로젝트 수행자로 구분해서 스리랑카의 현재 건축상황을 분석했다. 결론으로 마이크로칩 기술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전통은 어떤 형태로 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가올미래에 대한 예견보다는 청중들이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여운을 남기면서 발표를 마감했다.

두 번째 발표자는 한국의 김석철씨였는데 그는 이번 아카시아건축상에서 제주 신영 영화박물관으로 연구소/사회시설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게돼 발표자로써의 무계를 더했다.

'전통과 기술을 조합한 새로운 건축'이란 제목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개해 나갔는데 전통과 기술에 대한 일반적 해석에 대한 진지한 의문과 현대에 있어서의 기술과 전통의 의미, 특히 아시아국가들에게 들이닥친 급작스런 서구화로인한 전통파괴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고유한 건축의 훼손에 대해 분석하였고, 특히 김석철씨 자신의 건축철학이기도 한 '고고학적 미래주의' 를 설명하면서 이와 관계된 자신의 작품들을 소개했다. 이시아에 있어서 서양의 현대건축이 끼친 영향

으로 인한 전통의 파괴를 복원해야 하며 그것은 유행적인 전통 이전에 자리잡은 고고학적인 DNA를 발견해야 하고 이것을 가 장 현대적인 기술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고고학적 미래주의' 의 의미라는 것을 결론으로 발표를 마쳤다.

세 번째 발표자는 프랑스의 장 프랑소아 블라 셀(Jean-Francois Blassel)로 '경랑성, 신속성, 정밀성' 이란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했다. 블라셀은 건축과 구조를 겸업하고 있는 건축사로 특히 고속전철 역사 등 한국내 대형 프로젝 트에 대한 구조설계를 담당중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건축사이다.

'전통이란 그 시대가 제공한 최첨단 기술의 연속' 이란 분석으로 전통과 기술이 대립관계가 아님을 설명 했으며, 기술이 전통과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기술의 비인간화에 기안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자신의 몇몇 작품을 중심으로인간과 주변환경, 다양한 자연적 소재를 이용한 기술의 인간화 가능성을 소개했다. 또한 문맥과 주변상황의 특성과 현계된 기술적 해결책은 '우아함'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특성은 칼비노(Italo Calvino)가 '다음 밀레니엄을 위한 메모'에서 피력한 경랑성, 신속성, 정밀성의 세요소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함으로써 다가올 21세기에 건축에 있어서의 기술의 중요성을강조하는 것을 끝으로 오전 세션을 마쳤다.

점심식사 후 시작된 오후세션은 패널리스트들의 간단한 의견발표와 의장, 좌장, 오전의 주제발표자, 패널리스트들이 둘러앉아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좌장은 싱가포로 건축가인 타이 켕 순이 맡아서 진행했고 패널리스트로는 일본의 토모시 가또와 태국의 아너손 (Anusorn Paksukcharern)이 나와 간략히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어 발표자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의에는 개막식 발표자로 나와 개막연설을 했던 M.I.T대학 스탠포도 앤더슨 교수가 참석해서 자리를 빛 내주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좌장을 맡았던 타이 켕 순이 주제보다는 발표자가 언급했던 단어들에 집착해 주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바람에 좌장이 오히려 패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세션을 진행하는 식이 돼버려 청중들을 혼란시켰다. 패널리스트들의 지적은 비교적 날카로왔으나 주제를 비켜가는 답변들이 많았고, 회의가 영어로 진행된 관계로 영어권국가가 아닌 답변자들은 동시통역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을 발표한 건축사들은 자신이 주장한 건축관과 제시된 프로젝트 사이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설득력이 약한 점이 아쉬웠다.

9월 16일 포럼 둘째날

16일은 필리핀 산토토마스 대학 교수이자 필 리핀건축연합 회장인 욜란다 레이스(Yolanda D. Reyes)가 의장을 맡아 기술이 어떻게 전통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시작했다. 레이스는 먼저 발제에 대해 「건축 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술혁신이야말로 건축에 있어 신기원을 가져다 주었음을 시사해 준다. 한 사회 또는 건축분야 모두에 🗆 있어, 새로운 기술은 돌피구를 마련해 주고 그 새로운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옛기술을 대체하게 된다. 여기서 또다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건축은 과거 및 현재의 기술혁신에 어떻게 순종 또 는 거부하였을까? 기술이 어떻게 건축혁신을 가져왔는가? 그 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이 건축관행 및 더 나아가 우리의 주거공간을 얼마나 변형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활방 식을 어떻게 변형시키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발표자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하바드대학을 졸업하고, 영 국 AA School에서 강의도 하면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 는 마이클 맥니마라(Michael McNamara)였다. 그는 '도시 의 강철, 실리콘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논의를 열었다. 맥나마 라는 서론에서 기술은 전통을 제압할 것이라는 근대건축의 논 의에 대해 반박하고 건물은 비행기같은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 한 이용수단이 아닌 한 장소에 지어지는 목적물로 장소의 특성 과 독특함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거를 폈다. 주변환경 과의 연계, 삶의 시퀀스를 담는 공간, 도시적 특성에 대한 이해 와 연결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축설계기법이 발달 되어 전통적인 방식의 설계기법이 없어지고 건축이 예술, 인문 학의 경계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건축이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인간적 목표를 성실해선 안된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일본의 히로시 나이토 (Hiroshi Naito)는 '과감한 건축' 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괴감한 건축' 이란 사회의 거대 체계의 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지 않은 건축물로, 유행과 스타일을 따르기보다는 분별력있는 건축을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는 자신의 건축적 의 견을 밝힌 뒤 기술과 전통이 과감한 건축을 태동시키는데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나이토는 결론에서 '과감' 한 건축'을 위한 조건들로 기반시설 의존의 최소화, 고도의 견 고성, 환경 및 기후에 대한 고려,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낡을 것인가에 대한 상상, 전통과의 양립성, 미래의 표준이 될 수 있을 특성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자는 말레이지아의 켄 잉 (Kenneth Yeang)으로 지난 북경 UIA대회에서 아시아건축 가를 대표해 인도의 찰스 코레이와 더불어 자신의 작품을 소 개했던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건축사이다. 켄 잉은 동양 과 서양문화의 상호보완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논의 를 시작했다. 특히 최근 아시아가 갖는 문화적 콤플렉스를 지 적하고 아시아적 아이덴티티에 대한 논의가 근 20여년 지속되 고 있지만 그것이 과거의 전통에서 끌어내는 아이덴티티가 되 어서는 안된다는 논거이래 서양의 기술을 이용한 지역풍토와 환경, 동양적 풍수이론에 적합한 '그린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시아건축이 발전적 방향으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길이 라는 주장을 폈다. 세계 건축에서 아시아 건축사들이 미래에 맡게 될 역할의 핵심은 동서양의 개념파 가치를 현명하게 조 화시키고, 혁신에서 출발하는 것이란 결론을 끝으로 오전 세 선율 마쳤다.

오후에는 파키스탄의 자이캄 제프리(Syed Zaigham Jeffery)를 좌장으로 한국의 이상해 교수, 홍콩의 청와난(Chung Wah Nan), 인도의 패트릭 몬테이로(Patrik Monteiro) 등이 패널리스트로 나와 주제발표를 했고 첫날과 같은 방식으로 패널 토의에 들어갔다. 자이캄 제프리는 첫날 타이 켕 순의 사회방식에 대해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던 아카시아 포럼의 원로로서 예상했던 것처럼 익숙하게 사회를 진행했다. 이틀 동안의 포럼세션은 연사들의 성실한 준비와 의장, 좌장, 패널리스트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무사히 끝났지만 내용적으로는 몇몇 아쉬운 점들 을 남겼다.

우선 회의장 주변의 공사로 인해 패널 토론중 공사소음이 심해 몇 번씩 연사들의 말이 끊기는 일들이 발생했 으며 발표자의 강연이 오전에 있고 오후에 패널토론이 있어 오 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오후의 토론에 참석할 이유를 찾기 가 어려웠다. 오히려 진행상의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발표 자와 패널을 한데 묶어 한 건축사가 발표를 하면 그 의견에 대 해 바로 패널토의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했더라면 청중들이 하루종일을 세션에 할애하지 않고서도 발표자별 시간에 맞춰 세션에 참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쉬움이 남는다. 또한 더 큰 아쉬움은 국내 건축관계인사의 인식부족 및 참여부족이 었다. 특히 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한 행사에 제일 중요한 손님인 국내 건축사들의 참여가 너무 낮았다. 물론 건축주변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 사무실이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때 국제 포 럼에 참여한다는 것이 한낮 일없는 한량들의 놀음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없던 시절 루이스칸의 건축적 사고가 건축연구모임을 통해 그 깊이 를 갖기 시작했다는 걸 한번쯤 돌이켜본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 하고 공부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제5차 아카시아건축상 수상작

The 5th ARCASIA Awards

「아카시아건축상」은 '아시아라는 상황속에서(in the Asian Context)' 라는 것을 전제로 디자인의 우수함을 격려하고 인정하기 위해 아카시아 행사의 일환으로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 상은 주거용(단목주거, 집합주거), 도시공공건축물(상업용건물, 여가・휴양시설 및 호텔, 연구소 및 종교건축, 스포츠시설 및 공항시설), 산업용건축물, 보존시설 등 8개분야로 나누어 시상하며, 아시아지역에 속해있는 회원국 건축사면 누구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5회를 맞는 1999-2000 아카시아건축상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총 71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지난 9월 11일 심사를 거쳐 각부문에서 10점(금상6점, 특별상 4점)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13점이 출품되어 제주영화박불관(김석철作)과 한호제(민규암作)작품이 선정되었다. 올해 심사위원회는 아카시아회장, 작품상 집행위원장 등 6명의 심사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정근 본협회 국제위원과 주최국 비건축분야 저명인사로 임권택 영화감독이 심사에 참여했다.

한편 이번에 출품된 71점의 작품은 아카시아포럼 개최시기에 맞추어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5일간 COEX(한 국종합전시장)에서 전시되었다. 또한 관람의 폭을 넓히고 건축의 저변확대를 위해 훌품작 71점을 오는 11월 15일부터 연말까지 건축사회관 1층 아키텍트 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본자에서는 제5차 아카시아건축상에 선정된 10점의 작품을 게재하며, 수상작선정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주)

제5회 아카시아건축상 수상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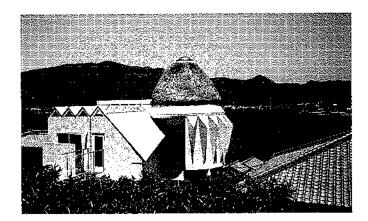
- The ARCASIA Awards 1999-2000 Gold Medal Winner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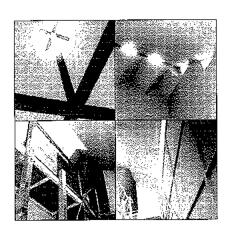
부문 Category	수성자 Name of Applicant	프로젝트명 Name of Project	상명 Award
A-1 단독주택부문 (single family houses)	Seiichi Kubo (일본)	The House with Orange flowers	금 상 (Gold Medal)
	민규암 (한국)	한호제(Han Ho Je)	특별상
	Praphot Wongkajornsilp (태국)	Bann Chai-sri	(Hon, Mention)
A-2 다가구주택부문 (multi family housing)	Anthony H H Ng (홍콩)	Verbena Heights	금 상 (Gold Medal)
B-1 상업용건축물부운 (commercial buildings)	Bing Kwan (홍콩)	City Tower	금 상 (Gold Medal)
B-2 휴양지/레저/호텔부문 (resorts/leisure/hotel, etc)	1	해당작 없음 (NO AWARD)	
B-3 연구소/사회시절부문	김석철 (한국)	제주 신영 영화박물관 (Shin-Young Museum of Moving Image)	
(institutional/social)	Akira Kuryu (일본)	Core Yamakuni	
B-4 특수건축물부문 (specialised buildings)		해당작 없음 (NO AWARD)	
C 산업용건축물부문 (industrial buildings)	Nela de Zoysa (스리랑카)	"BMW complex	금 상 (Gold Medal)
D 보존시설부운 (conservation projects)	Richard K F Ho (성기품)	12 Koon Seng Road	금 샹 (Gold Medal)
	Pervez Latif Qureshi (파키스탄)	Services Club, Multan	특별상 (Hon, M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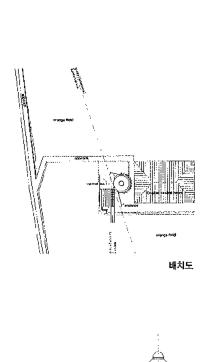


The House with Orange Flowers

Seiichi Kubo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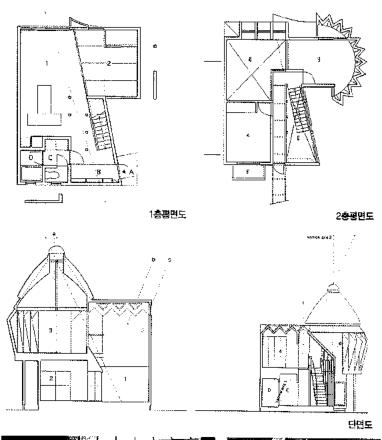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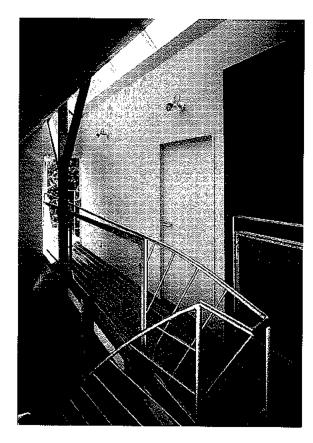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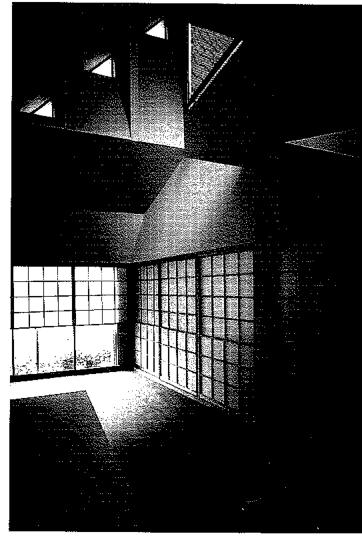
동축<mark>입면도</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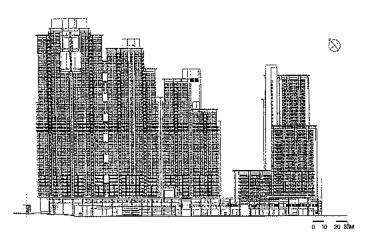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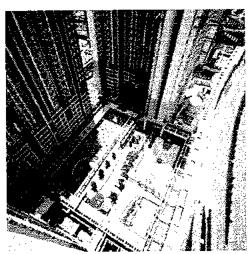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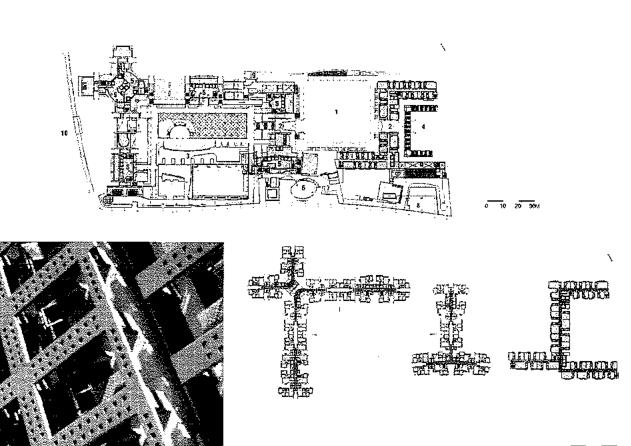
<u>Verbena Height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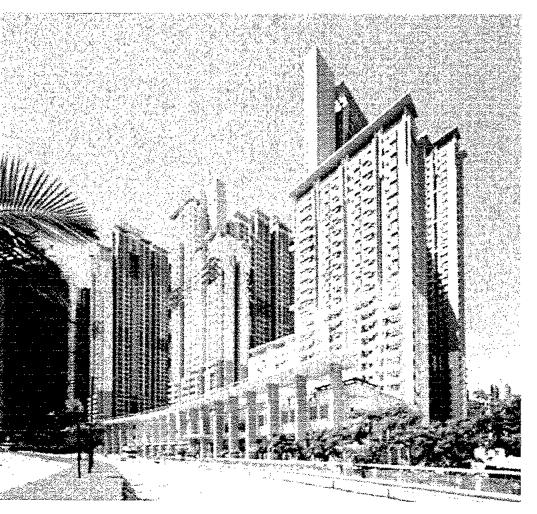
Anthony H H Ng / 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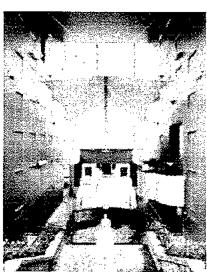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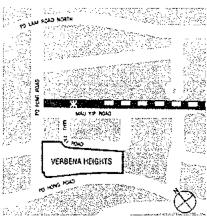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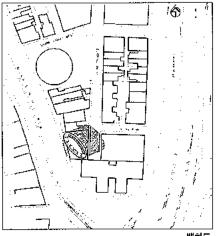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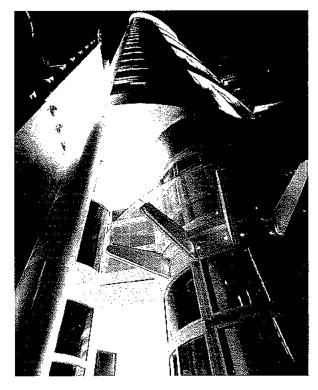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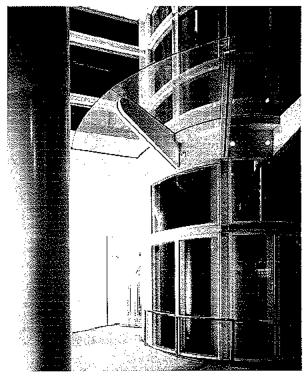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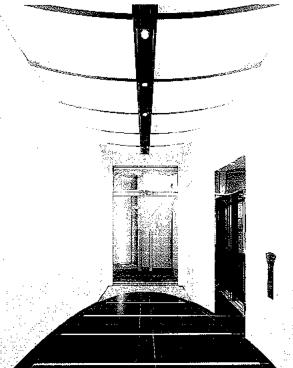
City Tower Bing Kwan / 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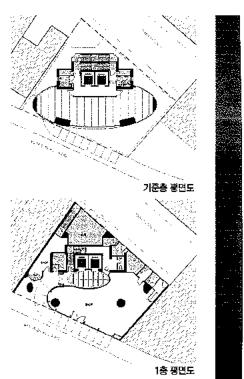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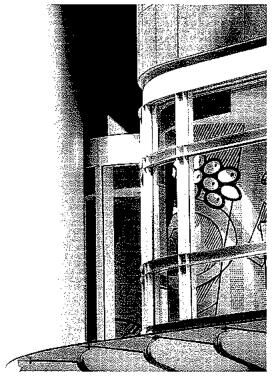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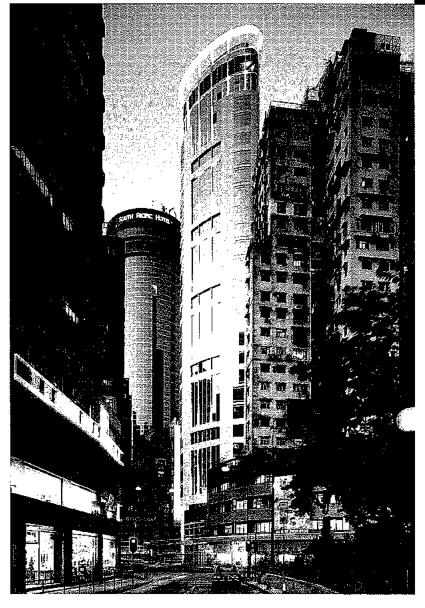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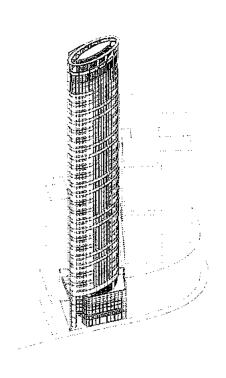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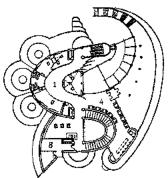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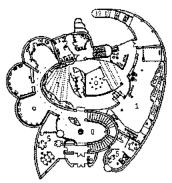


제주영화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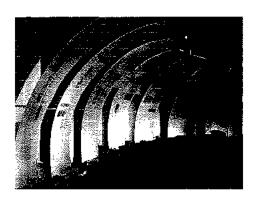
김석철 / 아키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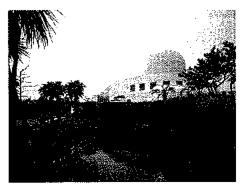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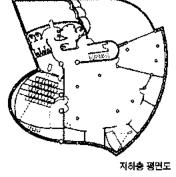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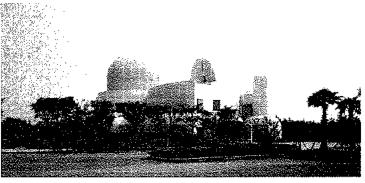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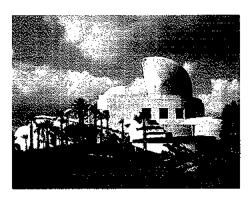
2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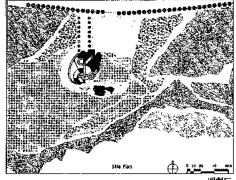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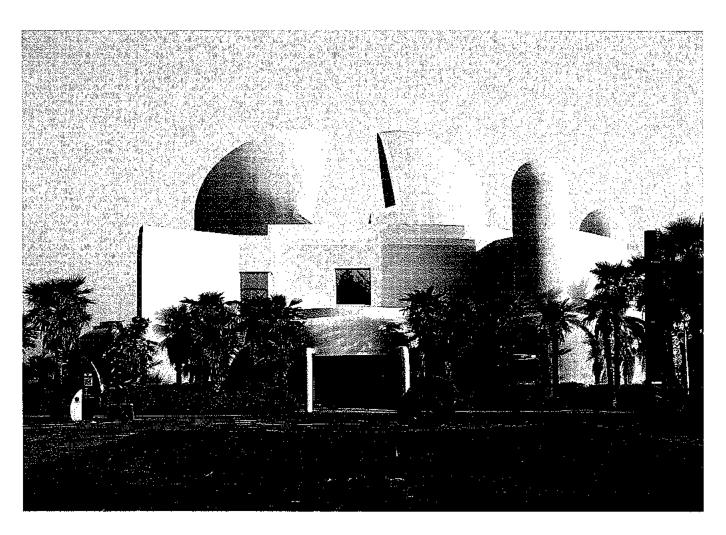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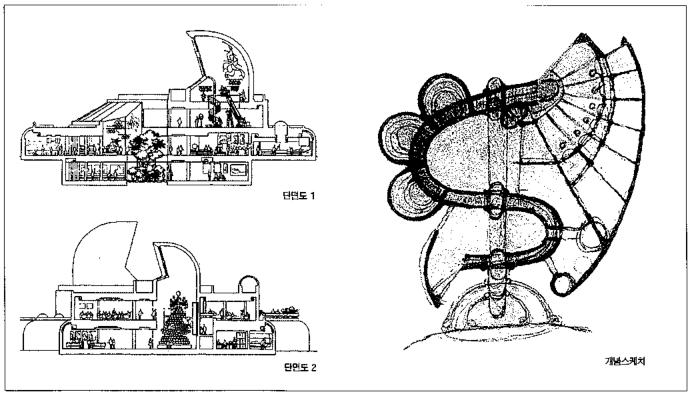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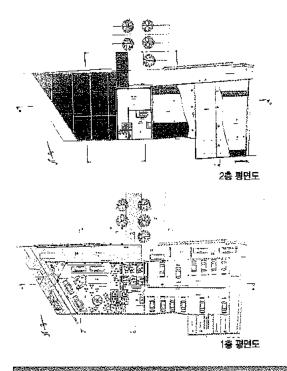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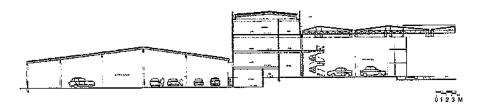
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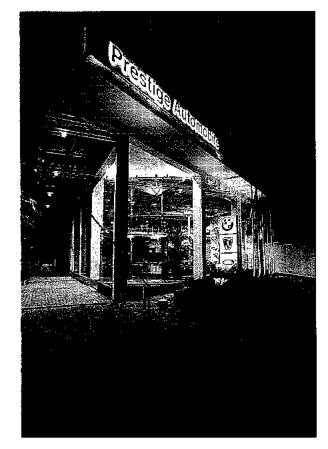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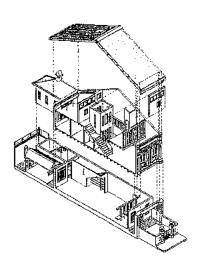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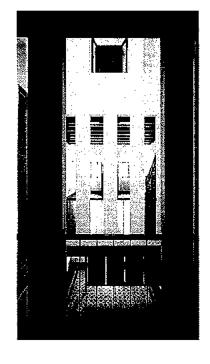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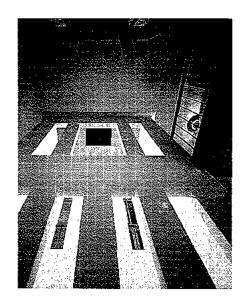
12 Koon Seng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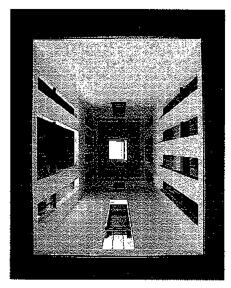
Richard K F Ho /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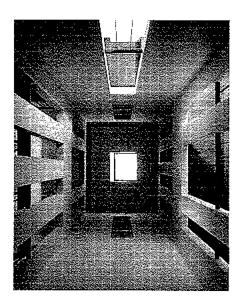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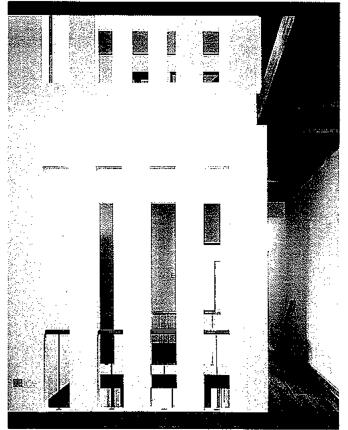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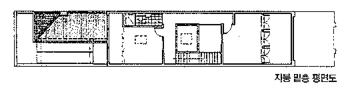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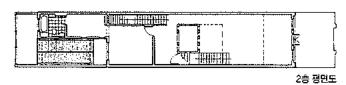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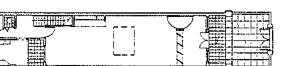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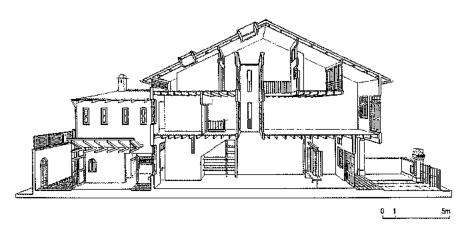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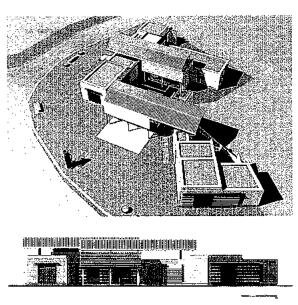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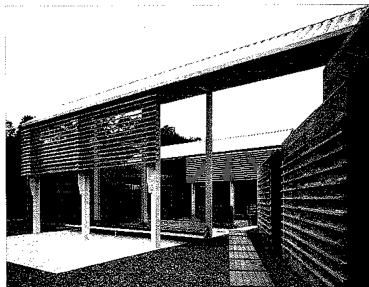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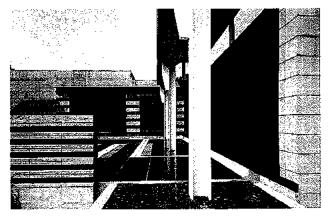
한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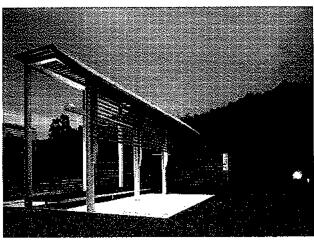
민규암 / 토마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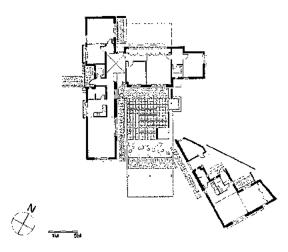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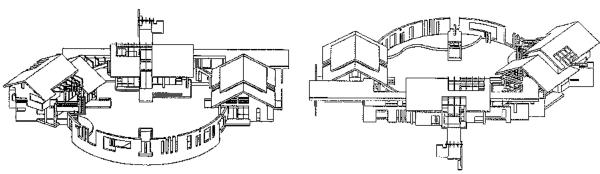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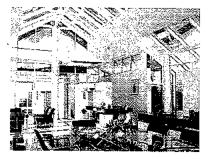
Bann Chai-sri

Praphot Wongkajornsilp /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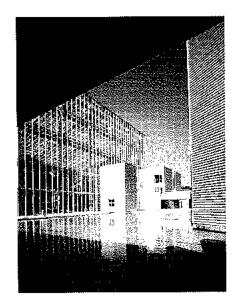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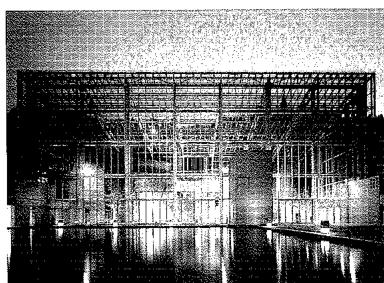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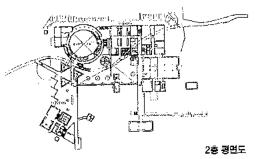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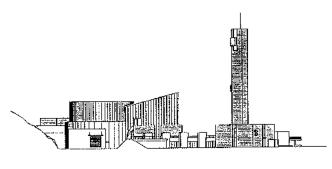
Core Yamaku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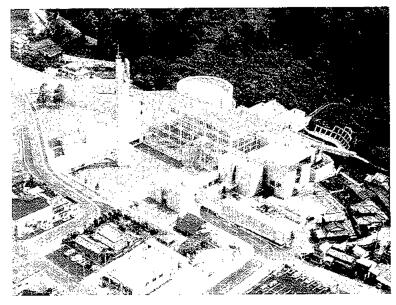
Akira Kuryu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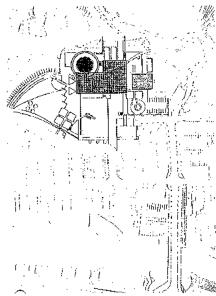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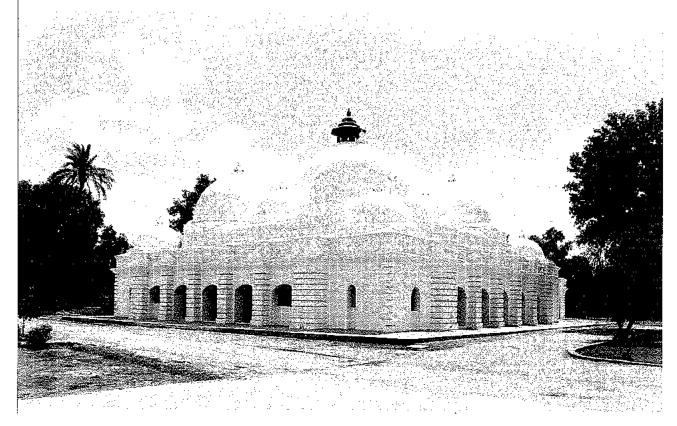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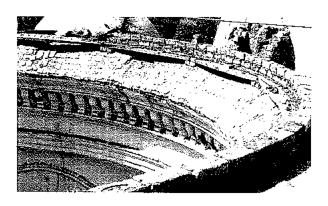


Services Club, Multan

Pervez Latif Qureshi / 파키스탄







인천 기톨릭대학교

Focus

Inchen Catholic University

강석원 / 구룹가 건축도시연구소 Designed by Kang Suk-Won

건축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525번지

일대

대지면적

109,292.00m

건축면적

10.759.71n/

연면적

31,284,00m²

건폐율

9.84%

용적률

21.31%

뀨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벽돌 및 화강석

Location 525, Dozang-ri, Yangdo-myeon, Kanghwa-gun, Inchon-Shi

Site Area 109,292.00m² Building Area 10,759.71m² Total Floor Area 31,284.00m² Building Coverage Ratio 9.84% Gross Floor Ratio 21.31%

Stories 5 Stories, 1 Basement Floor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Brick and Granite

강화도의 명산 마이살과 진강산 사이에 위치한 대지는 산세가 아름다운 곳으로 멀리 바다가 보이고 주변이 산으로 싸여있는 자연조건이 교육 시설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제양성이라는 인천교구의 대숙원 사업이 면서도 나아가 전체교육의 장을 꿈꾸는 일차 사업으로 현재 만 여평에 이르는 제일차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총 3단계의 공사계획 중 학교본부, 도서관, 성당, 신학원(신부 신학생 기숙사), 영성관(신학생 1학년 과정 기숙사), 식당, 수녀원 등의 일단계는 마친 상태다.

또한 설립목적 중 중요한 대북(통일된 이후)과 중국 포교사목 의 중심지로서 서해와 가깝고 북한과 근접된 대지에 이 교육시설이 있다는 것은 의도된 목적에 접근하려는 것에도 충족된다.

진강산과 마이산 축선에 있는 이곳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다. 이곳 축은 마스터플랜 계획의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것의 기점이 신부 혹 은 교육의 산실로서 주변산과의 조화 속에서 배치된 건물은 성당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긴 진입로는 한 개 동으로 보이는 학교본부와 도서관의 중앙을 과통해 성당이 있는 안마당에 이르는데 이러한 진입동선은 이미 언급한 축 선상 에 있는 것이다. 전체 배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숙사와 본관건물은 축을 중심 으로 각각 두 개 동으로 분리되어 성당이 있는 중심공간을 감싸고 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성당이라는 강한 중심성을 상징하는 것이며, 가숙사의 모든 방과 교실에서 성당이 보이도록 배치한 것 역시 건축가의 이런 의도를 담은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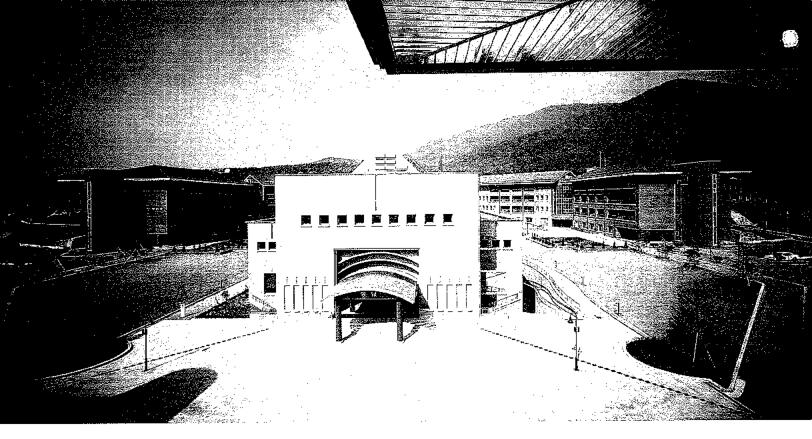
또 하나 눈에 띄는 공간은 진입과 동시에 만나게 되는 공간, 학 교본부건물과 도서관 사이의 마당이다. 지붕이 있으니 마당은 적절한 표현이 아 닌 듯 싶고 굳이 설명하자면 전통 저택의 대문과 같은 공간으로 출입의 경계로 서만이 아닌, 준비 또는 완충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 공간을 통해 보이는 성당은 학교본부와 도서관 건물의 입면과 어우러져 진입시 하나의 건물로 인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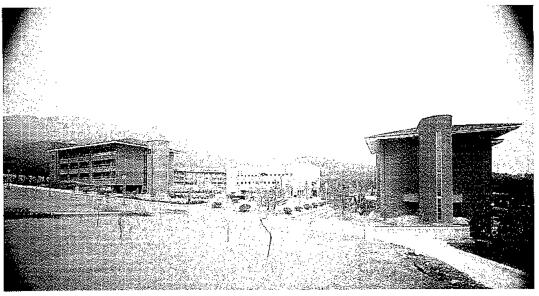
전체 건물의 외부마감은 적벽돌로 시공됐다. 적벽돌은 대부분 의 종교건물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재료다. 이는 흔히 권위를 상징하거나 진부한 재료선택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땅이 가지는 신성함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재료 라는 데 누구도 의의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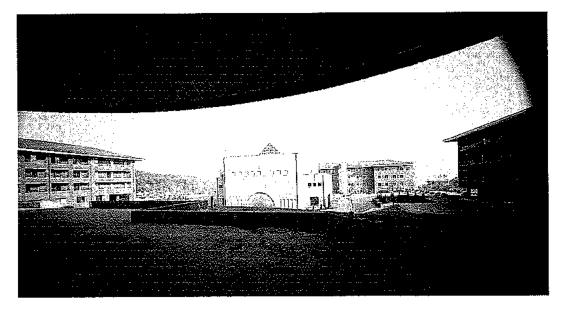
중심성의 강조는 재료사용에서도 나타나는데 중심공간의 분위 기와 어울리는 연한 적벽돌을 사용해 성당의 성격을 강조했다. 중심 액센트는 우리 전통 돌인 화강석을 적당히 배합하여 지루한 벽돌에 신선함을 주고 격상된 인상의 건물로 충족감을 더 한층 주었다. 자연색과 조화를 꾀한 녹색창틀은 구 룹가의 상징적인 색인 양 이곳도 예외일 수 없었고 또한 주변과 어울림의 한몫 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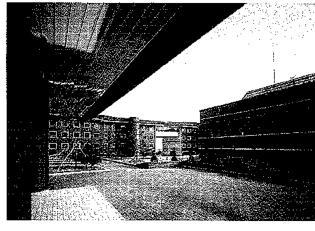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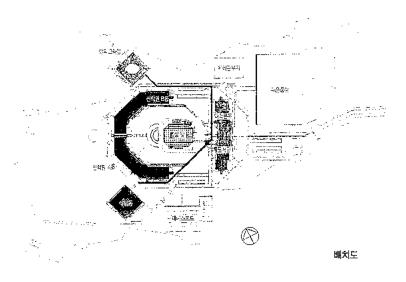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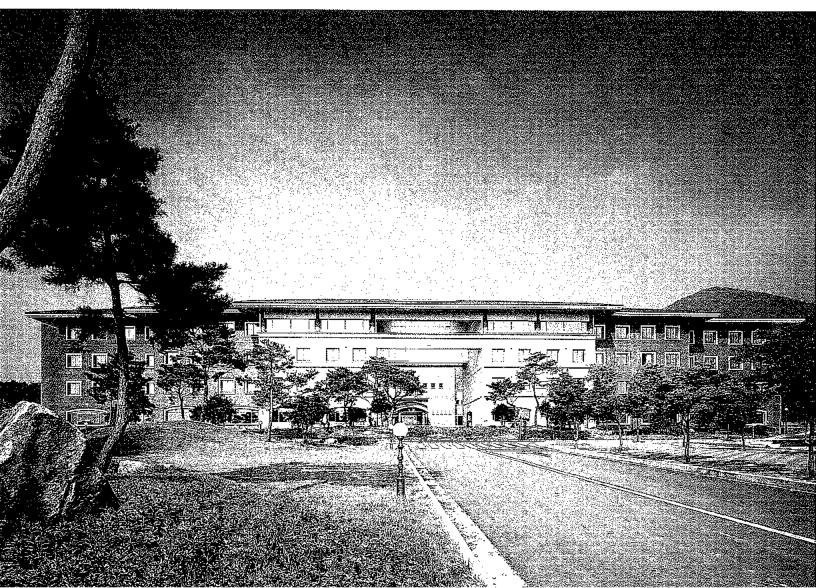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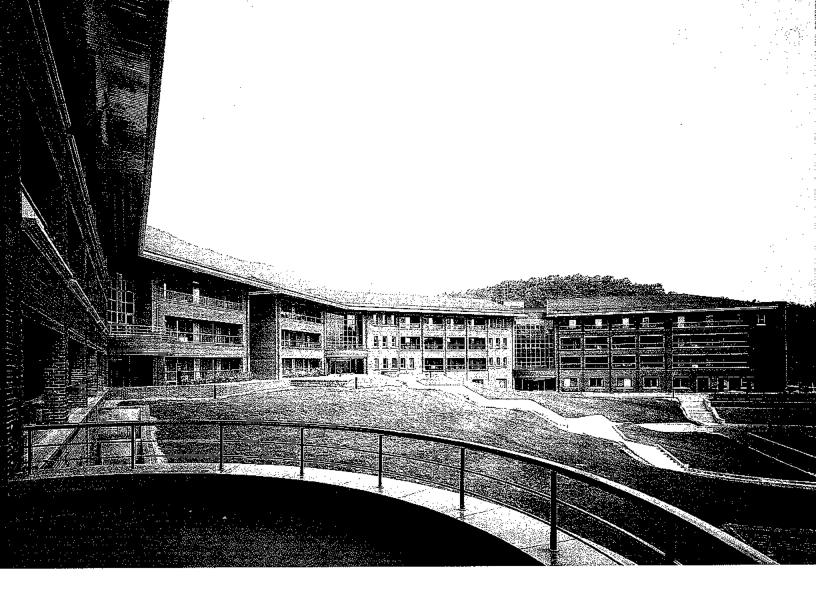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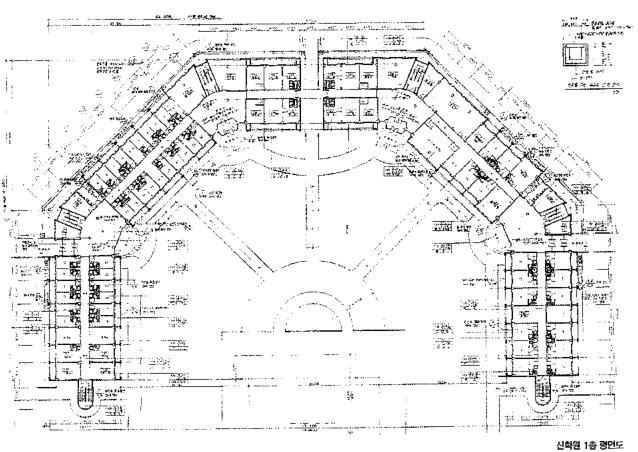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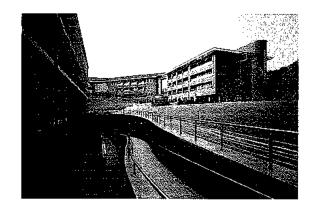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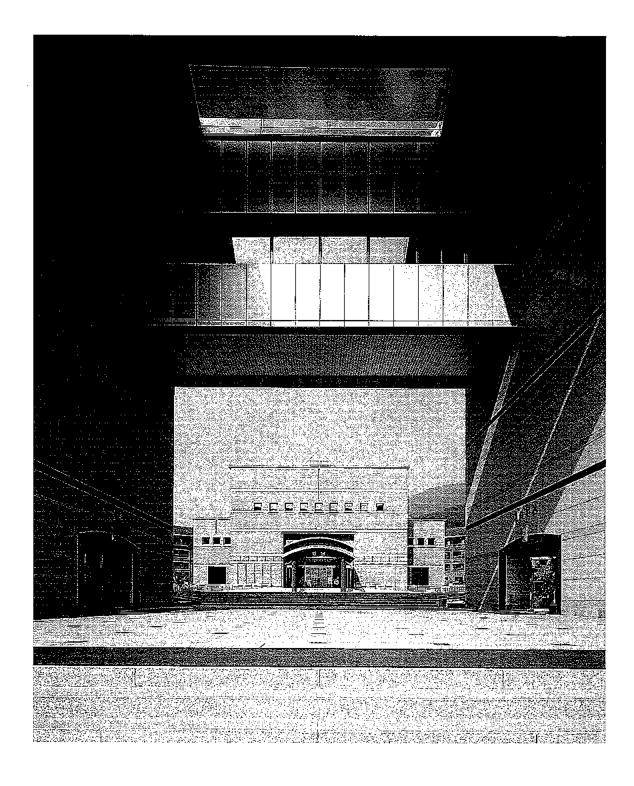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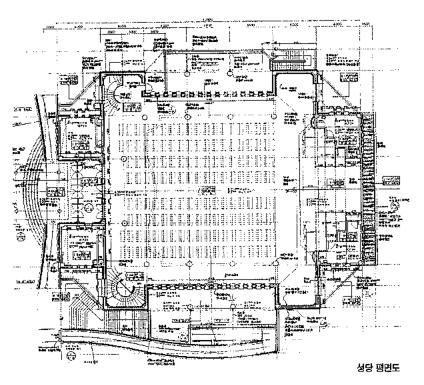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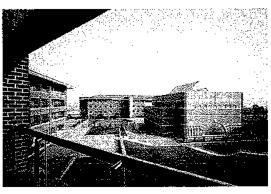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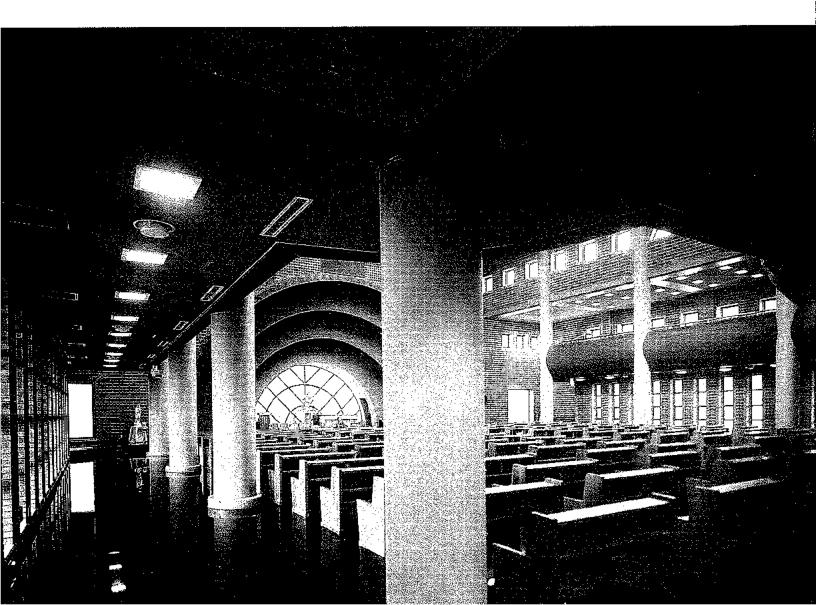












지역건축탐방 14 - 제주(상)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Cheju

제주는 고래로 독특한 민속문화와 경관을 가꾸어 왔다. 이런 이유로 제주의 주된 산업으로 관광이 떠오르게 되었고 60년대 이래 꾸준히 향토성 건축이 문제로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은 경제적 여건이 선진국 반열에 끼기에는 열악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생산건축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었지 아방가르적인 작품은 소수에 불과했었다. 이런 가운데 사회는 개방화 정보화로 진입하게 되고 경제는 대량생산의 전기산업사회에서 소량다품종생산의 후기산업사회로 변천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는 외국과의 차별화문제에 있어 더욱 위협받게 되었고 국내적 위치가 아닌 국제적 범주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의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춰 제주의 건축을 사적 판점에서 돌아보고 해방후의 건축문화의 변화를 살펴 보므로서 새로운 제주 건축의 지평을 탐색해 본다는 점은 참으로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오늘의 논 의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지는 몰라도 이에 대해 치열한 역사의식을 지니고 천착한다면, 틀림없이 차세대 건축가에서 오늘날 우리의 고뇌와 모순을 해결하는 멋진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도외시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찾지 못할 것이며 이에 통참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할 때라야 만이 질높은 해답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김홍식(명지대 교수) / 편집디렉터〉

〈상편〉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 신석하(제주산업정보대 건축과 교수) 제주의 전통건축 / 신석하	64 66
	제주 근대시기의 건축 / 양상호(탐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72
(하편)	제주건축의 어제와 오늘 / 김태일(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포토에세이 : 도시내 건축의 역할 / 김태일	
	제주 실내건축의 발달과정과 현황 / 이인호(제주 산업정보대 실내건축과 교수)	
	비제주인의 제주건축읽기 / 황태주(탐라대학교 건축학과 전암강사)	
	포토에세이 : 제주에서의 하루 / 황태주	
	제주건축의 과제와 전망 / 김홍식(명자대학교 건축과 교수)	
	좌담: 제주건축의 지역성과 풍토성	

Cheju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Culture, History and Natural invironment of Cheju

신석하 / 제주산업정보대 건축과 교수 by Shin Seok-Ha

제주도(濟州道)는 한반도와는 130Km 떨어져 있다. 기후적으로 볼 때 온난다습한 아열대 몬순형의 기후지역 에 속하며, 주변해역을 흐르는 쓰시미난류 때문에 한서(寒曙)의 차가 그리 심하지 않은 해양성 기후를 보여준다. 특히 본도는 삼 다(三多)의 하나인 풍다(風多)의 점이라 하듯이, 여름철에는 태 풍이 내습하며,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이 매우 세차다.

지형을 볼 때 한리산(漢拏山)을 주봉(主峰)으 로 하여 동서사면(東西斜面)은 매우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 으나 남북방향에서는 급한 사면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형의 대체적인 모양은 신생대 제4기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어 오늘날 제주도 지형이 완성된 것이다.

지형이 이처럼 화산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주도 토양의 70%는 화산재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 어서 여러가지 농업생산의 저해요인을 갖고 있다. 1520년(中 宗 15)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 (濟州風土錄)에 '삼읍(三邑) 이 모두 한라산 기슭이라 평지는 반도 안되고 발을 가는 이는 생선의 뱃속을 파냄과 같고, 평탄한 듯 하나 멀리 내다보이지 않으니 오목하고 솟아있는 때문이다. 로 지형을 표현하였다.

한편 화산재토는 보수성(保水性)이 아주 약하 고 그와 동시에 제주도 지하층은 절리구조(節理構造)를 갖기 때문에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물이 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용수(湧水)분포가 전사시대부터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입자 요건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지형 및 토양 여건 때문에 자연하 촌락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제주역사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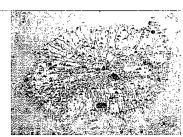
제주도의 명칭은 옛날부터 주호(州胡) · 섭라 (涉羅)·탐모라(耽牟羅)·탁라(毛羅)·탐라(耽羅) 등으로 불 리었으며, 제주(濟州)라는 명칭은 고려 고종(1214-1259)때부 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삼별초 정벌 후 원(元:蒙古)의 작할지가 되면서 원에서는 시종 탐리리는 청호를 사용하였는 데, 이는 탐리를 고려와는 별개의 지역으로 구분짓기 위한 조처 였다. 그 후 고려에서는 탐라가 반환된 1295년(총렬왕 21)부 터 다시 제주라는 칭호를 사용하였고, 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의 기장 오랜 선사유적은 애월읍 어음 리에 있는 빌레못 동굴 유적이다. 동굴의 유적에서는 황금을 비롯하여 붉은 사슴, 노루 등의 동물뼈 화석과 다량의 긁개, 돌 칼, 홈날 등의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이 귤은 중기 구석기 시대 에 원시인이 주거했던 혈거유적지로 보고 있어서 제주도 자체 가 대륙과 연결되었다가 함몰하여 점차 점이 형성되었다는 가 설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경면 고산리에서 신석기 시대 초기의 유적, 유물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삼국시대의 제주

주호(州湖)시대는 삼국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삼국으로 서서히 통합되어 고대국가를 정립하여 나가 는 시대이다. 이에 대응되는 시기로 중국 진나라 때 진수(233 ~297)가 쓴 〈삼국지〉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에 주호(제주 도를 주호라 부름)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따서 주 호시대라고 한 것이며 그 기록은 대략 다음과 같다.

"마한의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점이 있는데 주 호리는 나라가 있다. 그 곳 사람들은 몸집이 작고 언어도 한나 라 사람과는 다르다. 모두 머리를 깎아서 마치 선비족(고대 북 아시아에 살던 몽고 퉁구스계에 딸리는 유목 민족) 같다. 옷은 기죽옷을 입었는데 윗도리만 입고 아랫도리는 없어 마치 벗은 모양과 같다. 소와 돼지도 잘 치고 배를 타고 한나라와 왕래하 며 장사도 한다." 이 기록은 제주도의 고대사회에 관한 비교적



배동지도 중 제주 삼천도(三緊圈), 1750년경



해통제국지도 중 재주, 1700년대말



제주 산옥저도(堂邑公嗣) 1872년

대체로 6세기 이후로부터 제주를 통칭하여 '탐라(耽羅)' 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탐라와 삼국과의 관계는 탐라는 5-7세기에는 백제와 7세기 중엽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신라와 관계를 성립하였다. 본격적인 소국관 계의 국가체제가 정비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938년 (고려 태조 21) 이후는 고려에 예속되었으며, 그후로 1374년 (공민왕 23)에 원나라 세력을 완전히 몰아낼때까지 고려와 원 에 의해 수시로 소유권(?)이 비뀌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고려시대의 제주

고려는 1105년(숙종 10) 탐라국의 국호를 폐지하고 고려의 한 지방 행정구역 단위인 군(郡)으로 편제시 켜 탐라군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오랜 역사를 이어 온 탐라국 은 해체되어 국호가 폐지되고 고려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이 로써 고려의 간접통치를 받아오던 탐라는 고려의 직접적인 통 치를 받게 되었다.

이후 고려의 왕조가 원(元)의 침략을 받게 되 자 이에 항거한 삼별초가 강화도와 진도를 거쳐 탐라에 내려오 게 된다. 이때 이미 한통속이 된 고려 조정과 몽고는 삼별초가 탐라에 상륙하지 못하게 탐라섬 북녘 바닷가(현 애월읍 고내, 제주시 화북동, 구좌읍 행원 등)에 성을 쌓았다. 결국 진도의 삼 별초군은 김통정이 이끄는 잔군을 이끌고 탐라에 들어와 향파 두리성(현 애월읍 고성리)을 쌓고 대몽항쟁을 계속 전개하였으 나 1273년(원종 14)에 여용연합국에 패하여 삼별초 항쟁은 최 후름 마쳤다. 삼별초를 평정한 원(元)은 탐라를 고려로부터 분 리시켰다. 이것은 원세조가 열망하여 오던 일본과 중국의 남송 (南宋)정벌에 전략상 탐라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탐리는 원이 멸망할 때까지 근 1세기 동안 이민족에 게 시달리는 치욕적인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원의 지배는 제주인의 언어슴속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제주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때까지 신라 및 고

려에 예속되면서도 반독립적 형태에서 자주성이 유지되어 오 던 탐라의 모든 제도와 행정권은 태조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의 하여 그 행정력 속에 흡수되었으며 향교(鄕校)를 설립하여 유 교(儒敎)의 지도이념 아래 유교교육이 보급된다. 1404년(태 종 4)에는 오랫동안 세습되어 오던 성주(星主) · 왕자(王子)의 호칭이 폐지되어, 이후 제주도의 귀족은 평민화되었다. 1409 년(태종 9) 중앙에 경재소(京在所)가 설치되면서 서울에 사람 이 가는 것이 허락되어 벼슬을 하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1416년(태종 16)에는 한라산 분수령을 경계로 산북을 제주목(濟州牧)으로, 산남은 양분하여 동측을 정의현 (旌義縣), 서축을 대정현(大靜縣)으로 나누어 각각 목사와 현 감을 두어 다스렸는데, 이 1목2현 제도는 조선 말기까지 지속 되었다.

왜구의 침입은 고려 말부터 조선 중엽 1559년 (명종 14)까지 30여회나 있었다. 따라서 1439년(세종 21) 왜 적에 대한 방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3성(城-행정 · 방어목적 의 성), 9진(鎭-방어를 위한 성), 25봉수대(烽燧臺 통신망), 38연대(煙臺 감시망)를 정비하였다. 특히 왜구의 침입이 가장 심했을 때는 1550년대로 1555년(명종 10)에는 왜구 1천여명 이 침입하여 제주성(濟州城)을 공격하였으며, 1956년에도 왜 구는 전도에 걸쳐 침입하였으므로 군관민을 독려하여 왜적을 물리쳤는데 제주에서는 이를 을묘왜변, 병진왜변이라고 한다.

토지가 척박하고 협소한 본섬은 인구의 증가 로 자급자족이 곤란하게 되고, 과중한 군역의 의무와 왜적의 침범에 대한 불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였 으므로 인구가 격감하였다. 1629년(인조 7)에는 제주도 자체 방어가 어렵게 되자 도민들의 출륙(出陸)을 금지하였다. 이 제 도는 조선 말기(1830년)까지 약 2백년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육지부와의 교역은 물론 문화의 교류도 차단되었다. 이는 제주 문화의 특이성(特異性)-고유성(固有性)-을 갖게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탐라슈력도 중 한라장촉(漢拏 **州**源), 1702 도에 관한 정반 적인 내용과 주 변도서에 대한



「탐리순력도 중 제주조점(操點), 1702년」: 제주읍성에서의 성정군(城丁軍)의 군사 훈 련과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그림

제주

전통건축 traditional architecrure

Cheju

제주의 전통건축

Traditional Architecture of Cheju

신석하 / 제주산업정보대 건축과 교수 by Shin Seok-Ha

유구한 시간이 흐르는 기운데 제주의 역사는 수없이 변천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제주도는 지리, 역사, 사회 적 특수성이 이 점만이 갖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주거건축 뿐만 아니라 제주도안에 산재하여 있는 관아(官衙), 관방유적(關防遺蹟), 성곽(城郭), 불교유적 (佛敎遺蹟), 항교(鄕校) 등 또한 본토의 건축과는 다른 제주만 의 독특한 모습으로 제주인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

방어건축: 성곽(城郭), 봉수(烽燧), 연대(煙臺)

제주도는 북쪽으로는 한반도를 비롯해서 서쪽 으로 중국, 동쪽으로 일본, 남쪽으로 유구(琉球)열도로 둘러싸 인 동중국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하 여 주변국의 외침을 빈번히 받았다. 특히 고려시대에 원(元)의 일본 정벌을 위한 전초기지가 된다든지, 조선시대의 잦은 왜구 침입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의 : 타의적인 방어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도내에 있는 방어시설중 고려시대에 축성된 항파투리토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어시설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한 것이다. 이 들 방어시설은 대부분 1437년(세종 19)에 한승순(韓承舜)목 사의 건의에 의하여 체계적인 정비와 축조가 되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대표적인 방어시설은 성 곽과 봉수 · 연대이다. 성곽에는 3성(城-제주성, 정의성, 대정 성), 9진(鎭-화북진, 조천진, 별방진, 수산진, 서귀진, 모슬진, 치귀진, 명월진, 애월진), 항피두성과 해안 주위 300리에 축조 된 환해장성이 있다. 그리고 봉수와 연대는 봉(烽:횃불)과 수 (燧:연기)로 급한 소식을 전하던 통신시설로 높은 산이나 해안 구릉에 설치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신호를 보냈 다. 봉수와 연대는 1800년대 (제주병제급삼읍봉수연대병졸총 록(濟州兵制及三邑)敎敎團臺兵卒總錄))에 의하면 도내에는 봉 수 25개소, 연대 38개소가 있었다.

제주성(濟州城)은 탐라국 때부터 이미 축성되 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 연대는 기록상으로 확실하지 않 다. 다만 1411년(태종 11) 제주읍성을 보수하였을 때에 그 둘 레가 4천7백척, 높이가 11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초기에는 이미 성의 규모가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512년(중종 7)의 중축으로 그 둘레가 5천4백 89척, 높이 11척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후에도 제주읍 성의 개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성안의 물이 없어 백성들의 고통이 많았고, 또 가락천(嘉樂泉)과 산저 천(山底川)의 범람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1565년(명종 20)에 곽흘(郭屹) 목사가 성안에 우물이 없어 백성들이 겪는 식수난 과 변란 때의 물난리에 대비하여 동쪽 성을 산지내 밖으로 물 려 쌓고 동서에 각 1문, 남쪽에는 2문을 내었는데, 이 때의 성 의 둘레는 7천3백40척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초에는 가락천 과 산저천, 고롱(高陵)이 모두 성 밖에 있었다. 그리고 1599년 (선조 32)에 성윤문(成允文) 목사가 성굽을 5자 더 늘려 쌓고 남문을 하나 없애는 동시에 문 마다 초루(樵樓:門樓)를 만듈 고 남북의 두 수구(水口)에는 무지개(虹霓) 모양으로 남수각 (南水閣)과 북수각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성위에는 격대(擊坮) 와 포루(砲樓)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성은 시가지의 발달로 인하여 성곽은 현재 거의 없어지고 제주시 이도 1동 오현단 남쪽에 그 일부가 복원 되어 있을 뿐이다.

대정성(大靜城)은 남제주군 대정읍 안성, 보 성, 인성리 일원에 남아있다. 1417년(태종 17)에 대정현감 유 신(兪信)에 의해 처음 축조된 이 성은 둘레가 4,890척, 높이



'라리슈런도 중 대정조점(大辭操點), 1702. 대정현성의 성정군과 군사훈련 등 제반사항 을 점검하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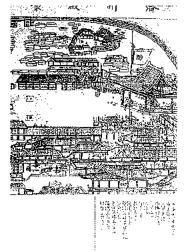
17척이고, 동서남에 세 문이 있었는데 문 위에는 문루(門樓)가 있었다. 그러나 성 안에 샘이 없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나 적이 성을 포위했을 때를 대비하여 성을 옮겨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선조연간에는 옹성(擁城) 과 포대(砲臺)를 더 쌓았으며, 동서남의 세문 앞에는 돌하르뱡 이 각각 4기씩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현재 400m 정도가 남 아 있으며 일부는 복원되어 있다.

정의성(旌義城)은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에 한라산을 조산(趙山)으로 영주산을 진산(鎭山)으로 삼고 남산 봉(南山峰)을 안산(案山)으로 상정하여 천미천(川尾川)이 반 달형으로 휘감아 도는 곳에 자리 잡았다. 둘레가 2,986척, 높 이가 13척이며 통ㆍ서ㆍ남 3분이 있으며, 현재 문루와 성태. 일부가 복원되어 있다. 성의 크기는 지름 약 150m의 귀 죽인 네모꼴로서, 성 안의 도로형식은 제주성, 대정성과 같이 "T"자 형 도로를 주도로(主道路)로 하여, 여기에 활꼴 수법의 길을 내거나 막힌 고살 기법의 도로를 혼용해서 안길로 쓰도록 계획 했다. 정의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존된 읍성(邑城)중의 하나로서, 이 곳 공간구조의 기본틀을 해독함으로써 제주도 읍 성의 성격뿐만 아니라 우리니라 읍성의 계획정신을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진성(鎭城)은 도내에 9곳(화북, 조천, 별방, 수산, 서귀, 모슬, 차귀, 명월, 애월)에 축조되었으며, 대체로 해발 1~10m의 경사면에 해안을 감시하기에 유리한 곳에 위 치하고 있다. 행정성을 겸하고 있는 음성은 방형인데 비해 진 성은 지형을 이용한 부정형 또는 타원형의 평면형태를 하고 있 다. 또한 진성은 방어를 위한 성이기 때문에 읍성에서 3곳에 문을 설치하여 T자형 도로를 내는 것과는 달리 서로 대향하여 2곳에 문을 두었다. 성의 상태를 보면 궁형(弓形)의 형식을 하 고 있으며 쌓기방식은 현무암 표면의 특성을 살려 거칠게 다듬 한 허튼층 쌓기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봉수대는 크게 산(오름) 정상부에 설치된 봉수(烽燧)와 해안 구릉에 설치된 연대(煙臺)로 나눌 수 있다. 봉수와 연대의 기능적 차이는 봉수대는 50리 밖을 감 시하고, 연대는 해안 가까이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봉

수는 일반적인 경우 석. 축(石築)함이 없이 등 글게 흙을 쌓아 올려 그 위에 봉덕시설을 하 였고, 밑에는 이중의 배수시설로 도랑을 만 들었다. 연대는 해안을 감시하기 용이하고 적 과 전투시 유리한 곳에 석축(石築)하였다. 연 대의 축조는 (경국대전 〉병전(兵典) 봉수조 (烽燧條)에 의하면, 높 이 30척, 밑변은 1변 의 길이가 20척인 방



「탐리순력도 중 제주전최(殷最), 1702년 제주 목사가 관하 각 관리의 치적을 심사하는 그림

형(方形)의 축대를 쌓았다. 연대의 둘레 밖으로는 깊이 10척. 너비 10척의 해자(垓子:밖으로 판 호)를 파도록 되어 있다. 또 한 높이와 크기도 지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해안의 높은 지대에 방형(方形)으로 축조하였다. 필요에 따라 방형이 아닌 특이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예로 왜포연대를 들수 있다.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에서 서쪽해안 가까이 주위 지형보다 다소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 왜 포연대는 일반적으로 연대의 평면 형태가 방형(方形)인데 비 하여 이 연대는 타원형(恕圓形)의 독특한 형태이다. 벽체 또한 이중벽(二重壁)으로 분리 축조되어 있으며, 지면의 높이도 고 르지 못하다. 이러한 이중벽은 연평균 풍속이 4.8m/s나 되고 특히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10m/s가 넘는 제주 도의 자연환경에 대응하고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이건축: 목관이지(牧官衙正), 관력정(觀德亭)

제주목 관아터는 제주시 삼도 1동 관덕정 일 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고려시대 탐라군(耽羅郡:뒤에



별방진 전경



조천진 전경



제주 목관아지 전경



「탐라순력도 중 제주양로(養老), 1702년」: 제주목에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노인율 모시고 동헌 앞에서 치루어진 일종의

縣)의 중심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에는 대촌현(大村縣)으 로 제주목의 중심지이 기도 하였다. 단편적인 기록들에 의하면, 탐라 쿅 시대에는 성주청(墨 主廳), 고려 후기 원 (元)의 지배하에서는 탐라총관부(耽羅摠管 府)가 위치했던 지역으 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헌상으로 이 일대 관아 건물의 대략 을 엿볼 수 있는 시기는

1435년(조선 세종 17) 이후이다. 그 후 관아건물은 관덕정을 중심으로 북동쪽에는 목사의 동헌(東軒)을 비롯하여 그 부속 건물, 남동쪽에는 판관의 정무청(政務廳)과 부속 건물이 위치 하였다. 즉 북동쪽에는 종루(鐘樓:布政門) · 우련당(友運堂) · 연희각(延曦閣)ㆍ애매헌(愛梅軒)ㆍ귤림당(橘林堂)ㆍ영주관 (瀛州館) - 옥(獄) 등이 있었으며, 남동쪽에는 찬주헌(贊辭 軒) · 찰미헌(祭眉軒) · 생백헌(生白軒) · 향사당(鄕社堂) 등이 있었다. 관덕정 북동쪽 옛 경찰서가 있었던 곳은 몇 년 전부터 발굴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관덕정(觀德亭)은 제주시 삼도 1동에 있는 조 선식대의 정자(亭子)이다. 현재 보물 제322호로 지정되어 있 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건물로 관이건축(官衙建築)의 산 증인 이다. 1448년(세종 30) 신숙청(辛淑晴) 목사에 의해 병사의 훈련청으로 창건되었는데, 그 창건기(創建記)에 의하면,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보는 것이다(射者所以觀感德也) 라 하여, 정자 이름을 '관덕(觀德)'이라 붙였다고 한다. 건물 내부의 포벽(包壁)에는 두보(杜甫)의 취과양주귤만헌(醉過楊 州橘滿軒), 상산사호(商山四浩), 적벽대첩도(赤壁大捷圖), 홍 문연(鴻門宴), 진중서성탄금도(陣中西城彈琴圖), 대수렵도(大 狩獵圖), 십장생도(十長生圖) 등 작자 연대 미상의 7폭의 벽화 가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이 관덕정은 창건 이후 여러차례의 증수와 개축을 거치다가, 1924년 일인(日人) 도사(島司) 마에 다(前田善次)가 보수할 때 15척 이상 나온 처마를 2척 이상이 나 잘라버려서 제주도 처마 곡선의 맛을 잃게 되었다. 1969년 에 대대적인 수리를 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불교건축: 원당사지 5층석탑(元堂寺止 五層石塔)

제주시 상양동 해발 174m의 원당봉(元堂峰) 기슭인 원당사지 안에 위치한 고려시대의 석탑이다. 제주도에 있는 불탑으로서는 유일한 것으로 보물 제1187호로 지정되어 있다. 구전(中傳)에는 태자(太子)가 없어 고민하던 원(元)의 순제가 "북두(北斗)의 명맥(命脈)이 비친 삼첩칠봉(三疊七峰) 에 탑을 세워 불공(佛供)을 드려야 한다."는 승려의 계시를 믿 은 순제의 제2황비였던 기황후(奇皇后)의 간청에 의해 이 곳 에 원당사와 함께 불탑을 세워 사자(使者)를 보내어 불공을 드 렸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사찰은 화재로 소 실되어 지금은 5층 석탑만이 남아 있다. 탑은 단층 기단위에 5 층의 탑신부(塔身部)를 형성하고 정상에 상륜(相輪)을 장식한 석탐이다. 탑의 높이는 395cm, 측면 너비 84cm, 정면 너비 89cm이며, 1층의 기단과 5층의 옥신(屋身)은 심하게 좁아져 서 특이한 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층의 옥신이나 옥개(屋 蓋)는 하나의 돌로 만들어져 있다. 옥신은 사각형에 어떠한 문 양도 두지 않은 간략한 형식이며, 네 귀퉁이는 처마끝만 살짝 올려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옥신이나 옥개가 변화된 간략한 형 식은 보기 드문 양식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륜부(相軸部)는 일제강점기에 없어졌으며, 최근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보개(寶蓋)가 올려져 있다. 1988년 지표조사때 상륜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직경 9.2cm, 높이 9cm, 구멍 직경 2.7cm의 보주(寶珠) 또는 용차 (龍車)로 추정되는 석제(石製)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의 구멍에는 철물에 꼽혀 있었던 흔적이 있어서 원래의 상륜부에 는 철제찰주(鐵製擦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충탑신(初



과덕정: 100년전 모습



관덕정: 현재 모습



원당사지 전경 🛭

대정향교는 현재 경내에는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동재(東齋), 서재(西齋), 내삼문(內三門), 협 문(夾門)이 있으며, 삼읍 향교중 전학후묘의 배치를 하고 있 다. 전면에 외삼문 또는 누각을 두지 않고 측면 서쪽의 협문을 통하여 서재와 명륜당 사이를 휘감아 돌면서 진입하면 명륜당 을 기운데 두고 통재와 서재로 둘러싼 마당에 다다르게 된다. 이러한 진입방식은 제주 만가의 진입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배향공간은 강학공간과의 영역성을 두기위해 한 단 높게 석축하여 내삼문과 돌담을 두르고 높은 곳에 대성전을 두어 정

으로 잃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제주만의 독특함을 느낄 수 있고

제주지역의 향교를 이해하는데 나름대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대정향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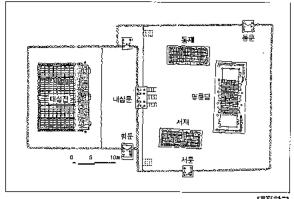
신적으로 성현에 대한 주의깊은 배려를 하였다. 대성전은 명륜 당, 동재, 서재와는 다르게 높은 기단과 팔작지붕으로 되어있 다. 평면은 5칸형이고 기둥은 원주로 된 육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이지만, 네귀 우주(鴎柱)의 밖으로 다시 기둥을 세워 서 상부의 외1출목 도리클 받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또한 기존의 포(包)와 화반(花盤)에 세겨진 당초문(唐草紋)과 지붕 의 기와와 막새에 새겨진 선문, 원문 등은 특이하여 김홍식교 수는 "포와 화반에 세겨진 조각은 남자가 기쁨에 넘쳐 춤을 추 는 율통을 담은 모양, 단순히 식물의 통적인 모양을 묘사한 모 양과 소용돌이 모양 등 주로 넝쿨식물의 성장에서 율동을 발견 하고 이것을 자기감정표현의 수단으로 삼아 조형하는 장인의

層塔身) 정면에는 홈이 패여 있는데, 이 곳에 사리가 봉인되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상대석의 전면과 좌우측면에 는 연화문(蓮花文)이 음각되어 있다. 이 5층석탑은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만들어져서 한반도의 화강암으로 제작된 것과 좋 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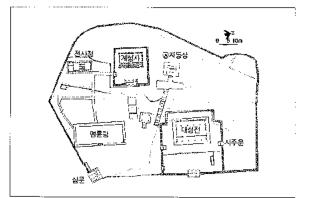
교육시설: 향교(鄕校)건축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태조의 중앙집권화 정 책에 의하여 제주도 또한 향교(鄉校)를 설립하게 되는데 1392 년(태조 원년)에 제주향교(濟州鄕校), 1416년(태종 16)에 대 정향교(大靜鄕校), 1423년(세종 25)에 정의향교(旌義鄕校) 가 창건되었다. 향교들은 여러번 중 · 개축과 이설을 거치다가 제주향교는 1827년(순조 27), 대정향교는 1653년(효종 4), 정의향교는 1849년(헌종 15)에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여 오늘 에 이르고 있다.

향교의 배치는 대지가 그름을 낀 경사진 터에 높은 위쪽에 배향(配享)공간을 두고 전면 낮은 터에 강학(講 學)공간을 두고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이룬 제주향교 와 대정향교, 그리고 문묘(文廟)와 강학구역이 좌우병렬형식 율 이룬 특이형 배치인 정의향교가 있다. 그러나 제주향교는 근래들어 다시 이설하면서 배향공간과 강학공간이 좌우에 배 치되어 본래의 모습을 잃고 있다. 그중 고풍스런 맛을 세부적



대정향교



제주향교



대정향교 전경



대정향교 대성전과 내삼문



제주향교 전경

기쁨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숫막새와 암막새는 주로 싸 리문들인데 가운데에 원을 돌리고 사방으로 싸리줄을 보낸 것 으로 육지와 다르며 육지문양과 비교하면 고색(古色)을 띠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1993년에 중수하면서 포와 화반, 기와 막새의 기존의 문양을 완전히 무시한채 새롭게 장 식하므로써 이전까지 대정향교만이 갖고 있던 세부적인 모습 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명륜당은 대성전과는 대조되게 기 단을 두지 않고 잇돌을 놓아 배흘림이 약한 원기둥을 세운 우 진각 지붕으로 되어있다. 간단하고 단순한 표현은 제주민가에 서 와가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느낌을 풍기고 있어서 육지의 향교와는 다른 제주향교만의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제주 주거건축

제주도 주거건축은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 적 별동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건축의 배 치는 지형과 일사, 풍향, 풍수지리, 기후에 대처한 요구. 이 섬 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가족제도와 관습 및 신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제주도의 주거건축은 구심적 공간구성을 보여. 주는데 육지의 안채 = 여성, 바깥채 = 남성의 영역이란 남녀 공간분리와는 달리 세대별 공간분리를 보여준다. 제주도의 가 옥구조는 부모가 안거리를 그리고 자식부부가 밖거리를 점유 하였다. 개개가 독립된 취사 단위가 되므로 자식 부부와 부모 가 별계의 부엌을 점유할 뿐만 아니라 식사와 심지어 논과 밭 까지도 따로 소유한다.

이러한 특이한 가족제도, (고팡물림)으로 인 해 한 울타리 안에서 살되 육지에서 볼 수 없는 세대별 공간분 리를 형성케 되었다. 안거리와 밖거리는 규모, 평면구성, 재료 에서도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의 비슷하게 짜여 저 있어서 위계성이 미약하다. 그러나 안거리 공간은 밖거리 공간과 비교하여 직능면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안거리와 밖거 리에는 각각 상방, 구들, 정지, 고팡이 자리하는데, 안거리에서 만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일(상방-문전신), 제사를 준비하는

일(정지-조왕신), 제사용 제수의 보관(고팡-안칠성) 등이 존재 한다. 또한 안거리에 속한 안뒤에만 철성눌(밧칠성)이 있다. 즉 무속신은 안거리에서만 모셔진다. 마을의 영역에서도 친족 의 일, 부초, 공동재산권, 당에 가는 일 등은 안거리에 사는 사 람들만이 행하는 것으로 안거리는 밖거리에 비하여 중요한 공 간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주거 내부공간에서는 남녀별 공간분리를 볼 수 있어 상방이나 큰 구들은 가장의 영역이고 정지, 고팡, 챗방, 작은 구들은 여성의 영역이 되는데 이는 물리적 경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 습속적인 공간분리이다. 이 남녀 공간분리는 남녀별의 이중 신앙구조, 그리고 남녀의 생활 영역, 동선분리, 착석위치, 식사 및 취침행위 같은 일상생활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남녀의 영역분화는 여성 노동력 위 주의 생산체계로 인하여 여자 생활영역의 확대, 여자 중심의 무속신앙과 남자 중심의 유교사상이란 이중 신앙구조, 그리고 좁은 도서문화(島嶼文化)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인습으로 남녀가 정신적으로 분리되어 공존하는 구조적 이원화로 인하 여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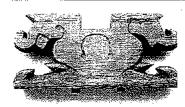
상방의 출입문을 육지와는 달리 대문이라고 불러 제주도 주거건축이 주거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살림채의 대문신인 문전(門前)은 주거의 대소사 를 관장하는 최고의 신으로, 집안의 모든 제의에서 우위를 차 지하여 상방이 주거의 중심공간이 되게 한다.

제주도에서는 집안의 부(富)를 일으켜주는 칠 성에 대한 신앙이 강하여 안칠성이 모셔지는 고팡이 중시되었 다. 제주도 전통 주거건축에 있어서 고팡이 큰 구들에 붙어 배 치되며 외부로 통한 출입문을 폐쇄적인 널문으로 처리한 것. 〈 고팡물림) 제도가 있는 것에서 안거리의 가재관리 기능이 특출 함을 알 수 있다. 비촉(備蓄)공간인 고팡은 제주의 정신인 조 냥정신 즉 근검성(勤儉性)의 대표적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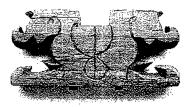
원래 제주의 주거건축은 문이 없는 형식으로 정당이라는 원초성 장치가 그 기능을 대신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중문이 설치되는데, 이중으로 대문이 설치되는 것은 주공간에 대한 경계요소로서 켜를 더함으로써 몸체공간



대정향교 막새문양



대전함교 화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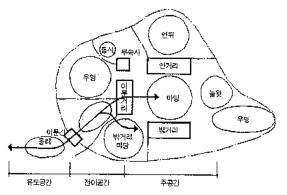
대정향교 화반

에 위계성과 중심성을 강조시키자는 의도의 표출이고, 도입부 (올레)-본체(마당을 중심으로한 안·밖거리)-안뒤로 된 단순 한 제주 주거건축의 삼분 구성이 육지의 상류 주거 건축의 공 간 체계인 대문-행랑채(중문)-사랑채(바깥마당)-안채(마당)의 다양성으로 전이되었다. 대문이 중첩하여 시설됨으로 해서 공 간 체계에 절점이 분명해졌으므로 결과적으로 19세기 제주 주 거건축의 공간체계는 표현의사를 구체화시킨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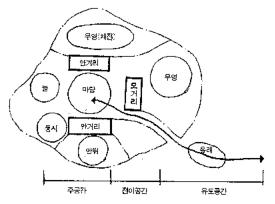
제주 주거건축은 측면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19세기에 축조된 주거건축에서는 19세기 이전 의 틀을 가지고 밖거리의 측면 일부에 툇간을 툇마루로 해서 그 쪽으로 즉 머리방으로 출입하는 새 형식이 나타난다.

즉 안·밖거리로의 동선 분리가 마당에서 이 루어지던 전례의 방법이 마당에 들어서기 이전 위치에서 이루 어져서 조선사대 반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사랑채의 개념 이 이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머릿방의 출현은 안 밖거리 대향 구성에 변 화를 가져와서 전시대 제주 주거건축의 기본적 특성인 구심적 공간체계가 달라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현상은 이제까 지 안 박거리 세대별 영역구성에서 성별 영역형성으로의 전 환율 나타낸다. 이 성별에 따른 영역구분은 19세기에 일어난 현상이라기 보다 이 시대의 주거건축에서 일부 나타나는 성격 으로 19세기 또한 그 이전의 주거건축의 공간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주 와가의 외부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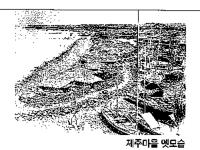


제주 초기의 외부공간구성









②懿 대정황교 대성전 덧기통

제주

근대건축 modern architecture

Cheju

제주 근대시기의 건축

The Architecture of Cheju in the Modern Era

양상호 / 탐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Yang Sang-Ho

제주건축은 변방 · 풍토의 건축이다

이 글은 근대시기 - 필자의 독단으로, 역사개 녕이라기 보다 단순한 시기구분을 위한 용어로서 사용하고자 하였고, 제주의 경우 일제이후 1960년대 말까지로 구분하였다. - 예 제주에 지어진 건축물과 건축현상에 대하여 역사적 맥락에 서 정리한 것이다. 그것들의 보편성 획득여부는 차치하고, 제주 나름의 정리와 서술은 필요하다는 전제이래 작성한 것이다. 보 편사적 가치는 부족할지라도, 지역의 건축은 나름대로 지역문 화의 수준을 대변하며, 경우에 따라 독자적인 지역건축을 형성 해 가기도 하기 때문에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건축물은 장소의 성격을 대변하면서 지어지기 때문에, 도시공간의 변화와 건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간 략하게 소계하기로 한다.

1910년 이전

: 제주의 전통건축은 ……

제주의 근대건축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면, 제 주의 전통건축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건 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근대라는 시 기는 이전의 시대와는 다른 무언가가 존재함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제주건축의 전통적인 내용이 한반도 - 제주사람들은

흔히 육지라고 부른다 - 의 그것과 차이가 있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민가에서의 차이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러한 차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민기란 지역의 환경성을 그대로 반 영하는 것이어서, 제주의 독특한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제 주민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이건축(官衙建築), 종교건축(宗教 建築) 등의 권위건축의 경우는 어떨까. 권위건축은 보편적인 법 식을 갖추어 짓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지역적인 독자성이 나 타나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인데, 제주의 권위건축은 어떠할까. 제주의 행정구분에 따라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대정 현(大靜縣)에 세워진 관아, 향교의 건물증 몇채가 남아 있을 뿐,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유적은 많지 않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유적만으로도 한반도의 그것과 외관에서 보이는 차이점 몇 가 지를 우선 들 수 있다. 제주향교 대성전의 귓기둥밖으로 외목도 리를 받치고 있는 기둥의 존재는 육지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 는 것이다. 또 그 기둥의 머리부분에 새겨져 있는 문양은 육지에 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특이한 것으로 오히려 남방계의 느 껍을 주는 문양이다. 이러한 기둥과 문양은 대정향교(大靜網校) 대성전에서도 보인다. 일찍이, 1924년 당시의 경성고공 건축과 교수였던 후지시마(藤島支治郎)도 제주도의 건축을 답사하여 이것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남방계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표방했던 조선왕조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담당하던 향교에서 그것도 대성전에서 이렇듯 독특 하고 독자적인 건축형식이 허용되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 주향교 계성사(啓聖祠)의 존재와 함께 연구해 봄직한 사항이다.

또한, 제주건축의 지붕물매는 초가이든 와가이 든 물매가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觀德 亭, 戀北亭 등 참조). 제주의 전통건축은 대부분 전후퇴간을 갖 는 7량의 겹집구조인데, 7량구조의 지붕물메라면 좀더 가파르 고 높은 지붕일 수 있는데 굳이 낮은 물매와 높이를 사용하였을 까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것은 육자건축의 자붕이 입면에서 많은 프로포션을 차지하는 특징 - 존두사상(尊頭思想)의 일면 이라고까지 하는 - 과는 분명히 배치되는 점이기도 하다. 그 이 유를 바람이 강한 풍토성에서 찾을 수도 있겠으나, 사성적으로





제주향교 대성전 갓기둥의 문양



수리이전의 관덕정(19C말)

유교의 영향이 육지지역만큼 강하지 않았거나, 유교를 받아들 이는 인식태도가 달랐던 지역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도 있다. 지붕을 중시하는 육지의 전통건축과 비교된다거나, 정 형적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향교건축에서도 타 지역에 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형식이 베풀어진 점들을 보면 더욱 그러한 심증에 무게가 더해진다.

이러한 제주건축의 육지건축과의 차이는 어떻 게 설명되어야 할 지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어쨌든, 육지건축 과의 차이를 보이던 제주건축의 특성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육 지건축의 보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정착되어 갔을 것이고, 이 러한 현상은 일제의 강점이후에도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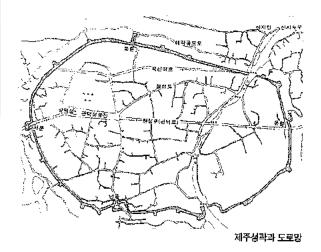
1910년 ~ 1930년

: 소위, 근대시기로 들어서지만 ……

근대의 성격으로 여러 가지 현상을 들 수 있겠 으나, 여기서는 도시화와 산업화를 주로 얘기하기로 하자. 다시 말해, 산업의 변화와 함께 산업적 기능을 갖는 건축물이 많아지 면서 도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근대도시의 모습이다. 그러나, 한국의 중소도시에서 본격적인 도시공간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러일전쟁이후 일제의 침략행위가 안정화 되어 일본인들이 각 도시에 정착하기 시작하여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도시시설과 건축물을 세우면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인들의 관청이나 민간건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도 시공간의 전통적인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의 도시공간의 변화는 육지의 도시 와 달리, 1910년대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일합. 방이후 성곽을 철훼하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며, 기존의 관이부 지에 일제의 관청건물을 세우고 새로운 도시공간의 질서 속에서 일식의 상기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인 변화는 시작되었던 것이다. 합방이후 제주성내(현재 제주시중심지역)의 전통적인 내용을 파 과 또는 변질시켜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골격: 관덕정광장(중심지역)과 산지포구(관문)의 연 결을 위한 통로의 개설
- 기존의 연결도료: 북문을 통과한 해직골도로
- -북운(1913), 동문(1914), 서운(1914), 남운(1918)의
- 성곽철체와 북신작로(北新作路) 걔설(1920전후)
- -산지축항의 건섭(1923~1927)
- 새로운 연결도로의 개설 :
- ① 관덕정광장 북신작호 해직골도로 산지항
- ② 관덕정광장 칠성로 산지전서안도로 해작골도로 산
- ③ 관덕정광장 원정로 산지천서안도로 해직골도로 산
- ※ 원래의 산지포구는 산지천의 북서쪽끝에 위치하지만, 산 지항은 그보다 서쪽해안에 위치한다.



다시 말하면, 관덕정광장과 산지포구를 연결하 기 위하여 처음에는 기존의 도로체계를 그대로 이용하지만, 성 곽이 철훼되고 북신작로가 개설되면서 북문을 통과하던 루트를 북신작로로 변경한다, 또 칠성로를 이용하는 루트, 산지천의 서 안도로를 정비하면서 원정로에서 내려가는 도로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제주시의 도로체계는 새롭게 기본골격을 갖 추게 되는데, 이에 따라 관덕정광장에서 동문교에 이르는 도로



관덕정광장의 오일장(1916년이전)



관력정광장의 높이모습(1916년이전)



산지포구의 원래 모습(19Cs)



제주금융조합(1912년)



조선식산은행 제주지점(1932년)



제주지방벏원(1920년대)

들(칠성로, 원정로) 이 제주시의 중심도 로가 되고 주요상점 가가 된 것이다. 이 골격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라서 이러한 골격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제주성내의 건축적 인 변화는 거의 발생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1916년 목관아(牧官衙)의 대문이 헐리기 이전 의 관덕정광장(제주 시의 중심광장) 사진 을 관찰하면 일식의 건물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진에서 일본인의 복장은 눈에 띤다. 이것으로 일제가 최초로 사용했던 관청건물은 전통한옥을 빌리거나 수용하여 사용하였 을 것이며, 일본인들의 생활도 한옥에서 영위했을 가능성이 높 다(제주읍시무소, 신성여학교, 공립보통학교, 제주우편국, 자혜 의원 등은 한옥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양상은 타지방에서도 흔 히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제주의 도시공간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식건축이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1920년대 중반이후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제주의 관문인 산지항의 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건자재의 운반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 지항은 제주의 공식항으로 1920년에 지정되고, 1927년에 개 항한다. 거기에 항구로서의 시설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26년 부터 1929년까지의 방파제공사에 의해서이다. 이 시설을 갖추 기까지는 1735년에 축조된 방파제가 항만시설의 전부였으며, 이 시설을 이용하여 합방후인 1913년에 목포와의 정기기선항 로가 개설되고, 1915년에는 약 400톤급의 기선이 취항하는데 이것도 1개월에 2회 운항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대량의 건자재를 수송한다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음 것이다. 1911년의 경우, 목재 16,000才, 못 350근, 아연판 80 매 정도가 반입되었는데, 이것은 디수의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의 건축이나 도시의 전통적인 모습 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육지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늦은 1920년대 중반이후 일제에 의해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의 전통건축은 도로를 향하여 개방되는 경우가 없다. 대문을 두고 그 곳을 통과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의 건축(일본과 서구의 절충된 형태)은 도로에 그대로 개방되는 정면을 가지며 출입구에는 현관 포치(Porch)를 두기 때문에 도시의 피사드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주의 뒤늦은 변화는 제주목(濟州牧: 현재 제주시지역)의 중심이었던 관덕정광장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 일대에는 각종 관청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넓은 광장 을 집회장소나 오일장 등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제주도청 (1917), 제주금융조합(1912), 조선식산은행제주지점(1932), 제주지방법원(1920경)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이렇듯 제주건축의 변화는 우선 일인들의 관청 및 상업건축이 세워지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변화는 점이라는 제주의 지정학적 성격을 반영하여 1920년 후 반에야 시작된다는 특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동반되는 도시공 간의 변화는 새로운 도시시설인 항구가 개발되면서 새로운 지 역이 활성화되어 공간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후의 변화는 외부에서 이입된 일식건축이 정착해 가는 과정과 이에 대한 전 통건축의 대응과정에서 보이는 내용이 될 것이다.

1930년 ~ 1945년

: 외부의 건축이 제주에 정착하면서……

1930년대의 관덕정광장에서 보이는 제주의 시 장모습은 육지의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사진에 서 보이는 가가(假家: 전통적인 가설상점)의 모습은 조선땅 어디



관덕정광장의 가가(1930년대)



관덕정광장의 오일장(1930년대)



제주읍사무소(1937년)

서나 보였던 그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모습은 열제가 침입해온 이후에도 거의 변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는 한가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다. 당시 제주도내 거주하는 일본인 의 수가 약 1,200~1,300명이고, 제주시내에만 700여명이었음 도 불구하고, 중심지인 관덕정광장(폭 24~30m, 길이 150m) 에 전통오일장과 가기가 자리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오일장의 배경으로 일식의 건물이 부분 적으로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일제의 관청건축이 나 민간건축은 대부분 목조건축으로써, 미늘판벽의 벽체와 일 식 기와의 지붕으로 마감된다. 이것은 침략초기 지방소도시에 서 적벽돌, 시멘트 등 건축재료의 생산 및 운반체제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쉽게 공급될 수 있는 목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조적조건물을 세울 만큼의 자본력도 충분치 못했던 결 과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의 소도시에서는 거의 공통적 으로 보이는 일로써, 재료의 생산과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지는 1920년대까지 계속되는데, 제주지역의 경우는 점이라는 특성상 더욱 늦어져 1930년대까지도 부분적으로 계속된다. 이 러한 건축물의 건설과 더불어, 도로선의 정비(미포장의 상태)와 함께 전신주가 세워지면, 이전에 보이던 제주의 도시경관과는 시못 거리감을 갖게 된다. 게다가 제주목관아(濟州牧官衙)의 각 관청건물이 철거되고, 그 위에 다시 일제에 의해 세워지는 일본 식 관청건물(제주읍사무소, 금융조합, 식산은행 제주지점)에 의 하여 전통적인 모습이 이미 아님을 알게 된다. 제주에서 시각적 으로 나타난 근대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전통 적인 모습사이로 일제의 건축물들이 조금씩 끼어 들어 어느 새 인가 일식건축물들이 들어찬 도시경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제주는 바람이 많은 지역이다. 비가 와 도 수평에 가깝게 내려치고, 바람을 막아야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제주민가에서 보이듯, 외벽이 두껍고 개구부가 작 은 것이 제주건축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이둘 최초시기의 일식 건축들은 특별한 디자인도 없이 개항장의 거류지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충식의 건물이었는데, 이러한 건축물들은 제주의 기후풍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내부의 진흙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늘판으로 외부마감을 하는 얇은 벽체에다 개구부가 많은 개방적인 일식건축으로는 제주의 기후를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따라 미늘판벽 대신에 제주의 현무암을 조적하여 벽체를 보강하거나, 툇마루부분의 개방된 부분에는 유리문을 덧달아 비바람으로부터 피하고자 하였다. 목재에는 유성페인트(초기에는 콜타르가 많이 사용된다)를 칠하여 부식 을 방지하고자 한다. 1923년에 건설된 제주축후소가 그 대표적 인 예이다. 그 이후 30년대에 지어진 관청건물은 벽돌치장쌓기 (제주읍사무소, 제주세무서, 제주도물산진열장), 또는 조적조위 에 몰탈마감(식산은행제주지점, 금융조합, 제주지방법원)의 형 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전히 미늘판벽의 제주도립병원, 제 주전매지국, 제주우체국 등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전통민가에 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현무암 조적벽에다 툇마 루에 유리문을 설치하고 외부로 노출되는 목재부에 유성페인트 를 칠하는 것은 일식주택과 같은 변화이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방식이나 재 료, 시공기술은 일본의 것들을 사용하지만, 생활방식에 의해 결 정되는 평면형식은 전통적인 내용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물 론 세부적인 면에서의 조그만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인 겹집형식 과 3칸 또는 4칸의 기본평면형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러한 경향은 제주인의 실리적이며 합리적인 성향을 그대 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구하기 쉽고 가공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고, 또 그에 맞는 구조나 기술 을 사용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은 전통을 고수하고 있 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식으로 지어지는 주택에서도 다다마방을 포기하여 구들을 들어고 바닥난방(소위, 레일식 아궁이를 흔히 사용한다)을 고집하고 있음은 바로 그러한 좋은 예이다.

관덕정광장에서 동문교에 이르는 원정(元町; 현재의 관덕로)과 칠성로에는 상점가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곳 의 상점건축 역사 구조나 재료상으로는 일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평면적으로는 전통적인 내용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전면 에 유리문을 두어 개방감을 확보하면서 상품의 전시를 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상점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전면을 개방하기는 하나 전체를 개방하지는



제주측후소(1923년)



제주세무서(193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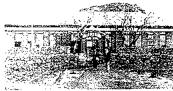
자혜의원(후, 제주도립병원, 1920년대)



구 제주시청(1959,박진후)



제주대 구본관(1956,박진후)



제주공립농업학교(1920년대)

않는다. 출입문을 한 쪽으로 제한하면서 나머지 부분에는 상 품의 진열을 위한 공 간으로 처리하는 것 (일본의 마찌야町家 형식)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점은 전면 부 전체에서 출입가 능한 미서기문으로 처리하여 상품의 진 열은 전면통로에 해 당하는 부분을 사이 에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개방 적이고 고객의 접근

이 쉽게 될 수 있다. 이것은 대자의 형상에서 비롯되는 전통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는데, 도로에 면한 부분이 넓고 상대적으로 건 물의 깊이는 짧아져서 생긴 상점의 형태인 것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도로에 접한 부분이 좁고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대지형 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안쪽까지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통로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만큼 상품의 진열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면전체를 개방하는 형태의 상점은 지금까지도 지방소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점형태 이다.

위에서 살핀 대로 한일합방후 일본인들이 제주 에 정착하면서도 점이라는 위치성에 의하여 제주의 건축 및 도 사경관의 변화는 타 지역에 비하여 뒤늦게 시작되었고, 그 변화 의 양상도 기후적인 요인에 따라 제주의 전통적인 내용이 많아. 계승이 된 형태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 일의 태도는 구조방식이나 재료, 시공방법 등의 면에서는 현실 적인 적응을 하고 있지만, 생활양식을 표현하는 평면형식은 거 의 변함없이 전통적인 내용을 고수하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지 적할 수 있겠다.

1945년 ~ 1960년

: 자주, 자율의 건축은 가늠해졌다지만……

1945년 해방이후에도 제주에서의 건축 및 도 시경관은 이전과 거의 변함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전쟁의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피난민이 대량으로 이주하 여 피난민촌이라는 그들만의 거주지역을 이루는 정도의 변화이 다. 피난민중에 건축기술자들이 섞여 있어서 이들을 통하여 육 지의 건축형식이 어느 정도 유입되었겠으나, 이들의 영향을 지 적할 만큼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50년대 초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제주건축의 변화를 주도해온 관청건축(제주도청, 제 주시청, 제주대본관, 제주축항사무소 등)은 구조나 재료는 일제 의 그것과 동일하나, 형태적으로는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일제 의 관청건축에서 즐겨 사용했던 현관 포치(Porch)의 박공처리 된 입면(일제관청건축의 전형)을 버리고, 박스(Box)형태의 애 스릊 갖게 된다. 또 전면에 수직적인 입면의 굴곡을 만든다. 이 것은 제주건축인들이 서양의 근대건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 타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의도된 변화라 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일제의 박공벽 포치가 고전주 의적인 표현(흔히, 권위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이 라면, 제주의 박스형 포치는 고딕적인 표현이라 굳이 말할 수 있 다. 고딕양식이 갖는 지방성이나 대중성을 미숙하나마 표현하 려 했던 것은 아닐까. 게다가 이것을 근대주의로 이해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열제건축의 외관이 가졌던 권위적 표현을 강하게 거부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특히 1952년 건설된 제주도청사는 이후에 건설되는 관청건축의 규 범적 역할을 하면서, 이 시기의 관청건축이 서로 유사한 형태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가장 제주다운 특징을 갖는 건축형태는 현무암의 조적벽체와 트러스구조에 일식기와를 얹 고, 개구부를 최소화한 형태의 학교건축들에서 나타난다. 일제 때에 설립된 학교들의 경우는 미놀판벽체와 박공처리된 입구를 가진 건물(제주공립농업학교, 신촌국민학교, 제주북국민학교 등)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오현고교(현관 Porch에



제주도립병원(1936년)





구 제주도청(1952,주명록)

Pointed Arch와 Moulding 등 고딕적인 디테일이 보인다). 제 주여고, 제주상고, 서귀중학교 등은 전부 그러한 건물들이다. 이 러한 건물의 외관이 비록 거칠고 세련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묵 직하고 장중하여 매시브(Massive)한 것이 된다. 학교이외에도 KBS제주지국(1950), 강병대교회(1952) 등이 제주건축의 특 징을 강하게 보여주는 예가 된다.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은 가장 제주다운 건축을 표현하는 재료가 되며, 이 러한 외관은 제주민가에서 이미 익숙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관포치나 한열자형의 평면 등 기능적인 면에서는 일제의 학 교건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점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주, 자율의 시기에 새롭게 요구되어 세워진 건축물들에는 일제의 건축과는 다른 내용들이 시도되고 있으 나, 전체적으로는 일제의 건축적 내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시가지의 상업건축들이 일제 강점기의 그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며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도 시공간을 변하게 하는 힘은 발휘되지 않는다. 새로운 건축을 수 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시대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내 용인 것이다.

1960년 ~ 1970년

: 근대건축을 향한 목미름으로~~~~

1960년대에 들어서도 제주건축의 뚜렷한 변 화는 보이지 않는다. 도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상업건축물들 은 여전히 일제의 마늘판벽이나 흙벽위 몰탈미감의 목조건축이 대부분이어서 일제건축의 틀을 깨뜨리고 새롭게 건축되지는 않 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62,3년부터 RC조의 상업건축이 원 정로를 중심으로 드문드문 세워지기도 하며, 최대의 건축주인 관청에서 발주한 몇몇 건축물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지기도 한 다. 특히 관청발주의 건축들은 당시의 보편적인 근대건축의 내 용을 표현하는 것들이어서 제주인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된 다. 이 기운데 가장 눈에 따는 것이 지금은 철거되어 그 흔적조

차 찾을 수 없는 김중업설계의 구제주대학 본관(1963년)이다. 당시까지 제주에서는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건축이었다. 당 시 제주에는 3,4명의 건축사가 활동하던 정도였으며, 제주인들 의 건축에 대한 인식 또한 청부업의 범위를 벗어냐지 못하던 시. 점이었다. 그러한 시기에 김중업의 표현주의적인 작품이 제주 의 건축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자극이었을 것이나. 일반시민들에게는 이상한 건물로 인식되었음을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일반인의 이러한 인식태도는 한국근대건축의 거장 중의 한사람인 김중업의 대표작인 이 건물을 철거하도록 방관 하게 한 것일 것이다. 따라서 이것의 건축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작품의 불모시기라 할 수 있을 이 시기에 또 한 건축가의 작품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출신의 건축 가 김한섭(당시, 광주 및 서울에서 활동함)의 작품인 동문시장 및 동양극장(1963), 남제주군청사(1964)가 그것들이다. 동문 시장 및 동양극장은 상업건축으로써 철골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RC구조와 다양한 기능을 다양한 입면형태로 표출시켜 제주시 의 근대적 도시경관의 형성에 선도적 역함을 한다. 또 남제주군 청사는 김한섭의 낭만주의적 성격을 제주의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근 대건축이 갖는 조소 적인 아름다움을 제 주인들에게 선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김한섭은 이후에 도 많은 작품을 남겨 제주근대건축의 초 창기에 커다란 영향 을 미쳐 그의 작품을 모방한 건축이 다수 지어진다. 이 이외에 도 근대건축의 이념 을 표현하고자 했던 작품으로 제주관광



오현고등학교(1949년경)



제주여자고통화교(1950년대초)



제주대 구본관(1963, 김중업)



KBS제주지국(1950)



강병대교회(1952, 공군공병대)



RC조의 상업건축(1963)

호텔(1963, 현 하니호텔), 제주여성회관(1969), 대한통운제주 지사(1960후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점은, 이 건축들 은 대부분 육자의 건축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이다. 이에 대하 여 제주의 건축가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당시는 10명 이내의 건축사가 건축하가면적 건당 약 150㎡로 총 75천㎡(1964년)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축주의 자본 능력까지를 감안한다면, 작품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이다. 이렇게 이전시기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 서 도시경관을 뒤바꾸는 계기가 된 것은 제주시 도시계획의 시 행에 의한 중앙로의 개설(1968년이후)과 기존도로의 확장이 다. 도로의 신설과 확장정비에 의하여 건축의 신축이 불가피하 게 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건축은 대부분 3층 전후의 RC 조상 업건축들이 들어서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제주시내의 가로 파사드는 일제시기부터 형성되었던 경관에서 비로소 탈피하게 되며, 도로체계 또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정부의 관광개발계획 에 의한 도시개발이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적 차원의 보 편성과 건축에서의 개별적 변방성을 동시에 보인다. 도시의 개 발과정에서 중앙의 자본가, 건축가 또는 계획가에 의한 보편적 인 도시계획과 근대건축들이 제주인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다. 또 이와 동시에 제주의 건축가나 건축세계가 갖 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역의 정서와 문화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건축이 이루어진다. 물론 부분적으로 제주인에 의 한 풍토성이 강한 작품들이 시도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이었으며, 대부분은 콘크리트의 상자를 만들고 그 속으로 인간을 집어넣고 만 것이다. 특히 신제주라는 신시가 지의 건설과정에서 보이는 양상은 앞의 두가지의 성격을 명확 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계속적인 변방성을 지향하며………

타율의 일제강점기는 가고 자주의 시대는 오지 만, 일제의 건축적 잔재는 그냥 존속되어 일제시기의 건축적 내 용은 계속된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변방성(邊方性)이라 정의

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싶다. 문화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 즉 변방에서는 자연환경에 의해 제한되는 부분(특히, 생활양식) 은 현지의 조건을 중시하며 계승되고, 재료, 구조, 형태 등 인위 적인 수용이 기능한 부분은 중앙의 문화를 수용해 간다는 것이 다. 변방의 풍토성은 그만큼 강한 성질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오히려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던 - 물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우 위이기도 하지만 - 일제의 건축까지도 제주의 자연조건에 순용 하여 제주건축의 전통적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구 조적인 내용만을 일본식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변방성은 이 렇게 고수된 내용이 자주의 시대에도 자연스럽게 이 지역사람 들에게 사용되도록 결정짓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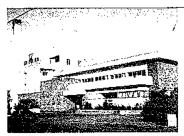
제주건축의 변방성은 이곳의 풍토에 의해 길들 여진 제주인의 정신에 의해 더욱 고착화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제주인의 의식 속에는 근면하고 절약하는 정신이 숨어 있다. 자 신이 몸담고 생활하는 집에 대한 대단한 사치는 하지 않았으라 라는 것이다. 머물러 잘 수 있는 방(구들)이 있고, 무엇이든 모 아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고팡)가 있으며, 먹을 것을 조리하는 부엌(정지)이 있고,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루 (상방)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했던 것이다. 더 이상의 공간이 필 요 없는 것이다. 또한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고, 간소한 사무공간이 마련된다면, 더 이상의 장식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 다. 이러한 생각이 제주인들이 건축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일 에 서두르지 않게 하지 않았을까.

따라서 앞으로는 제주의 정신을 외부의 건축수 법을 빌어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 어 우리가 근대를 극복하는 깊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 여 평가될 때 비로소 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절대적인 기 준을 얻기 위하여 외부와의 대응관계를 밝혀야 하며, 내부의 자 발적인 발전관계를 규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있고 난 후에야 절대적 기준을 얻게 될 것이다.





남제주군청(1964, 김한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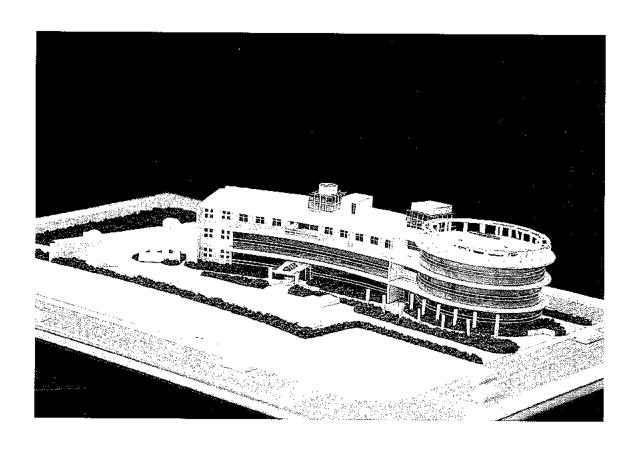


제주관광호텔(1963, 김태식)

밀양 보건소 · 노인복지 회관

Miryang City Health Center, Welfare Center

김성곤 / 성 ·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Sung-Gon



띁어가기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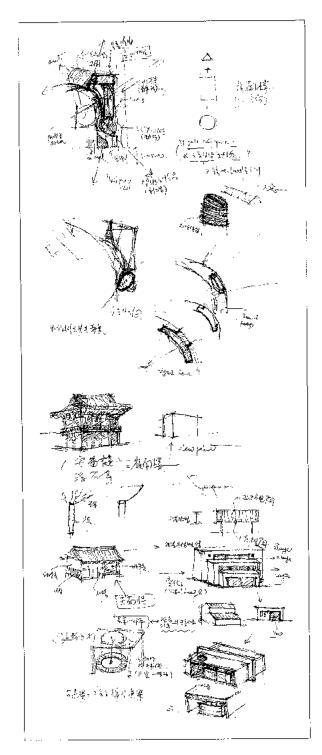
국내에서 치루어지는 현상설계 공모는 청 사진으로 된 간략한 도면 제출 정도로는 심시가 이루어 잘 수 없는 것인가?

선정된 심사위원들은 모두가 전문가일 것 이고, 오랜 세월 실무에서 계획을 해보고 연구를 하고있는 위원들이라면 요란한 겉치레보다는 개념설정이 충실한 도 면만 보면 창의적인 작품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을테이고, 무엇보다도 정작 작품을 구상하는데 소모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할텐데 그보다는 첨단 메카니즘 등을 이용한 기교스러운 패널제작과 다 읽어 보지도 못 할 각종 인쇄물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있으니 이 안타까움은 나 뿐만이 아닐 것이다.

작품제작 경비를 적게 들게하면 뒷잡음도 조금 줄어들 것이 아니겠는가?

건축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면 차후 당선작에 한해 최대한 멋을 부린 패널을 제출하라 고 한다면 당선된 사람이 누가 하지 않겠는가?

더 문제는 주로 국가 기관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을 P.Q라는 제도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은 시공 자 선정 수단이라면 몰라도 창의성이 필요한 건축설계에 바람직한 제도는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건설 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건축사를 여러 평가점수라는 잣대로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있으니 (대표자의 재산현황 상태가 건축 창작 활동에 왜 필요한지? 등) 건축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너 무 큰 것 같다.

건축설계란 결국 설계하는 건축가 개인을 넘 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말이다. 남녀노소 빈자든 부자 는 경험이 많은 적은 모든 실력있는 유능한 건축가들에게 참여 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하고, 그것 또한 작품으로 평가되 어야 건축은 발전할 것이다. 그동안 건축사지 등으로 뜻있는 회원들의 많은 개선내용들이 지적되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개선이 없는 것 같다.

세대는 따르지만, 화가 이중섭님은 부자이고 붓이 좋아서 혼을 빼어 넣은 작품을 남겼는가?

들어가면서

이 프로젝트는 현상설계에서 비록 좋은 결과 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건립예정지인 밀양은 내가 일하며 살고 있는 부산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자주 영남루를 찾아 보곤하여 애착이 가는 고장이다. 처음 현상설계 참여 여부를 놓고 스텝진과 의논한 결과, 중소도시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 한 심사의 투명성, 공정성, 지역연고성 등의 한계에 대한 염려 가 많았으나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그 뒤 자주 밀양을 찾아서 자료 수집도 하고 시간가는 줄 모르게 스케치하고, 작업에만 매달렸다.

현상설계의 결과는 자신을 여러 가지로 되돌 아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로 미흡한 글을 써 보 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처음 현장조사부터 개념설정, 계획과 형 태 등 스케치를 하나하나 직접 관여 하였기 때문에 자식과 같은 애착이 가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작업도 마찬가지지만) 문재 임의 능력과 평가는 그 뒤로 하고….

정(靜)과 동(動), 직선(直線)과 곡선(曲線)

밀양의 역사적 주요 건축물로는 우리나라 3대 누각중 하나인 영남루가 있고, 표충사가 있으며, 인물로는 사 명대사를 생각나게 하는 충효의 고장이며 문화예술 행사로는 밀양 아랑제와 백중놀이가 있다.

영남루에 올라가서 도시를 굽어보면 한눈에 밀양을 읽을 수 있다. 평활한 수평선으로 펼쳐진 시가지와 둘 판사이 옷자락을 끼고 잔잔하게 유유히 흐르는 남천강의 소리 없는 움직임.

곡선형의 남천강을 호수인양 껴안고 침묵하면 서도 당당하게 둘러쳐진 높고낮은 산들, 정말 밀양의 백미(百 媚)이다. 왜 영남루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황홀함이 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개념들을 정리하여 나갔다.

대지(垈地)읽기

건립예정 대지의 형상은 12m 전면 도로쪽으 로 짧게 접하고 깊이가 긴 직사각형 대지로서 다른 연결도로가 없으며 트인곳은 도로쪽 뿐이며, 3면은 인접지에 감싸안긴 막

한 공간이었고, 건물의 인지성과 상징성 등의 표현에 까다로운 대지조건이었다.

디자인 접근

평면과 공간 · 형태 계획의 접근은 정적인 개 념의 표현으로 보건소 통은 박스형으로, 동적인 개념으로 노인 복지 회관동은 타원형으로 설정하여 두동의 Mass를 나누고 연결시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이룹 수 있게끔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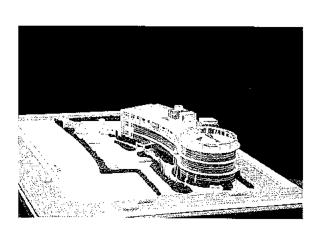
도시 읽기에서 처음부터 화두(話頭)였던 물결 의 흐름과 같은 자연스러움의 건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좁고 긴 대지의 여건상 일자형의 지루한 배치를 피하고 진입방 향으로 시각(斜角)을 이루게 함은 걷는 이의 시각에 건축이 입 체적 형태와 공간으로 변하며 다가오게 하기 위한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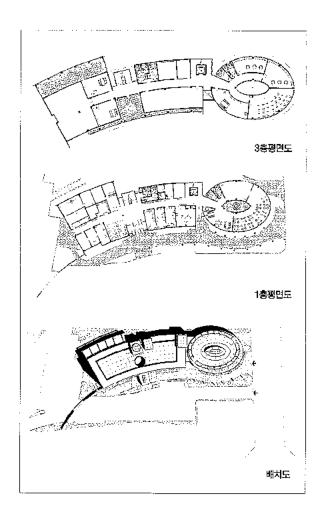
노인이 주로 기거하는 노인복지 회관도 타원 형 중앙에 중정을 두어 천창을 통하여 실내 구석구석으로 밝은 빛을 도입하고 보건소 동은 3층 천정을 열어 비와 바람을 유입 하게끔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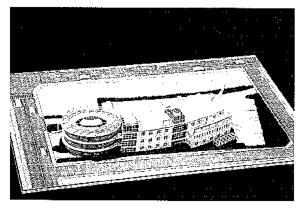
일상의 고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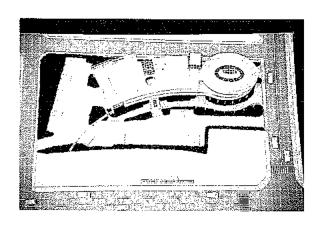
매번 주어진 프로젝트를 직접 계획하면서 느 끼는 것은 작업 후에는 항상 두려움으로 고민한다는 것이다.두 렵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고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헌상설계의 발주자나 심사위원이나 작품을 제 출한 건축사나 모두 두려운 마음으로 결정하고, 심의하고, 페 어플레이를 한다면 비록 당선여부와는 관계없이 그것은 종이 한장 차이로 돌리고, 열심히 일했던 시간만은 값진 값어치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깔끔한 풍토의 현상설계 경기가 되어서 우리 건축문화의 자랑스러운 한 장르로 자리매감 되었 으면 한다.









아차산휴게소 **Acha-san Rest House**

류춘수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Designed by Ryu Choon-Soo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산2-4 용마도

시자연공원 구의자구 내

주요용도 관광휴게시설

건축면적 116,00㎡(35.09평)

72.00㎡(21.78평) 연면적

건축규모 지상1층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구조

내부미감 비탁-천연슬레이트석,

벽-무늬코트, 천장-목재후로링

외부마감 바닥-판석, 벽-인조석

천장-목재후로링

설계담당 김형주, 이재혁, 고광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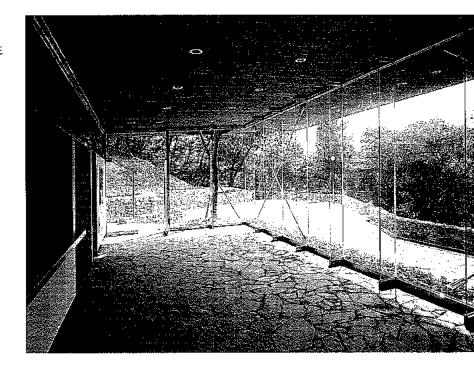
설계기간 1998, 6~8 공사기간 1999. 2~8

구조 나라구조

기계·전기 (주)액&엔지니어링

(주)현대건설 시공

건축주 광진구청



중학교시절인가, 교과서에 실린 어느 수필에 나오는 아치산 호젓한 숲길, 그곳에 작은 휴게소를 짓겠다고 광진구청에서 의뢰가 왔을 때 먼저 그 수필이 떠올랐다. 구민들이 종일 애용하는 그 숲길 등산로의 중턱에 기존의 허름한 가게를 헕고 이 집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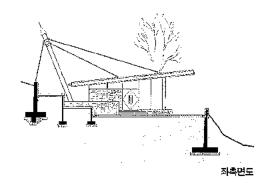
좁고 비탈진 땅에 스무 평 남짓한 휴게소를 어떻게 지을까? 먼저 유리로 에워싸서 풍경과 합일하며, '날이갈 듯한' 지붕 을 상상했다. 벽은 물론 작은 기둥조차 시아를 가리지 않도록 할 수 없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이 집을 만들었다. 뒤쪽 언덕에 고정시킨 케이블로 두 개의 비스듬한 마스트(mast)를 세워 지붕을 매어달고, 오히려 지붕을 받치는 대 신 날아가지 않도록 밑으로 당겨서 일상적이지 않는 구조물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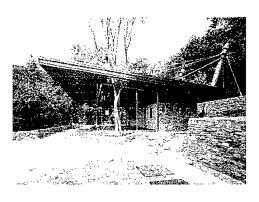
예산을 훨씬 초과했지만 이 설계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준 구청관계자와 시공회사에 정말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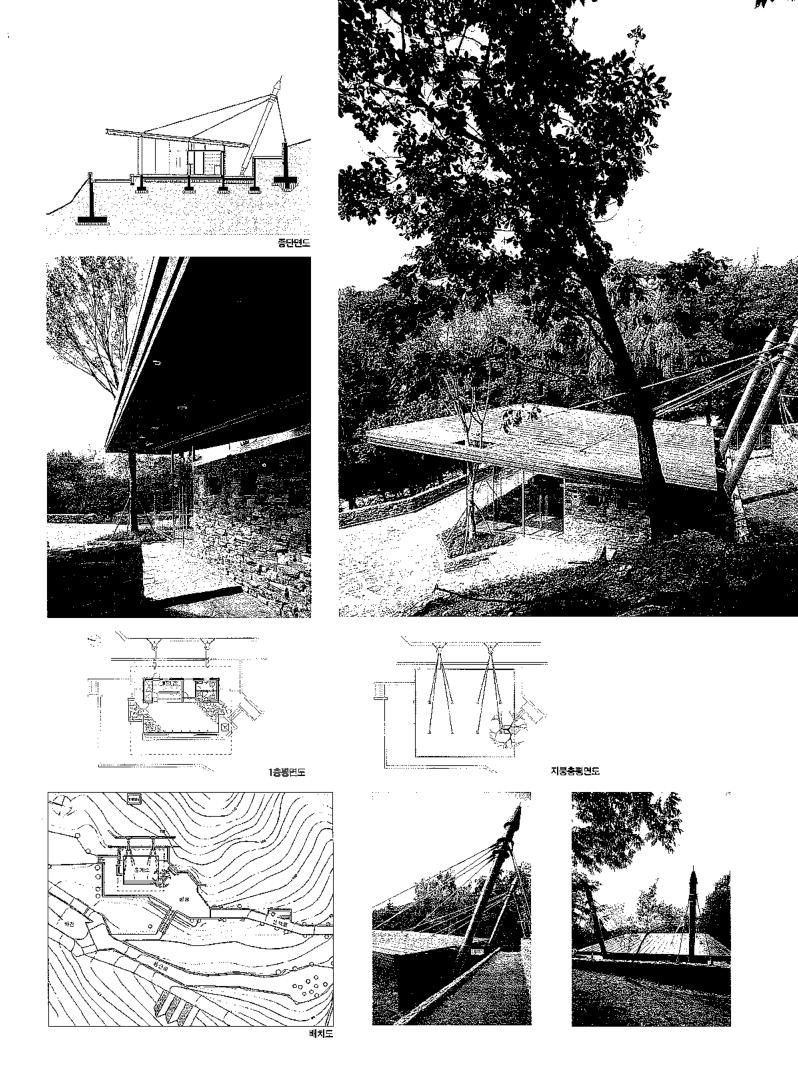
1994년, 정도600년 기념행사를 위해 시청 앞 굉장에 세웠 다가 성수대교 참사로 행사가 취소되어 지금은 용산 가족공원에 옮겨 놓은 (하늘무대)가 있다.

내부공간이 없이 하늘에 매달린 무대일 뿐이지만 처음 시도 되어 완공된 텐셜(tensile)건축이라 의미있는 구조물인데, 이렇게 (아차산휴 게소)에서 평소에 시도하던 텐셜건축을 완성하니 기쁘다.

(하늘무대)에선 투명한 유리바닥이 주제였다면, 이 휴게소 는 투명한 벽이 목표였다. 건축은 그 구조미나 조형이 목표가 아니며, 그 장 소와 쓰임을 위한 수단으로의 조형일 것이다.







대구은행연수원

Taegu Bank Trainning Institute

변 용ㆍ정현화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Designed by Byun Yong & Cheong Hyun-Hwa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산92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28.080 \, \mathrm{m}$

건축면적 3,679.77㎡

연면적 10,498.47ni

건폐율 13.1%

용적률 37.4%

뀨모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THK 18 컬러복충유리, THK 35

Sandstone, THK 2.0 알미늄판

설계담당 박종성, 임영수, 홍제정, 송제억,

김석원, 표상우

상주감리 임영수

전기설계 새한전기

기계설계 한일 M.E.C.

조경설계 DSK + 서인조경

구조설계 서울구조

시공 (주)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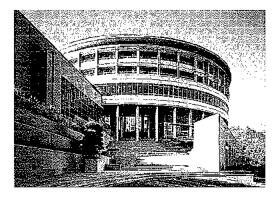
- 1. 주방
- 2, 전기실
- 기계실
- 4. 식당 5. 김당
- 6. 시무실
- 7. 강역**십 운**
- 8. 휴게실 9. 침설
- 10. 터라스

〈자연〉이란 떼제를 앞에 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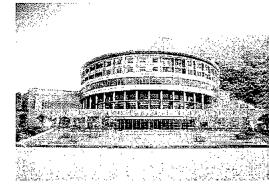
인간이 스스로 겸허하게 됨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앞에 두 고 우리는 건축을 통하여 어떻게 그 자연을 모두의 가슴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얼 마나 깊이 그 자연을 관조할 수 있게 하며 인간과 동화되게 하는 공간적 방법은 없을 까? 그리고 구상적인 자연을 추상적인 방법으로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런 의문과 관심속에서 이 프로젝트는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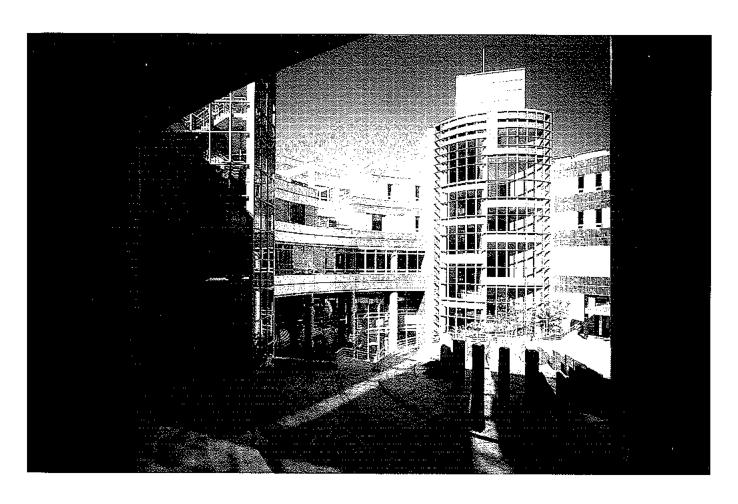
자연을 최대한도로 팽창시켜 우리의 동공을 통하여 가슴에 끌어들 이는 방법의 한가지로 눈의 시계를 국대화시키는 방법, 그것은 공간의 파노라마적인 연출이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것의 즉불적 완성을 위해서 원형이라는 기하학적인 매개체룔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코 원이라는 형태가 갖고있는 속성에 구속될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원형에 구속된다기보다는 자연으로에의 팽창을 이끌어내는 매개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자연이 원이라는 무한괘도의 매개체 에 접하게되고 인간을 그 원의 한가운데 서게 했을 때, 공간은 자연을 향하여 부풀림 올 갖게되고, 반대로 우리는 자연을 향해 겸허한 소점이 되어 인간의 내부로 향하는 응집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네의 전통건축 중에서 서원의 배치논리가 자연의 관조라는 자연을 향한 부풀림의 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해, 기람배치에서 사찰에 접근하는 시퀀스의 방법들은 구심력의 생성에 그 근거를 두고있다고 생각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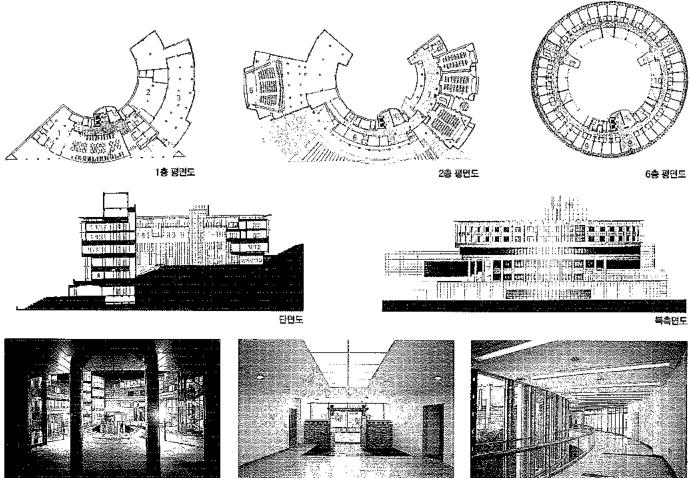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두개의 중첩된 원, 하나는 자연이라는 외부 로 전개된 볼록원과 또 하나는 중정을 둘러싸고 있는 인공적인 한정된 공간의 오목 원을 마련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자연의 대비를 설정하고 그 사이에 건축적 공간을 끼워 넣어 자연과의 통화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밖으로 열려진 자연과 의 접점을 한점 끌어들여 내부에 중정이라는 마당의 공간을 만들려한 발상이 프로젝 트를 진행하면서 두개의 자연사이의 틂 속에 건축적 공간이 비집고 들어서게 하고 싶었다. 생성된 건축적 공간에 밖으로 열린 몇 개의 피로티공간과 하늘로 향한 중정 의 천공을 두어서 두개의 자연을 서로 관입시키려 하였다. 이 중정은 외부의 구상적 자연의 전개에 대하여 자연을 추상화시키는 요소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우리는 그 러한 공간적인 긴장과 여유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정의 크기의 결정에 많은 노력 을 기울였다.











수가화랑

Suga Gallery

정종영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공간 Designed by Jeong Jong-Young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04-22,23

지역지구 일반주거지구 **대지면적 992.0**㎡ 건축면적 408.42m²

1,131.48m 연면적

총수 지하1층, 지상3층

41.17% 건폐율 용적률 87,17%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수가화랑이 위치한 부산의 온천동은 금강공원 을 배경으로 한 주거지역으로 풍부한 수림과 어우러져 전형적 인 풍경을 담고 있는 곳이다.

지역의 예술활동에 기여하게 되는 수가화랑을 기존주택과 정원이 있는 대지의 한쪽부분에 들어서게 된다. 상 설 혹은 기획전시, 카페테리아, 옥외전시 등을 포함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기존주택은 또다른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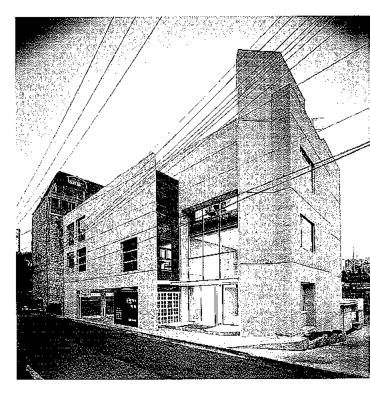
이 계획은 두가지 중요요소로 전개되는데 전시 작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공간의 인 식이 연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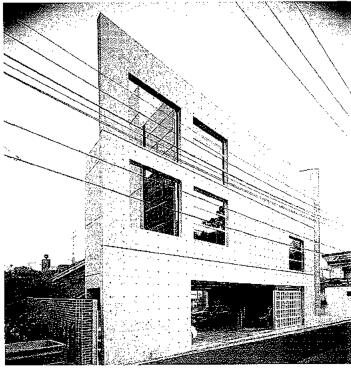
전자는 건물의 단순성으로 나타나며, 후자는 다른 요소의 이중적 결합에 의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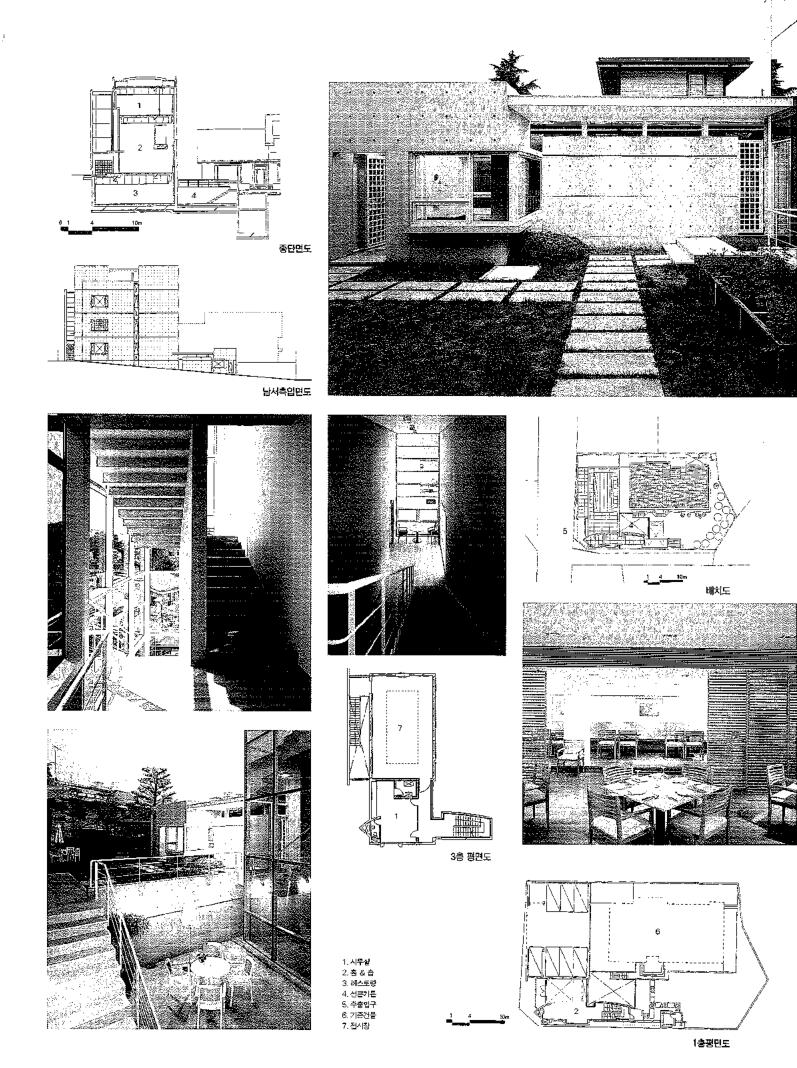
이러한 구성방식은 주어진 프로그램이나 대자 주변 콘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연관을 가진다.

수가화랑의 경우 표현이 절제된 단순한 형태로 서 주요 프로그램인 전시작품을 돋보이게 하고 기존의 잘 가꾸어. 진 정원과 주택 그리고 전면에 자리한 금강공원의 수림 등 일련 의 외부공간에 연계로서 관람객에게 열려있는 공간을 제공하도 록 되어 있다.

6m도로축에 형성되어 있는 코아 매스와 전면 홀의 구성이 이러한 시각적 연속성을 갖는 틀로 설정되었으며, 주변환경의 요소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 전시 내부공간 의 크기는 다양한 작품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 이며, 전시공간의 가변적 활용을 위해 별도의 내부공간을 두었 다. 전면의 가벽은 매스의 중첩과 공간 혹은 형태의 외부 인식 의 장치로서 유리로 계획되었으나, 여러가지 요인으로 달리 시 공되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일산 마두동 주택

Ilsan Madu-dong Residence

이동철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Designed by Lee Dong-Chil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965-1

지역자구 전용주거지역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237,40㎡(71,81평)

건축면적 118.65㎡(35.89평)

273.63㎡(82.77평) 연면적

49.98% 건폐율

용적쁄 9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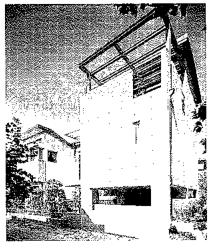
주차대수 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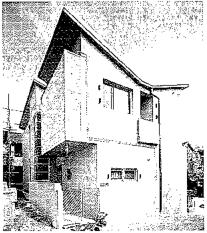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방식 | 철근콘크리트 라멘 및 벽식구조

최고높이 8,25m

외장재료 외벽단열 시스템







자리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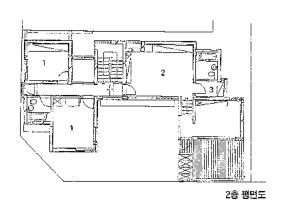
그곳은 너무나 평범하고, 보통의 장소로서 인식되었다. 두 변에 접 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지형이었고, 사방으로는 단독 주거군 만이 존재할 따름이었다. 일산의 신주거지는 도시설계 상으로는 개방성을 지 향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택들이 폐쇄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 도시주거에 있어 서의 폐쇄성에 대한 추구는 현 시대 도시주거의 일반적 경향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는 이곳에서 열려있는 건축으로 이 대지위를 자리매김 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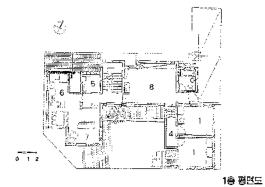
이중성을 나타내는 이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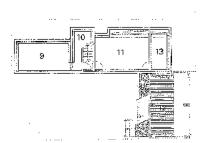
이 장소에서 이중성의 규범과 기준을 제시하여 새로운 조형을 탐구 하고자 하였는데 이중성 제기의 근본원인은 대립이라는 모티브에서 출발하여 그것 으로부터 탈피 또는 완화를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나의 독자적인 판단과 잣 대로서의 경험이다. 두개의 날개와 이중성을 지난 재료의 사용 및 단독주택에 있어 서의 개방과 폐쇄라는 이중성의 대립을 조화로 이끌기 위한 해결방안의 하나로써 목 재와 노출콘크리트, 정원의 나무 널과 피로티 하부의 모일 수 있는 장치 등이 시도되 었다. 처음 구상은 외벽은 간결함을, 지붕은 파격을 고려하였으나 무려움이 커서 지 금의 지붕형태로 디자인 되었다.

공간의 이중적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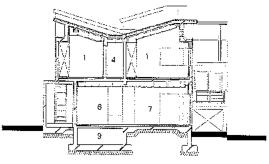
열려 있는 정원과 피로티 하부의 반개방적 공간, 거실을 개방케 하고 식당을 독립시키며 침실 등을 폐쇄적으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점서에 맞도록 구상하 였는 바, 이것은 이러한 이중적 정치들을 제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주거정서와 서구화 를 병치시킴으로써 대립성을 완화시키고 서로의 충돌을 완충시키려 한 시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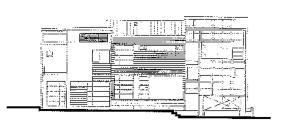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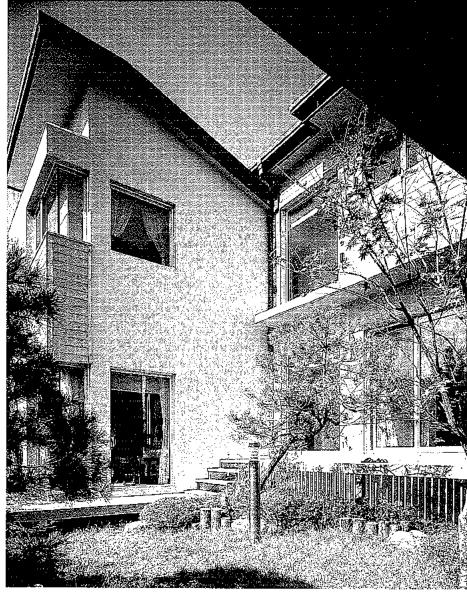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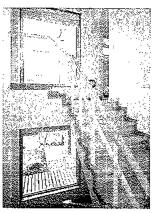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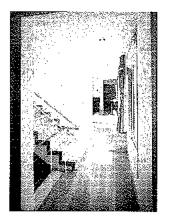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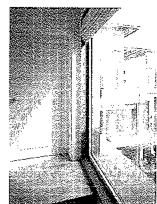


납촉임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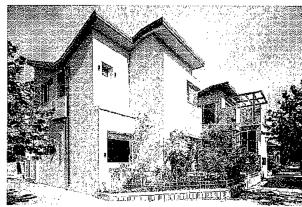












해관유치원

Haekwan Kindergarten

최승원 / 앙기주망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Seung-Won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45-3

대지면적 631.5m

건축면적 372.78㎡

865.06ni 연면적

59.03% 건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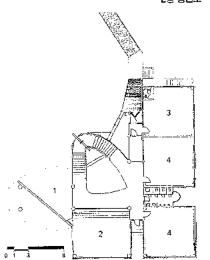
용적률 109.81%

지하1층, 지상2층 규모

철근콘크리트조 구조

설계담당 이현정

3 <u>जिल्ल</u> 4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해관유치원)은 어린이시설 설계 연작의 하나로 계획됐다.

대지 주변환경은 유치원 용도로 봐서 불리한 조건이 많았다. 우선 서측에는 골프연습장이 위치하고 있었고, 남측으로는 차량통행이 비교적 많은 도로 가 있어서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문제였다. 골프장으로부터 최대한 차단될 수 있도록 건물을 앉히고 출입구도 안전이 우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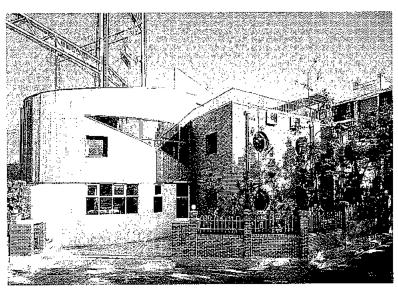
남쪽으로는 낮은 언덕에 바위와 몇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세 그루 의 나무는 놀이터로 옮기고 바위와 한 그루의 나무는 유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살 렸다. 그런 다음 인공 상록수 울타리를 만들어 서북풍을 막고 안온하게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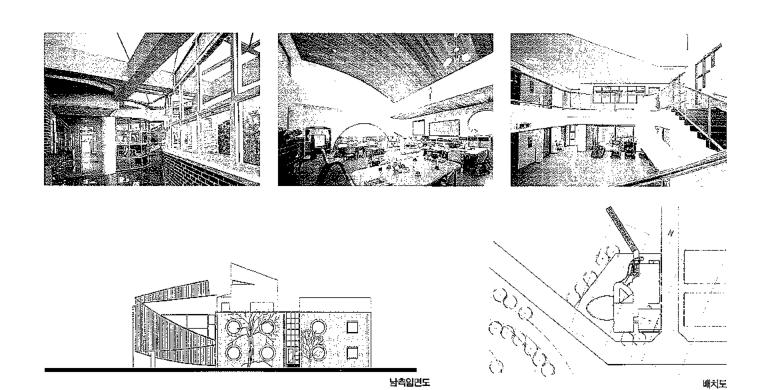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공간과 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해 어린이 놀 이개(우드 불록)를 사용해 평면과 입면 기본 스터디를 했다. 어린이들은 아직 모성 영향권내에 있고 따라서 모성적 공간이 필요하다. 평면은 직선과 곡선이 하모니를 이룬다. 직선은 은폐공간을 형성하고 곡선은 개방공간을 만든다. 직선과 곡선으로 역동적이면서도 정적인 공간이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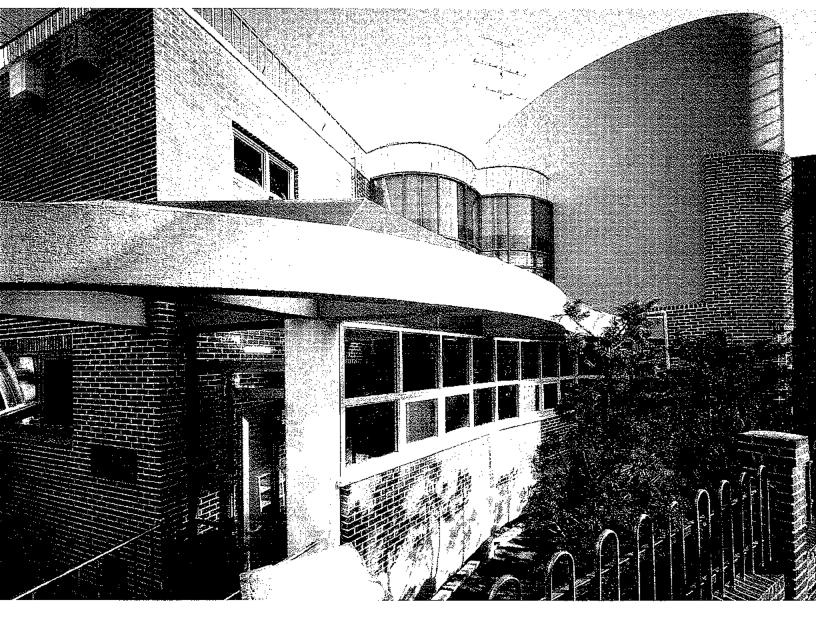
교실은 7×7.15m로 표준화시켰으며, 6개의 교실에 각각 20명씩, 총 1백20명의 원아를 설계기준으로 삼았다.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평면을 이상적 안으로 생각했으나, 건물 향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사각형태로 결정했다. 현관은 접 근성 측면에서는 동쪽이 유리하나 인근 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변 경됐다.

여유있는 대지에 건물이 앉혀졌더라면 어린이들도 지켜보는 이들에 게도 좀 더 시원스러움을 줄 수 있었으리라.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에 꼭맞는 유치원 이 되길 바란다.

- 1. 싶약유원장
- 2. 실내유원장
- 3. 교사설







신동아교회

Shin-dong-a Church

이용안 / 예ㆍ가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ng-An

건축개요

대지위치 - 제주도 제주시 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2832번지

지역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9,535.21 nf

건축면적 912.29㎡

1,193 60m² 연면적

건폐율 9.56%

12.51% 용적률

건물규모 본당지상 1층, 교육관지상 2층

최고높이 9.55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조경면적 3,999.98m²

주차대수 45대(법정 12대)

오수합병정화조(450인조) 정화조

부대시설 - 배구장, 농구장

<mark>구조설계</mark> 시 · 상 구조 연구소

주)미듬종합건설 시공

3. 포치

로비 나지화장성

6. 여자화상실

애배실

미목적실

10. 세미나실 11. 교육실

서울 사무실 생활을 정리하여 제주에서 독립 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강직해 보이는 한 목사님의 방문 을 통해, 그 당시 종교가 없던 필자에게 선뜻 설계를 의뢰하기 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설계자의 몫 으로 배려해 주는 프로젝트를 맡겨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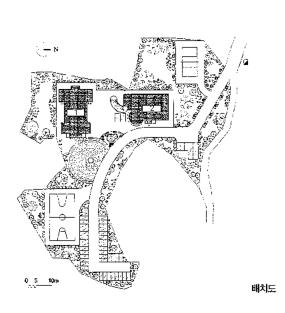
그리고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도 하자 없는 설계의 책임성도 함꼐 요구하였다. 그 책임성이 오히려 필자에게는 의욕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먼저 현장 답사를 통해 이 교회가 지향하는 탈 도시교회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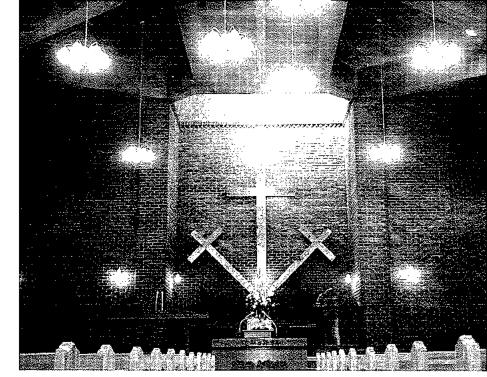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계획으로, 모든 선도들이 예배와 휴식을 함께 취할 수 있도록 주변녹지공간을 최대한 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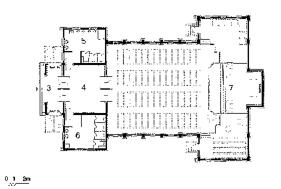
본당은 태초의 빛과 어둠을 표현하는 개념으 로 노출 콘크리트 천정과 성찬상위의 광정(光井)을 상징화하여 보았다.

외부는 그라높지 않은 붉은 벽돌의 친숙한 형 태로, 내부는 노출된 구조 천정을 통해 외부와는 달리 종교적 숙연함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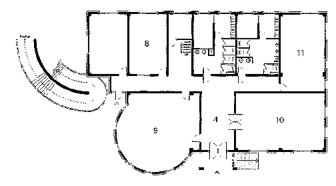
교육관은 본당과는 달리 고전적 정체성이 아 닌, 발전과 종교 생활의 연속된 개념으로 원형공간을 도입하였 다.특히 친근감있는 인간적 교회라는 명분에 따라 장애자 경사 로를 설치한 것이 작은 평등의식으로 표현된 인간 존중의 요소 로 남았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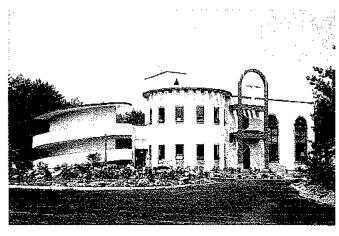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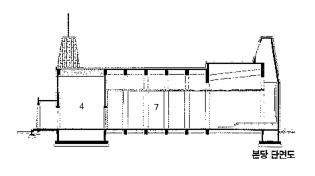
본당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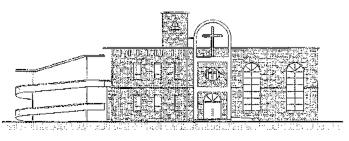












교육관 정면도

광릉 아테네 호텔

Kwangreung Athena Hotel

이종윤 / 신구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Chong-Yoon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장현리

4-4,5,6,9,11-2번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1,686.00m²

834,83m 건축면적

건폐율

50%

용적률 122.98%

연면적

 $2,487.81 \text{m}^2$

구조

철근 콘크리트

규호

지하 1층, 지상 4층

높이

14.4m

주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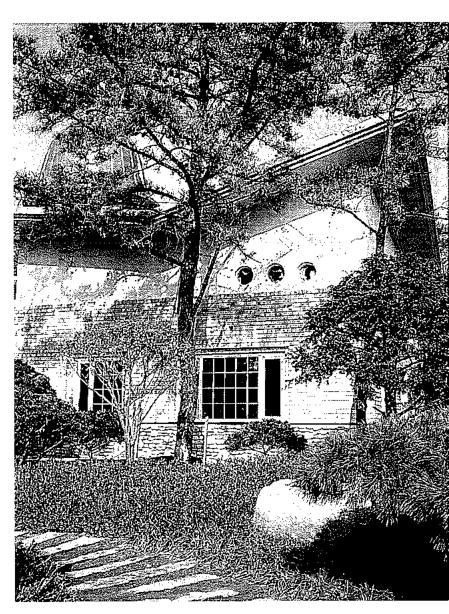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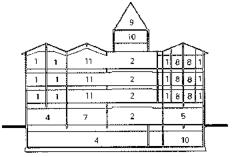
주요 외장재 토석벽돌 치장 쌓기, 강자갈, 회반죽

이 건물은 광룡 수목원 뒷구 릉을 배경으로 한 작은 호텔과 별관으로 무 엇보다 자연속에 어우러지려고 노력하였다. 배치계획에서부터 기존 소나무(약 50~300 년)등 수목 20그루 이상을 보존한 상태에서 계획되었으며, 본관과 별관의 분리된 평면계 획은 자연스럽게 나무에 의해 구부러져 진입 하도록 한 진입로와 함께 계획되었다. 본관 과 별관의 지붕형태도 주변 뒷산과 조화되도 록 계획하였으며, 외벽 또한 주변에서 구할 수 있었던 강돌과 벽돌, 회벽으로 마감함의 로서 천연적 소재의 친밀감과 함께 짜임새 있고 전체적으로 리듬감을 갖는 통일된 톤의 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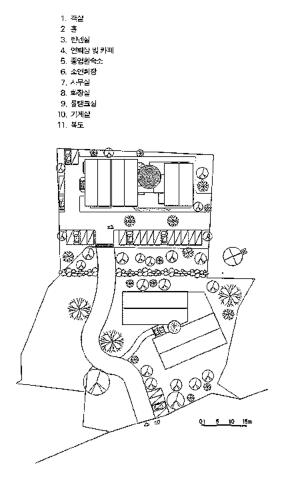
항상 숲속의 작은 궁전으로 이쁘게 유지되길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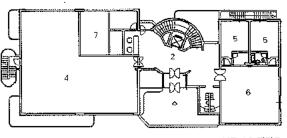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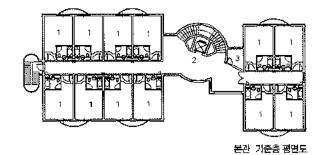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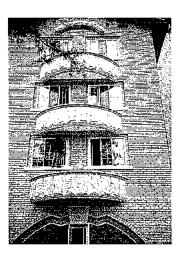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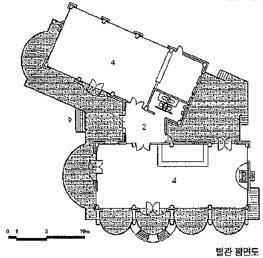


본관 1층 평면도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9)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지율적 건축(2): 바로크 건축과 자율적 건축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뽁 차

-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②
- 5. C-N Ledoux의 건축이론 ①
- 6. C-N Ledoux의 건축이론 ②
- 7. J-J Lequeu의 건축이론
- 8. 자율적 건축 ①
- 9. 자율적 건축 ②
- 10. Beaux Arts와 합리주의
-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Ledoux는 당시 세간에 유행하던 건축의 효 름에 익숙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시대 가 매우 중요한 때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고전건축으 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적인 건축을 Revival시킴에 있어서 필 수적이었던 형식적인 세부항목에 주목하지 않고 그것들이 미 치는 영향을 물리침으로써 건축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현하려 는 의지가 충만하였다. 따라서 Ledoux는 건축물에 관한 개 념 및 이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제시하는 물리적 현시체로 서의 건축물을 새로운 개념, 즉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써 정 리하고 추구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실현된 건축안 가운데 가장 늦은 것 중 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건축사적 관점에서 보아 중요한, 그리 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입시세 징수소 계획'에서는 고대의 모티브들을 직설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고 있 다. 이 계획안에서는 그가 이것들을 변형하여 새로운 요소로 제시하려는 정력적인 노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이 고대의 모티브들은 건물 내에 적당히 조합되어 제2의 요소. 즉 부차적인 요소로 남아 있을 뿐이다. 한가지 꼽을 수 있다면 그가 완전히 새로운 건축의 방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질 적으로 전통적 건축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 다는 점이다. 그의 작품들은 그가 연구하고 추적한 새로운 건 축으로의 경로들을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연대기적 분석의 관 점에서 본다면 그의 건축연어의 발전의 단계는 시간의 추이에

^{*} 본명 김원작

따라 체계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자주 그 전후가 뒤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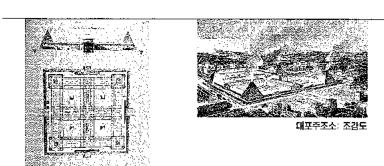
입시세 징수소는 낭만주의 건축에서 찾아보기 어렵던 거대주의적 경향, 단순한 형태의 건물의 외양 그리고 새 로운 건축의 개념 등 현대의 언어가 과거의 언어와 함께 섞여 있는데 Ledoux자신이 아직은 그의 고유한 건축언어를 개발하 지 못했기 때문인 듯 하다. 반면 프랑스 혁명 후 칩거하며 계획 한 비교적 대규모의 계획안 중 대포 주조소 계획안(大砲鑄造所 計劃案)은 이와는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주조소 계 확안은 정방형의 넓은 토대 위에 십자형의 건물 그리고 피라마 드형의 주조소 각 피라미드를 연결하는 부속 건물들을 수용하 고 있다. 토대의 네 모서리엔 피라미드가 배치되어 각기 90도 방향으로 배치된 2동(棟)의 긴 건물들로 연결되었으며 중앙의 매스는 십자가를 이루는 4개의 연결동에 이어져 있어서 일견 바로크적 고전주의의 시대에 볼 수 있는 사슬(enchâ inement)등으로써 모든 부분들이 긴밀히 연결되는 것을 연상 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크 공간의 특성이었던 건물의 중앙 부의 강조 및 단부의 정자(또는 부속동)가 배치되었으며 익부 는 이 정자들을 파사드의 중앙과 연결하고 있다. 전체 계획안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형틀로 찍어 놓은 듯한 성격을 지남으로 바 로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관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자세한 분석은 시슬로 이어진 바로크 시대의 고전주의의 공간 구성과는 전혀 다름을 알려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분 들이 상호 잘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객체로서의 부 분들은 고유하고 독립적인 생명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자율적인 건축의 개념으로써 각부분을 독립시키는 수법은 18 세기말에 일어났던, 건축을 일신하는 과정 중 하나로서 가장 중 요한 변천사항 기운데 하나이다.

자율의 법칙은 건축형태가 건축 이외의 것, 건 축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거주성이 건축의 표현성보다 우선하여 중요하게 여겨 진다. 이 시대엔 이런 사상은 자연을 모범으로 하였을 뿐만 아 니라 그 이론적, 사상적 근거를 자연에서 발견하게까지 되었다. Rousseau가 자연에서 사회의 체계에 관한 생각을 찾은 반면 Ledoux는 자연으로부터 건축 시스템의 법칙을 구한 것이 그 러한 예이다. Chaux의 소금도시를 위한 두 번째 계획안에서 Ledoux는 건축물들을 서로 격리시켜 분리하게 된 이유를 Rousseau풍의 주장으로써 그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Remontez au principe. Une vice accrédité produit tous les malheurs; consultez la nature; partout l'homme est isolé. (원칙으로 돌아가시오… 널리 유포된 한 개의 약은 모든 불행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자연에게 물어 보시오; 어디에서 든 인간은 유리되어 홀로이다')" 바로크 사슬로써 충분히 반영 되던 혁명 이전의 봉건사회 체계의 원칙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 음을 이 구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미술 또는 건 축에서의 형태가 사회의 구조 또는 국가의 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아 직설적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여러 건축 또는 미술에서 표현되는 형태를 만드는 원 칙은 사회에 존재하는 특정의 개념 또는 사유의 방향과 동일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 일어난 사회적 변형, 사상의 발전에 평행 하여 미술 또는 건축 등 시각 예술 분야에 있어서 미학적 규칙 들이 효력을 잃게 된 시실은 매우 주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다. 미술가 또는 고전주의 이론가들이 애지중지하였던 리돔, 각 부분간의 조화, 균형 등의 원칙은 바로크의 시술을 만드는데 있 어서 없어서는 안될 효율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이었지만 입시세 징수소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이 없어지고 이전의 건축에 비해 -그리고 대규모의 건축에서 발견되는 - 훨씬 자유로워진 파사드

¹⁾ Ledoux, C-N: Architecture considérée sous le rapport de f art, des moeurs et de la législation (예술, 관습 그리고 법체계의 관점에서 검토한 건축), Hermann, Editeur des sciences et des arts, Paris, 1997, p. 90.



대포주조소: 평면



엑스의 감옥(Prison d' Aix)

의 구성, 내부 배치의 자유성 등이 아주 쉽게 발견된다.

새로운 구성 방법은 각 부분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성을 손상치 않고 자유롭게 재결합하는 것인데 여기서 요 소들의 형태는 오로지 적합한 합목적성을 따를 뿐이다.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요소 내에 내재하는 고유한 법칙이다. 이러한 원 칙을 따르다 보니 당연히 바로크의 법칙에는 상반되는 새로운 형태의 계획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계획인은 부분들을 전 체적으로 새로이 해석하며 각 부분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부분 과 전체와의 관계를 논리적인 단계로 이해하고 연출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여기서 부분이란 존재치 않는다. 오로지 독립적인 단위들만이 있게 될 뿐이다. 이처럼 내부의 내적인 요인에 의하 여 결정되는 각 오브제의 형태는 조소적 효과의 추구를 의미 없 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매스의 리듬, 장식을 첨가함으로 아 름답게 꾸미는 것,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회화적 구성 (picturesque Composition)의 특징이었던 구성 방법들은 그 중요성을 상실하였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 의 도래와 병행하여 단번에 바로크의 투시도법적인 구성 및 시 각적 연출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 대신에 단리(單離), 즉 Barry(바리)의 저택에서 볼 수 있듯이 요소를 자존적인 구성을 통하여 분리하는 수법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더 이상 바로크적 고전주의의 건물에서 선호되던 선의 배합을 통하여 중앙의 건 물을 토대와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채용되지 않게 되었다.

르네상스 건축과 바로크 건축은 다른 예술 분 아와 연결하여 고대의 모델을 발전시킴으로 외재하는 법칙에 의존하여 대상 건축과는 전혀 무관한 형태를 창조하곤 하였는 데 Ledoux의 시대에는 건축물 또는 건축요소에 내재하는 법 칙을 따름으로 이러한 행위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병 행하여 일반적으로 비본원적인 요소인 장식은 점차로 사라지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모두 거부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Tout ce qui n'est pas indispensable fatigue les yeux, nuit à la pensée et n'ajoute rien à l'ensemble. (필요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눈을 피로하게 하고 사고(思考) 를 방해하며 전체에 아무 것도 보태 주지 못한다.)⁽²⁾

Ledoux의 이와 같은 주장은 ⁵---des surface s tranquille, peu d'accessoires (고요하고 평온하며 부속물 이 없는 외양) 3 즉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 매우 기능적이고 순 수한 형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Ledoux의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장식 이 전혀 없는 벽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농가(Ferme)건물, 또는 엑스의 교도소(Prison d'Aix 프리종 텍스)에서처럼 본원적으 로 장식을 추가할 필요가 거의 없는 건물들뿐만 아니라 주범 (柱範)을 채택해야만 하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장식적인 요소 들을 배제시키지 않은 건물들도 또한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런 예의 하나로 알윌 대저택(Hôtel de Hallwyl 오뗄 드 알윌)율 들 수 있는데 원주와 조각물이 아직도 건물에 남아 있다. 그러 나 원주와 조각물은 이전의 건물에 비하여 아주 한정된 역할만 을 부담하고 있다.

구축적(Tectonic)인 것에 대한 새롭고 정열적 인 관심은 기본 기하학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배제하고 거부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예전의 Palladio 및 그런 유형의 건 축에 있어서 기본적 요소였던 Cornice, 벽기둥(Pilaster) 또는 거 대기둥(Colossal Column) 등의 채용은 더 이상 미학적으로 논 리적인 적법성을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즉 Palladio의 건축은 석재가 지난 본원적인 재료의 성격을 확인. 인정하고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적인 구조 요소들 Comice, 벽기둥, 거대 기둥-을 매개로 하여 전체를 소위 융합하는 방식이었으므로 논리에 어 긋나는 구축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명난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 후 석재는 다시금 석재로서의 특성을 재확인 받고 생명력을 지나 게 되었다. 각 재료는 각기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법칙을 인정한 순간부터 유기적 형태에서 나타나는 생기 없는 물질이 더 이상 아닌 것이 되어 바로크식 물활론적 우주론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 전의 시대에는 남상주(男像柱 Atlas, Atlantes 또는 Telamon), 여상주(女像柱 Caryatid) 또는 헤르 메스(Hermes)신의 형상을 한 지지체, 동물의 발 또는 굽 모양의 테이블 지주, 생선의 아기리 모양을 한 급수전(給水栓) 등이 사 용되었지만 계몽주의의 시대에는 아주 원천적일 뿐만 아니라 좀 더 직설적이며 솔직하고 양식 있는 방식, 즉 원주는 단순히 원주 로서 표현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징하는 형태, 추상적 개념을 의 인화하는 모든 방식을 거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의 신체를 상징적 형상으로 구현하고 표현하는 신인동형론적 (Anthropomorphic) 방법 또는 의인화(Personification)는 그 이후에도 계속 잔존하여 타율적 시대의 잔존물들의 영향이 있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미 본궤도에 진입한 새로운 사고 방식은 형태의 자율성, 자율적인 형태의 개념을 적극 존중하고 채용함으로 정당한 재료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Ledoux는 아직도 국가 전체에 그리고 미술계에 있어서 바로크 식 조합, 바로크식 사슬의 채용이 맹위를 떨치던 때에 이러한 잊 혀졌던 근본적인 법칙을 재발견하였다. 이제는 브루넬레스카

²⁾ op. cit. p. 169.

³⁾ op. cit. p. 108.

(Bruneeleschi), 미켈란젤로(Michelangelo), 베르니니 (Bemini) 등의 미학우선주의의 인물들로 대표되던 건축가-조각 가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이 되었다.

언급한 '형태의 자율성', '자율적 형태'는 Ledoux의 건축에서 발견되고 있다. 4개의 망루가 있는 주택, Terrace 지붕이 있는 주택, 보장송(Besancon)의 상인의 주 택, Chaux의 고용인 주택 등은 이러한 개념을 잘 설명해 줄뿐 만 아니라 구현하고 있는 건물들이다. 4개의 건물은 모두 다 단 순한 사각기둥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전의 건축에서는 오로 지 지지체예만 채용되던 형태이다. 4개의 건물에서 공히 사각 기둥은 단순 구조체가 아닌 적극적인 매스 즉 건물의 중요한 부 분이 되고 있으며 과거의 건축에서처럼 요소나 형태에 따라 분 리, 구분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과 일체가 되어 전체가 하나로 인식되도록 하는 건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더 이상 건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재료가 아니라 자율적 감 수성, 즉 오늘날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볼 수 있듯이 오브 제 자체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려 하고 건축의 형태는 외부의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며 오브제 자체의 형태에 의하여 즉 자율적 개념에 의하여 결정되는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 원주를 발, 배, 머리 등으로 상징하던 이전의 개념은 더 여 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 건물들에 있어서 외벽은 이전의 바로크 건 물에서 그랬듯이 더 이상 커다란 개구부들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은 뿐만 아니라 그 표면에 부조를 담고 있었던 단순 한 캔버스적인 역할로부터 해방되었다. 내부의 벽은 공간을 한 정하고 닫는 고유의 목적을 구체화함으로 더욱 더 강력한 생명 력을 부여받게 되었다. 새로운 모양과 형식으로 나타나는 평지 붕은 과거의 건물처럼 꼭대기를 왕관(Couronnement)처럼 장식하거나 당시의 초월적 미학개념 및 사고에서 말하는 하부 로부터 상부 그리고 그 위의 또 다른 형이상학적 세계로 이행하 기 위하여 배치한 전이요소(轉移要素)가 아닌, 단순히 공간을 마감하는 덮개에 불과하다. 전반적인 변화를 간단히 요약하면 과거의 다양한 건축의 요소를 뒤범벅하여 배치하는 수법으로부 터 요소를 단순화하고 그 요소는 공간을 한정하는 성격을 강하 게 지니게 된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당시의 회화 및 조형예술에 나 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보자, 새로이 등장한 고전 주의적 회화의 특징 중 순수형태 및 선명하게 구분되는 윤곽의 추구, 일체의 공상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 등은 부분들을 분리하 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적 건축의 요구들과 비교 할 수 있다. 또한 회화에 있어 Picturesque적 기법의 약화와 포기는 건축에 있어서 투시도적 기법의 포기에 해당한다. 이러 한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18세기말에 있어서 병리적 현상 가 운데 하나로 급격히 번진 실루엣 초상화의 보급을 들 수 있다. 투영된 모델의 그림자를 따라 만들어진 실루엣은 오브제를 그 주변으로부터 명확하게 분리시킴으로 모든 부차적인 것으로부 터 분리하여 본질적인 것만을 엄격히 한정하는 원칙을 구현하 고 있다. 마치 건축이 기본 기하학에 속하는 원초적 형태로 회 귀하고 있듯이 회화예술은 선을 단순화하는 정묘한 방법으로 회귀한다. 판화에 있어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뷔렝 (Burin)판화 및 석판화는 바로크의 메쪼-띤또(Mezzo-Tinto) 수법을 몰아내었다. 4 이것은 어슴푸레하게 윤곽을 처리하여 주 변으로 전이시키는 것, 그리고 오브제를 명확히 강조하지 않고 주변의 사물들에 용해되는 듯이 처리하거나 눈속임(Trompel'oeil)등의 수법을 채용하여 재료를 흉내내어 기만하는 것 등 을 포기하고 각 오브제를 명확히 부각시키며 순수하게 오브제 또는 재료의 원초적 성격을 외부로 표현하여 강조하는 경향의 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면의 관점에서도 자율적인 건축의 등장을 조명하기 위하여 Ledoux의 건물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이 발견된다. Eaubonne(오본느)소재 Maison de







M. de Mézières(메종 드 무슈 드 메지에르: 드 메지에르씨의 주택)은 현관으로부터 이어지는 시선을 조정하기 위하여 식당 의 배치가 축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Maison de Mademoiselle de Saint-Germain(메종 드 마드모아젤 드 생-제르멩: 드 생제르멩양의 주택 1772)과 Ledoux 자신의 저택(1780)에서는 계단실을 중앙에 둠으로 건물의 주축을 차 단하고 있다. 이러한 동선의 파괴는 바로크식 건물에서 발견되 는 유기성의 종말을 의미한다. 내부에 있어서 애용되던 대칭의 원칙, 균제, 비례의 법칙 등은 기능적 배치원칙에 의하여 교체 되었다.

Chaux의 문인의 저택(Maidson pour un homme de lettres)과 4가정을 위한 주택(Maison pour quatre familles) 계획안은 새로운 사상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두 경우 모두 층의 위계 그리고 요소들 을 수평 및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을뿐더러 어 떠한 요소의 분절화 및 점강법도 사용되지 않았다. 일체의 창문 들은 틀이 제거되었으며 장식이 전혀 없이 매끄러운 벽체로부 터 완전히 유리되었고 상부의 덮개 요소는 자율적인 평지붕의 로 구성되었다. 장식을 사용하던 바로크의 구성은 엄격히 건축 술적인 배치로 대치됨으로 인해 매스의 연출이 주된 예술적 기 법이 되었다.

Ledoux의 작품은 바로크적 고전주의의 전통 에 대항하고 있는데 당시의 신고전주의적 경향과 아무런 공통점 이 없다. 놀랍게도 그의 건축은 오히려 20세기의 모더니즘과 깊 은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단순히 피상적인 것인지 또 는 우연한 상황으로부터 비롯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 또는 그의 건축은 건축사에 있어서 면면히 흐르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시 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 할 수 있다. 19세기는 과 연 비생산적인 모방의 세기였는지, 또는 19세기에 나타나는, 연 속적인 흐름이 중간에 끊기어 생긴 단전현상에도 불구하고 후에 불가항력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자율적 건축을 받아들였어. 이만 하는 절대적 필요성의 건축적 요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완곡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세부 항목들은 유행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타율적 원칙으로 부터 자율적 원칙으로의 충격적인 이행은 단순히 어떤 순간의 변덕스런 변화로부터 태어난 결과로서 인정될 수는 없다.

Ledoux의 자율적 건축사상은 Paris주재 외 국인 건축가들 그리고 사상적으로 그와 동참하고 있는 외국의 건축가들에 의하여 소개되고 수입되어 유럽 전체로 널리 영향 을 미쳐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새로이 소개된 자율성 의 건축은 Ledoux의 건축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바로 후대의 건축가들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들은 훨씬 더 명확한 개념을 도 입하고 공식화하였으며 Ledoux에 대한 그들의 의견과 시각을 분명히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작품을 분석함으로 우리 는 Ledoux의 자율적 건축에 대한 사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 고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

Ledoux의 신이론을 대중화한 사람은 Boullée 의 제자인 Jean-Nicolas-Louis Durand(쟝-니꼴라-루이 뒤 랑)이다. 그의 저술들은 이탤리어와 독일어로 번역되어 유럽에 소개되었고 1800년 직후부터는 Ledoux와 Boullée의 사상과 동일한 관점의 이론들이 각처에서 공식적으로 교습되었다. 서 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혁명을 전후로 하여 건축의 개념에 있어. 대단히 놀라운 변혁이 있었다. 전기는 전통으로 가득 차 있었으 나 후기는 새로운 사상의 창조정신으로 충만하였다. 프랑스 고 전주의의 교훈을 충실하고 완전하게 구체화한 Biondel의 저작 은 불과 30년 후 Ledoux의 저작으로 연결되며, 이것은 제1제 정시대 및 그 후속기간 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Durand의 Precisides legon d'architecture(프레시 데 르송 다쉬떽뛰 르: 건축강의개요)로 이어지는데 역시 불과 30년이 필요하였 다. Durand은 혁명 후기의 대표작 인물 가운데 한사람으로 모 든 점에서 Blondel과는 상이하다. 그는 Paris의 왕립 기술학교 (l' Ecole royale polytechnique de Paris) 시절부터 새로운 이론을 보급시켰다. 그의 저서 Traite(트레테: 건축개론)는 바 로크적 고전주의를 공격함으로 시작된다. 즉 로마의 성베드로 사원, 앙리 라브루스트(Henri Labrouste)가 설계한 빠리의 빵 떼용(Pantheon)은 지어지지 말았어야 할 본보기임을 학생들 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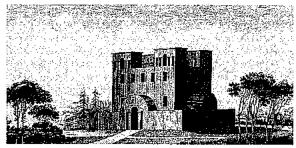
타율적 건축을 하고 그에 몰두하는 건축가들 에게 한없는 공부의 대상이 되었던 주범의 형식은 Durand에 게 있어 더 이상 관심을 쏟을 가치가 있는 본질적인 항목이 아 니었다. Durand에게는 장식(Ornament)적 요소를 건축물에 첨가한다는 것이 매우 우습고 비논리적인 것이었다. 그에게 건 축은 그 자체로서 아름다울 뿐이며 그의 목표는 오로자 건축의 유용성(Utility)이지 감각적인 즐거움(Agrément)이 아니다. 또한 새로움이란 기능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무엇을 첨가함으로 개량하는 것은 더욱이 아 니다. 그는, 건축은 그 자체로서 전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Blondel은 단조로운 평면측량(Planimetry)에

⁴⁾ Burin(뷔렝)은 통판화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강철의 펜이다. Mezzo-Tinto(메쪼-띤또)는 명 암에 의한 통판화 기발이다.

대해 조심하고 시각적 효과를 잊어서는 안됨을 주장한 반면 Durand은 오로지 단순한 평면에서 해법을 찾을 뿐이다. 그는 파사드로부터 건축을 시작하는 사람을 조롱하였다. 이는 ~ Blondel의 생각과 많은 유사점에 못지 않게 차이점 또한 많은 - Le Corbusier의 '평면은 발생기이다 (Le plan est le genrateur) 라는 캐취프레이즈에 비교하여 고찰할만한 사항 이다. Le Corbusier의 격언적 공리에 비견될만한 원칙을 Durand은 다음과 같이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였다: '건축가가 담당해야 할 것은 오로지 배치이다 (C'est de la disposition seule que doit s' occuper un architec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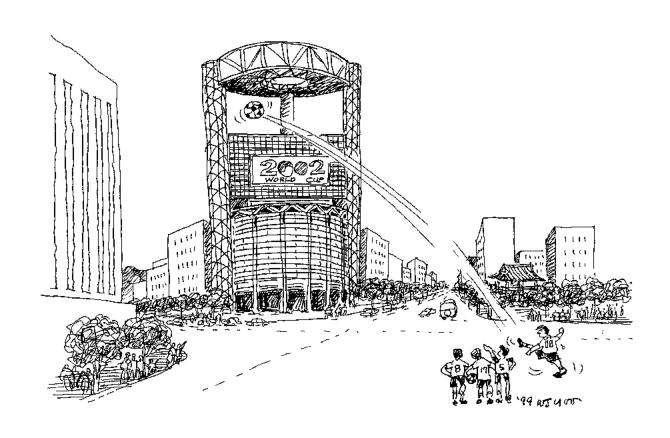
Durand에게 있어서 비트루비우스 이후 끊임 없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수많은 저서의 원인이 된 인간의 신 체로부터 유추하는 비례체계는 주범의 모델로 사용되지도 않았 고 되어질 리가 없었다. Durand이 제시하는 평면들은 거의 다 사각형을 규칙적으로 잘게 분리하고 시각형의 연계시스템을 사 용하여 조합함으로 발생되는 것들이다. 이것은 일건 빈곤하고 너무나 단순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800년의 이 론을 오늘날의 시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오로지 바로크의 고전주의의 개념에 대립하는 항목으로 볼 때 그 심오 한 뜻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Durand의 이론은 새로운 건 축의 도그마,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는 정도까지 중고화된 건축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건축물 들은 동일한 원칙을 따라서 다루어져야 하며 그 구성의 메카니 즘은 별개의 것. 상이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Durand의 스 킴은 모든 과거와의 연결성 그리고 미에 관한 이전의 모든 편견 으로부터 해방된 새롭고 자율적인 해결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 다. 그의 시스템은 확실한 논리성을 보여 주는데 이제부터는 모 든 계획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기하학을 사용하여 명확 하게 표현하며 부분들의 완전한 동등성과 전체의 균형을 보장 하고 있다. Durand은 Ledoux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축의 규범율 제외하였는데 이에 의한 내부배치는 한편 어느 정도 바 로크의 것에 가까운 내부배치, 또 다른 한편으론 자유로우며 (plan libre: free plan) 그로부터 유추되는 단순한 내부를 제 시하고 있다.

대저택, 공원 등 대규모 바로크의 평면은 그 축, enfilade(엉필라드), 산책로 등을 사용하여 예정된 지점으 로 인도하며 지정된 경로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동선의 흐름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공원에서는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부차적 인 통로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Durand 등의 자율적 건축 개념의 건축가들이 제시하는 자유칸막이를 사용하는 공간에 있 어서는 모든 것이 이와 달라진다. 여기서는 '엉필라드'를 따를



필요가 없어진다. 어디서건 기능적이고 짧은 연결만이 있을 뿐 이다. 당시 이러한 증후로서 바로크 공원을 멀리하고 영국식 정 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일어났었음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영국 식 정원은 주산책로 및 부산책로가 설치되는데 그 차이를 가까 스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두 가지 산책로의 식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공원의 산책인은 항상 눈앞에서 제기되는 선 택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그는 산책로를 거닐며 매순간 자 기의 자율적 판단, 자주적 행위를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공원을 창조하는 건축가, 디자이너들 역시 계획안을 만들 때 주어진 규칙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영감을 좇음으로써 사유와 결정(決定)의 자유를 되찾게 되었다. 바로크의 인간은 복종을 선호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크의 계획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계획안을 작성한 사상, 그리고 실현된 건축 및 공원 등의 오브제에 흡수되어 복종하도록 하기 때문에 모든 의지를 상실하게 한다. 반면 바로크 이후의 인간은 이처럼 오브 제의 영역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는다. 거구의 변화에 있어서도 유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1800년 이후의 가구들은 실내 의 공간에서 독립적인 성격을 띤다. 이전까지는 기구의 위치가 이미 정해져 결정적인 성격을 지녔던 반면 1800년 이후로는 가구에 이동성(mobility)이 부여되어 전체의 분위기를 해침이 없이 어느 곳에든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월드 컵 축구대회 활용 건물로 제계이구만 / - 축구 열성 팬

유원재(다건축)

협회소식 / 103

건축계소식 / 108

해외잡지동향 / 113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18

회원현황 / 134

99건축시자격시험 합격자명단 / 122

협회소식 KIRA news

제10차 아카시아 포럼 (ARCASIA Forum 10). 성료

아시아 각국 건축사 참가. 자격상호인정 등 공동심사 논의

우리 협회(회장 이외구)는 지난 9월 13 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통 COEX에 서 아시아건축사협의회 (ARCASIA :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소속 16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제 10차 아카시아 포럼(ARCASIA Forum 10)」을 개최했다.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Technology and Tradition in Architecture) 을 주 제로 열린 이번 국제포럼에는 약 1천여 명의 각국 건축사와 협회관계자, 일반참 가자 등이 참가해 최근 국제 현안으로 떠 오른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 문제 등 공 동관심사에 관한 깊이있는 논의와 함께 건축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를 가졌다.

14일에 있은 개회식에서는 이약구회장 의 개회사에 이어 김종필국무총리와 피 카시 아카시아회장 그리고 스쿠타스 UIA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제4회 아카 시아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MIT공대 의 스탠포드 앤더슨 교수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이의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아카시아 포럼은 아시아 각 회원국 건축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시아건축의 공통과제와 현안에 대하여 깊이있게 논의하고, 미래 의 비전을 조망하는 권위있는 국제학술 행사로써 어떤 가식적 성과나 결혼 도출 도 중요하겠지만, 아시아 건축사들간 공 동인식과 연대강화에 보다 큰 의의가 있 다」고 말했다.

김종필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고 21세 기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이 시 점에서 건축분야에서 아시아의 비전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하고, 「이번 행사가 미래의 아시아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하고 각국의 건축문화를 더욱 발전시키 는 알찬 소득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스탠포드 앤더슨 교수는 기조연설 에서 헤르족(Herzog)이나 켄 양(Ken Yeang) 등 기술과 전통의 문제를 진지 하게 고민하는 지역건축가들에게 주목하 면서 환경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 면서 과거에 사용했던 토착적 재료들을 새로운 기술을 통해 그 사용법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프랭크게리의 건축에 대해 「최신의 컴퓨터 도면 작성기」 법과 시공기술에 의해 지어지고 대중들 에 의해 이 시대 최고의 거장으로 찬사밭 고 있지만, 과거에 못하던 방법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건축해야 한다는 말로 치환해야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포럼기간중에 WTO에 의한 국제시장 개방에 따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 축사자격의 국가간상호인정문제에 대해 스쿠타스 UIA회장 등 국제유력인사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아카시아 이사회(ARCASIA Council Meet-ing) 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의 UIA가입 신청 지원을 위한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고, 아 카시아 교육위원회(ACAE Meet-ing) 워크숍을 통해서는 각국의 교육실정과 인증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이라는 이번 포럼의 주제에 대해서는 기술시대에 전 통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와 건축 기술이 전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 엇인가 등의 두갈래로 나누어 논의를 펼 쳤다. 주제발표자로는 Nela De Zoysa(스리랑카), Michael McNamara(영국), 김석철(아키반), Jean François Blassel(프랑스), Hiroshi Naito(일본), Kenneth Yeang(말레이 지아)이 참여했다.

제5회 아카시아건축상수상작으로는 단

독주택부문에 Seiichi Kubo(일본)의 The House with Orange Flowers,. 다가구주택부문에 Anthony H H Ng(홍콩)의 「Verbena Heights」, 상업 용건축물부문에 Bing Kwan(홍콩)의 「City Tower」, 연구소/사회시설부문에 김석철의「제주영화박물관」, 산업용건축 물부문에 Nela de Zoysa(스리랑카)의 「BMW complex」, 보존시설부문에 Richard K F Ho(싱가포르)의 「12 Koon Seng Road」가 각 부문별 선정 됐고, 휴양지/레저/호텔부문과 특수건축 물부문에는 해당작이 없었다. 시상식은 2000년 말레이지아 쿠알라뭄푸르에서 열리는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때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기간중에는는 제5회 아카 시아건축상 수상작전시와 자재전시회, 친선의 밤, 건축시찰 등 다채로운 부대행 사가 함께 펼쳐졌다.

제11차 아카시아포럼은 2001년 9월경 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카시아포럼 시도지원금 입금현황

1999, 9,11일 현재

건축사회	일금액	입금있자	비고
서 욾	5,000,000	99. 7.10	
부 산	5,000,000	99, 9, 3	-
대 구	5,000,000	99. 8.24	
인 천	3,000,000	99. 7, 7	
굉 주	3,000,000	99. 8.20	
대 전	3,000,000	99. 7.14	
뿔 산	3,000,000	99. 8.14	
경기	5,000,000	99, 8.14	
강 원	3,000,000	99, 6.30	
충 북	3,000,000	99. 6.28	
충 남	3,000,000	99. 7.23	<u>[</u>]
전 북	3,000,000	99, 8, 6	ĺ
전 남	3,000,000	99, 8. 2	
경 복	3,000,000	99, 8,12	
경 날	3,000,000	99. 8.18	
제 주	3,000,000	99, 8,12	
합 계	56,000,000		

바실리 스쿠타스 UIA회장. 우리협회 방문

국내외 상호관심사 논의



바실리 스쿠타스 UIA회장이 지난 9월 13일 우리협회를 방문했다. 올 해 아카 시아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 한 스쿠

타스회장은 우리협회를 방문하고 이의구 회장과 건축사자격상호인정문제와 국내 외 건축계 주요 천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UIA회장의 한국 방문은 우리 건축계가 직면하고 있 는 건축적 상황을 폭 넓게 이해하는 계기 가 되어 앞으로 한국건축의 활로모색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아카시아포럼 협찬금 입금현황

1999.10.13일 현재

입금자	입금액	일금일자	비고
서한건축	2,000,000	99. 7.24	오임석회원
무영건숙	5,000,000	99. 7.27	안길원회원
동일건축	5,000,000	99. 7.28	오봉석회원
신원기계공업(주)	3,000,000	99. 7.28	김태호사장
성일건축	1,000,000	99. 8. 3	김영곤회원
기량산업(주)	2,000,000	99. 8. 3	김서문 사장
간삼건축	2,000,000	99, 8, 5	지 순회원
신화건축(대전)	10,000,000	99. 8. 9	김인수회원
일산설계건축(부산)	3,000,000	99. 8. 9	이용훎회원
강남건축	2,000,000	99. 8.10	최병찬회원
반도건축	1,000,000	99. 8.10	우양근회원
선진엔지니어링	3,000,000	99. 8.12	김병년회원
무정포스퉥건축	1,000,000	99. 8.12	이창섭희원
<u></u> 도시건축	2,000,000	99, 8,17	이기범회원
목성건축(대전)	2,000,000	99. 8.18	이택준회원
정원건축(대전)	2,000,000	99. 8.18	박윤융희원
청전건축(대전)	1,000,000	99. 8.18	이병수회원
(주)대로세라믹	2,000,000	99. 8.19	원종균사장
선종합건축(충북)	2,000,000	99. 8.21	오선교회원
에스비티(주)	2,000,000	99. 8.25	석진철사장
건원종합건축	3,000,000	99. 8.25	곽홋길회원
포스에이씨종합건축	1,000,000	99. 8.25	심정보회원
정일엔지니어링	2,000,000	99. B.26	송기덕회장
일진앞미늄	2,000,000	99. 8.28	점재회사장
한림종합건축	2,000,000	99. 8.30	오운동회장
황도종합건축	1,000,000	99, 8.30	김규태회장
삼풍엔지니어링	1,000,000	99. 8.30	인점환희원
예성건축	1,000,000	99. B.31	이문우회원
토문엔지니어링	2,000,000	99, 8,31	한남수회원
전우구조건축	1,000,000	99. 8.3	전봉수회원
건설기술인협회 -	5,000,000	99, 9, 1	황신모회장
교보생명	10,000,000	99, 9, 6	이만수대표
흥일건축	1,000,000	99. 9. 7	싢결용회원
건설단체연합의	10,000,000	99. 9. 7	장영수회창
회실건축	5,000,000	99, 9, 8	이영희회장
까치건축	3,000,000	99. 9. 8	김정식회원
엄이건축	3,000,000	99. 9. 9	이근장회원
술전건축	1,000,000	99. 9.11	이강범회원
암기주망건축	1,000,000	99. 9.14	최승원회원
(주)퍼시스	5,000,000	99. 9.17	권분열시장
서물건축사 신협	5,000,000	99. 9.29	이태회이사장
실우설계 -	1,000,000	99.10. 4	김창수회원
점링건축	3,000,000	99.10.13	긴정철 회 원
(주)한샘	미화 20,000\$	일근예정	조창길회장
건축문화의 해 조취위원회	10,000,000	입균예정	
한 계	122,000,000	D + 10-	

99건축사작품 초대전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우리협회는 회관 1층에 아키텍트갤러리 를 열고 기념행사로 「99건축사작품 초대 전」을 개최하여 10월 18일(월)까지 전 시한다. 류춘수(이공건축)의 「2002년 월드컵상암구장」, 정림건축의 「국립중앙 박물관」등 50점이 전시됐으며, 기홍성 조형에서 협찬한 한국전통건축물 모형 2 점도 함께 전시돼 관람자의 관심을 모았 다. 이번 초대전은 당초 9월 30일까지 전시하기로 한 것을 학생들의 연장요청 으로 10월 18일까지 전시하게 됐다. 한 편, 9월 9일 전시개막행사률 갖고 출품 자들에게 기념메달을 증정했다. 아키텍 트갤러리에서는 「건미회 미술전」과 「안



양과학대 학생전」 그리고 제5회 아카시 아 건축상 수상작 전시 등이 이어진다.

'99 건축사작품초대전 출품작(출품자) 명단

NO	작 품 명	사무소명	출품자
1	신영극장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강격세
2	갈평 피정의 집	건축사사무소 그룹가	강석원
3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옥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4	군포시민회관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호
5	청균헌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중원건축	김낙중
6	계명문화대학 예술관·학생복지관	(주)현대건축사사무소	김무권
7	대전법원 종합청사	(주)선진인지나머람 종합건축사사무소	김병년
8	수원영통 공공 도서관	(주)에이텍쫑합건축시사무소	김상길
9	곤지암주택	터 · 옮건축사사무소	김석환
10	서초동주택	(주)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	김승희, 강원필
11	천주교 초당교회	(주)건축시시무소 건축분화	김영섭
12	소공동제개발 한화빌딩	(주)아키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우성
13	울산대 종합체육관	(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김지덕
14	잌거당	이로재 김효만건축연구소	김효민
15	URBAN STORY	홍간건축사사무소	김회곤
16	오름경기장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노형래
17	광주시립미술관 교육홍보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기림건축	류연장
18	2002 서울월드컵 스타디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류춘수
19	태창철강 사옥	대상건축사사무소	박종석
20	대구온행 연수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년 용 , 정현화
21	XIAN	(주)진아건축·도시증합건축사사무소	부대진
22	교통박물관	삼우설계	
23	한세대학교 인문관 및 대강당	건축시서무소 삼일하나로건축	서찬식
24	연변과학기술대학 공학관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안결원
25	한국통신 여의도사옥	(주)엄앤드이 종합건축사시무소	

NO	작품명	사무소명	출품자
26	서울지하철 도봉산역사	종혈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 · 오	오기수
27	강북구민회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일건축	오봉석
28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	우양근
29	두신타워	(주)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규창
30	동부증권 사옥	(주)도사건축	이기범
3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주)공간종합건축사ベ무소	이상립
32	양천구민회관	(주)공간중합건축사사무소	이상림
33	부산시청사	(주)일신설계종합건축자시무소	이용홈
34	독수리다방	(주)이래종합건축사시무소	이인호
35	대구학생문화선터	(주)원양건축사사무소	이종찬
36	LG전자 정박임되스 생산가술연구원 · 식당동	(주)원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이충언
37	남양주시청사	(주)성림종합건축사시무소	임징렬
38	안천 문학경기장	(주)야도무종합건축사사무소	장석웅
39	국립중앙박울관	(주)정림건축	
40	총신대 100주년기념 교회당	정주건축연 구 소	정시춘
41	한ㆍ러 트레이드센터	(주)창조종합건축사시무소	조재원
42	가스안전공사 연수원	(주)예조종합건축사시무소	추영정
43	MOON	건축시사무소 Team531	최수역
44	고양시 덕앙구청사	(주)가와종합건측사시무소	최삼영
45	: 해관유치원	양기주망건축사사무소	최승원
46	농 <u>현종</u> 합유통센터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중헌	최종철
47	고려포리머(주) 사옥	종합건축사시무소 한 · 공간환경	한재원, 최병일
48	광주230	건축사사무소 토방	한진수
49	서울대학교 예술관 연구동	(주)일건건축사사무소	황일인
50	정보통신 공무원 교육원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99년도 제2회 임시총회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등 원안대로 승인

우리협회 99년도 제2회 임시총회가 지 난 9월 14일(화) 15시에 호텔 인터컨티 넨탈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됐다. 아카시 아포럼10 개회식에 앞서 열린 이번 회의 에는 재적대의원 501명중 328명이 참 석하였고, 일본건축사연합회 기꾸다께회 장과 몽골건축사협회 대표단이 함께 참 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아날 이외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속에 서 유치한 제10차 아카시아포럼에 적극 적으로 성원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이번 포럼이 한세기를 마감하는 의미깊은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건 축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가간 자격상호인정문제와 각종 건축 사관련 제도개선 등 눈앞에 닥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시장마저 내줘야 할지도 모를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건축사들의 결집 된 의지로 미래를 향해 진일보하는 새 출 발점이 되길」당부했다.

이날 부의안건으로는 제1호의안 정관개. 정(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윤리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제3호의안 윤리위 원화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등이 상정 되어 원안대로 승인됐다.



9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함 격자 발표

1.123명 합격

9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결과를 지난 10 월 8일 발표했다. 올 해는 총 4.814명이 응시한 결과 1.123명이 합격을 해 23.3%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이는 최근 4개년도 중 최저치로 나타냈다. 합격자 중 학력별로는 대졸이 62.7%로 가장 많 있고 전문대, 고졸 순으로 함격률을 보였 다. 또 연령별분포를 보면 30대가 가장 많은 77.5%였고, 그 다음으로 4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해의 최고특점은 하동원(부산전 문대졸, 32세)씨가 차지했으며, 최고령 은 54세, 최연소는 26세로 나타났다. 여 성합격자는 92명으로 합격자의 8% 수 준이었다.

(이번호 122쪽 참조)

99년도 제2회 임시총회 / 개 회 사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대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 니까?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본협회의 총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멀리 일본과 몽골에서 한 국율 찾아주신 일본건축사회연합회 기꾸다께 회장을 비롯한 일본대표 단 여러분과 몽골건축사협화 대표단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난해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 제10차 아카시아포럼을 유치했던 우리는 이제 잠시후 그 성대한 개회식을 갖게 됩니다. 이번 포럼이 완 벽한 준비하에 국내와 참가자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된 데는 대의원 여러 분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행사후원금 모금에 참여해 주셨던 여러 회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 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속에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한세기를 마감하는 의미깊은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건축史에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건축계는 새 천년을 앞두고 큰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놓 여 있습니다. 밖으로는 WTO 출범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시

장개방 압박 속에 국가간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 문제가 초미의 현안 으로 부상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개혁정책에 따라 건축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등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인 이 회장적을 맡게된 지 어느덧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말 본인이 회장에 취임할 당시는 IMF로 인한 경제적 불안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많은 회원사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 나라 한편에선 정부의 개혁정책에 따라 ▶협회의 회원가입 자유화 및 암의단체로의 전환 ▶도서신고 폐지의 입법화 등 각종 규제완화책들 이 강도높게 추진중이었던, 그야말로 황당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 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하면 1년여의 짧은 제임기간중에도 힘든 상황은 계속되었습 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6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UIA총회에서는 건축 사자격의 국제권장기준에 관한 표준안이 채택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건축사자격 의 국가간 상호인정 문제와 국제적 기준의 건축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 문제는 우리 건축계의 생존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다가셨습니다.

우리 건축계가 국제사회의 이같은 흐름에 발맞춰 교육개혁을 서두 르고, 각종 건축사관련 제도개선 등 눈앞에 닥친 산적한 과제들을 해

광주건축사회 99시민 건축대학 강좌

10월 19일까지

충분건축사회 시민건축대학 강좌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광주건축사회에서는 현장체험을 통하여 일반 시민의 건축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 키고자 99시민건축대학 강좌를 개설, 광 주건축사회관 5층에서 엹반 시민을 대상 으로 지난 9월 7일 시작하여 10월 19일 까지 실시한다.

10월 5일 전통건축/박강철, 10월12일 건축답사/천독염, 10월19일 건축과 건 강/김수인

문의: 광주건축사회(062-521-0025)



충북건축사회에서는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범하여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목요 일 오후 1시 30분부터 율람동 소재 한국 통신 충북본부 3층에서 충북도면을 대상 으로 8개 강좌를 개설, 제4기 시민건축 대학을 연다.

1강좌: 10월 7일 건축은 삶의 터전, 모 화의 바탕/ 이일훈(이일훈건축연구소)

2강좌: 10월14일 건축과 부동산/ 김행 종(한국토지공사)

3강좌: 10월14일 북한의 건축/ 이왕기 (목원대교수)

4강좌: 10월21일 예술속 공간탐험/ 박 연심(장원건축)

5강좌: 10월21일 풍수인테리어와 건강 / 소병권(고려풍수지리학회)

6강좌: 10월28일 고건축의 이해/ 장현 석(현석건축)

7강좌: 10월28일 고건축 답사/ 박성인 (기단건축)

8강좌: 11월 4일 청주건축, 자연건축/

문의: 충북건축사회(0431-223-3084)

김태영(청주대교수)

이의구 / 본협회 회장

결하지 않고는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시장마저 내줘야 할지도 모를 절 박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필요한 때이자 건축계의 일대 혁신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과거 100년간의 변화보다 더욱 많은 변화들이 불과 최근 10년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천년이 눈앞에 와 있 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국가간의 경계 를 더욱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 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경쟁의 대상이자 영원한 등반자로서 한국건축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나촐료'방식, '우물안 지키기' 주의로는 국 제사회의 호름을 따라 잡을 수도 없거니와 세계무대에서 영원한 2류 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에 맞는 새물을 준비해 중단없는 토전 을 경주할 때만이 희망이 찾아들며, 안팎으로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협회 또한 회원과 더불어 함께 뛸 것입니다. 회원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하겠으며 특히 건축사업무에 있어 최대한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지금과 같이 중요한 시기에 제10차 아카시아 포럼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 것은 매우 본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건축사들아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학술행사라는 의미 뿐 아니라 새 천년을 맞는 한 국 건축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란 정에서 큔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특히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 이란 학술 적 주제 이외에도 국가간 자격상호인정 문제 등과 같은 우리가 작면하 고 있는 광범위한 사안들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 하므로써 공동발전의 활로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건축사의 국제적 위상 제고 뿐만 아니라 한 국건축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돨 수 있도록 다시한번 대의원 여 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임시총회가 우리 건축사들의 결집된 의지로 미래 를 향해 진일보하는 새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끝으로, 이번 국제행사 를 준비함에 있어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도 리며, 이만 인사에 대신합니다.

충북건축사회. 건축사 토론 한마당

이츳원 박사 초청



충북건축사회에서는 회원들의 사기진작 과 전문직업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사 토론 한마당 행사를 주관하여 실시했다. 지난 9월 10일(금) 초정약수 스파텔에서 회 원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 사는 이충원박사를 초청해 전문직업인의 명예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길에 대한 강연을 들은 후 건축사의 급증에 따 른 덤핑수주 문제, 건축사업무보수기준 삭제에 따른 향후 대책, 건축사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해서 토론했다.

전남 건축사 회원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남건축사회에서는 전남건축사 회원전 올 개최한다. 99건축문화의 해 광주, 전 남지역추진위원회 등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는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10월 27일 부터 10월 29일까지는 MBC목포문화 방송 전시실에서 각각 열린다. 학생작품 도 함께 전시된다.

경남건축사회, 제1기 도민건 축대학 제9회 경남건축대전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남건축사회에서는 경상남도와 함께 제 1가 도민건축대학을 10월 14일부터 11 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경남여성회관에 서 개강한다.

또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경남 건축사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제9회 경 남건축대전 작품전시를 한다.

문의: 0551-246-4530



건축계소식 archi-net

한국건축문화엑스포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강문치에서 국내최초의 「미래건축」종 합전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새천년이 열 리는 역사적 전환기에서 인간생활의 기 본인 의식주의 한 축으로서 건축이 어떻 게 변화할 지룝 미래건축전을 통해 예측 해보려는 시도로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여의도 한강 둔 치에서 한국건축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99건축문화의 해(조직위원 장 김정철)를 맞아 99건축문화의 해 조 직위원회와 SBS가 공동주최하고 건축 문화엑스포행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건 축문화의 대중화와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 최대의 종합 건축행사로 마련된다. 크게 주제관, 모델하우스관, 건축산업관 그리고 행사/공연 등 4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내와 미래건축 관련 자료를 총취합하여 전시하므로써 미래건 축의 흐름을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건축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 이며,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재 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인들의 건축 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여 건축문

충북건축사회. 건축사 토론 한마당

이츳원 박사 초청



충북건축사회에서는 회원들의 사기진작 과 전문직업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사 토론 한마당 행사를 주관하여 실시했다. 지난 9월 10일(금) 초정약수 스파텔에서 회 원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 사는 이충원박사를 초청해 전문직업인의 명예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길에 대한 강연을 들은 후 건축사의 급증에 따 른 덤핑수주 문제, 건축사업무보수기준 삭제에 따른 향후 대책, 건축사행정처분 내용 등에 대해서 토론했다.

전남 건축사 회원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남건축사회에서는 전남건축사 회원전 올 개최한다. 99건축문화의 해 광주, 전 남지역추진위원회 등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는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10월 27일 부터 10월 29일까지는 MBC목포문화 방송 전시실에서 각각 열린다. 학생작품 도 함께 전시된다.

경남건축사회, 제1기 도민건 축대학 제9회 경남건축대전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남건축사회에서는 경상남도와 함께 제 1가 도민건축대학을 10월 14일부터 11 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경남여성회관에 서 개강한다.

또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경남 건축사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제9회 경 남건축대전 작품전시를 한다.

문의: 0551-246-4530



건축계소식 archi-net

한국건축문화엑스포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강문치에서 국내최초의 「미래건축」종 합전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새천년이 열 리는 역사적 전환기에서 인간생활의 기 본인 의식주의 한 축으로서 건축이 어떻 게 변화할 지룝 미래건축전을 통해 예측 해보려는 시도로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여의도 한강 둔 치에서 한국건축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99건축문화의 해(조직위원 장 김정철)를 맞아 99건축문화의 해 조 직위원회와 SBS가 공동주최하고 건축 문화엑스포행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건 축문화의 대중화와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 최대의 종합 건축행사로 마련된다. 크게 주제관, 모델하우스관, 건축산업관 그리고 행사/공연 등 4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내와 미래건축 관련 자료를 총취합하여 전시하므로써 미래건 축의 흐름을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건축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 이며,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재 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인들의 건축 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여 건축문 화의 대중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으 🕴 • 10월22일/13시30분~15시30분/배 로 개최되는 미래건축전은 건축이 열어 가는 새 천년의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총 8개실, 약1천평 규모로 이루어진다.모델 하우스관은 분양 및 홍보용 모델하우스 전시를 통하여 각 건축물의 특징을 부각 시켜고 실고객에게 다양한 분양정보 및 궁금증을 해소시킴으로 분양 및 개발사 물과의 적극적인 상담을 유도할 것이다. 건축산업관은 밀레니엄 시대의 다양하고 새로운 건축관련 제품들을 전문관으로 구성하여 건축, 건설, 디자인 실무자들의 실질적인 구매상담을 유도하고 일반 관 람객에게는 홍보의 기회를 제공한다. 개 막식은 10월 15일(금) 오후3시에 여의 도 한강문치에서 개최됐다.

문의:건축문화엑스포사업본부(744-2811손경익탐장)

한국건축문화엑스포. 건축가 초청 특별 강연회

2000년대에는 어떤 집을 지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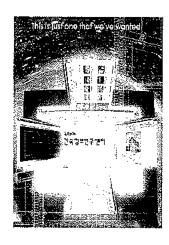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여의도 한강 문치에서 열리는 「한국건축문화의 스포」행사의 하나로 '건축가 초청 특별 강연회 가 열린다. 이번 건축가 강연회는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와 SBS에 서 주최하고 건축문화엑스포 행사위원회 와 현대건축이 주관하는 행사로 10월 15일 류춘수소장의 강연용 시작으로 11 월 13일까지 건축가 12인을 초청하여 지금까지 작업해 온 집에 대한 이야기와 미래의 주거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강연회 사회 및 대담은 건축가이 자 시인인 이윤하씨가 맡는다.

- 10월 15일/11시~13시/류춘수/좋은 집이란
- 10월 20일/13시30분~15시30분/김석 철/21세기 한국과 중국의 주거공간 비전
- 10월 21일/13시30분~15시30분/민 선주/함께 만들어 가는 집.

- 병길/시대와 주거공간의 함수관계
- 10월 27일/13시30분~15시30분/임 재용/땅과 프로그램야 만드는 집
- 10월 28일/13시30분~15시30분/이 강헌/간거리
- 10월 29일/13시30분~15시30분/김 봉렬/전통주거-앎과 삶의 공간
- 11월 3일/13시30분~15시30분/우 경국/느린 체계의 건축
- 11월 5일/13시30분~15시30분/정 기용/21세기 집-유목민과 정주민
- 11월 11일/13시30분~15시30분/감 병윤/일상의 톰으로써의 집
- 11월 12일/13시30분~15시30분/김 태우/행복이 가득한 집

건축기협회. 건축정보연구센테 개통

9월 9일부터 본격 건축정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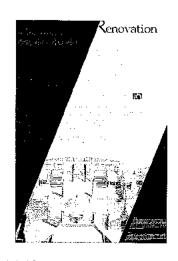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김한근)부설 건축 정보연구센터가 지난 9월 9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축정보 서비스를 시작 했다. 이로써 앞으로 국내와 유명 건축가 들의 건축물을 비롯해 각종 건축관련 정 보들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볼 수 있게 됐다. 건축가협회는 1995년부터 건축정 보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다방면 의 노력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7월 정보 통신부로부터 정보화 지원사업 선도용용 시범사업체로 선정되어 10개월여 동안 건축정보 멀티모달 검색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이 시스템은 관련 데이터의 제공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수 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메타 데이터 기반의 건축관련 정보제공 및 관리를 포 괄하는 종합건축서비스 시스템으로서 방 대한 건축정보를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제공하게 된다. ARICK에 접속해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는 건축가. 건축작품, 설계사무소, 건축기술, 건축도 서, 건축사료, 건축행사, 건축교육, 관련 사이트 등이며, 점차 국외 정보로 그 범 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을 위 한 영문검색 시스템도 별도로 두어 국내 건축가들에 대한 인물정보, 작품, 건축사 사무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3675-2550.

Http://www.arick.or.kr

제6회 탈도시 주택아이디어 공모전

목제를 이용한 리노베이션



이상건축이 주최하는 제6회 탈도시 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요강이 발표됐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예년과 마찬가지 로 탈도시 주거로 설정됐고, 단지 올해에 는 기존의 건축물들을 이용한 리노베이 션에 그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한 사용 될 주요 구조재는 목재로 국한된다. 이번 공<mark>모</mark>전의 당선작 10점에 대해서는 해외 건축기행 공전이 부여된다.

- 응모자격: 전국의 건축사사무소 직원, 전국의 건축관련학과 학생, 해외유학 생 1인1작
- 신청서배부 및 접수: 1999년 10월 18월~22일

•작품마감: 2000년 1월 25일~27일 문의: 02-549-5383

99목원 건축 · 도시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목원대학교 건축 도시공학부에서는 제 19회 목원건축전과 제11회 도시계획전 을 개최한다.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목원대 건축도시교육지원센터에서 전시 되는 이번 행사는 대외공모전 입상작과 동문찬조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한편, 이번 행사기간중에 남택종(간삼건 축/건축디테일 읽기, 쓰기, 말하기/10월 19일 11시)씨와 정 석(서울시정개발연 구원/겉고싶은 도시 이루기/10월 20일 15시)씨를 초청, 강연회를 갖는다.

건국대, 건축대학원 특강

류춘수, 오섬훈 등 강연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는 건축대학 원 로비에서 가율학기 특강을 하고 있다.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는 이번 특강은 지 난 9월 3일부터 시작하여 11월 26일까 지 금요일 저녁 6시에 진행된다.

- 9월 3일/김광현/왜, 지금 루이스 칸인가?
- 9월10일/박철수/미래주거공간의 전개 반향
- 9월17일/이은석/우리시대 건축에 있 어서 컨텍스트의 문제
- 9월20일/맥나마라/Letter from Britain, Research from the AASchool in London
- •9월30일/송도영/공간을 만드는 문화적 힘(0)슐람 전통도시의 정체성과 근대성)
- 10월 1일/한만원/추상과 유추
- 10월 8일/박찬수/생활속의 나의 발견
- 10월15일/오상길/현대미술과 전시공간
- 10월29일/홍윤식/한국의 불화와 가 람구조
- •11월 5일/오점훈/사건들의 조직 (NOMADICS)
- 11월12일/류춘수/멤브레인 건축과 서울 월드컵경기장
- 11월19일/정진국/꼬르뷔제의 건축색 채이론과 그 실제(1920~1930)
- 11월26일/김성기/유교의 자연관과 인간관

문의: 02-450-3286

🧵 홍익대, 제43회 건축전

11월 2일부터 8일까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11월 2일부 터 11월 8일까지 제43회 홍익건축전을 횽익대 신축강당 3층 전시실에서 개최한 다. 이번 전시회는 4학년 졸업작품과 생 태건축을 주제로 한 3학년 공동작품 및 1, 2학년과제와 함께 대학원 건축과제도 전시되며, 특히 졸업작품 중에서 4작품 을 선정하여 동문회장상도 수여할 예정 이다. 문의: 02-320-1106

파리국제건축자재전시회. BATIMAT99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세계최대의 건축자재 및 장비박람회인 BATIMAT99 파리전시회가 11월 8일 부터 13일까지 파리 PORTE DE VERSAILLES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최 신기술과 정보, 변화하는 건축계의 모습 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이번 전시회와 관련해서 범주관광(주)에서는 파리근교 에 보존된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견학도 함께 기획하고 있다. 한불문화협회장인 강석원씨가 인솔한다.

문의: 02-741-3656(구룹가건축), 02-558-0650~2(범주관광)

제주건축100년전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99건축문화의 해 제주지역 추진위원회 (위원장 강행생)에서는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 까지의 제주건축에 관한 작품을 모은 제 주건축 100년전을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전시실 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로 제주건축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건축과 미술」 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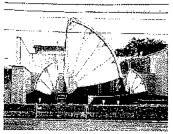
10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환기미술관에서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환기미술관에서 주최하고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가 후원하는 「건축과 미술」전이 환기미술관에서 10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열린다. 총 3부로 구성되는 이번 전사는 제1부 '건축가가 없는 집'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건축의 기능을 달성하는 공간으로써의 집을 통해 건축의 물성보다 인간의 휴머니티가 지배하는 순간, 그리고 건축가가 외도하지 않는 사회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삶 속에 공간을 다양한방법으로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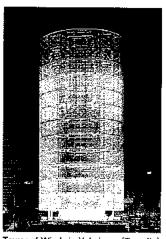
제2부 '구축된 삶의 공간'에서는 건축가 가 하나의 건축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간 혼적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건축물 등을 통해 건 제3부 '상상의 건축'에서는 사이버건축 및 종이건축을 통해 이미 상상속에서 건 축화된 모습을 살펴보고 건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일본 현대건축전

리켄 아마모토, 신 카마츠 경연



Earthtecture Sub-1(Shin Takamatsu)



Tower of Winds in Yokohama(Toyo Ito)

한국문에진흥원,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 원회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공 동 주최하는 일본현대건축전이 지난 10 월 1일부터 9일까지 문예진홍원 미술회 관 제2전시실에서 열렸다. 일본 현대건 축외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번 행 사는 1985년부터 1996년까지10년간 주요 일본건축물 사진을 전시했다. 참여 건축가는 이소자키 아라타, 구로가와 기소, 안도 타다오, 이토 도요, 우치지 소죠, 타케야마 미노루, 키타가오 아치시등이었다. 한편 일본 건축계의 거목으로 알려진 아마모토 리켄과 다카마츠 신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10월 6일과 9일에 각각 강연을 갖고 그들의 건축세계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서양 건축문화 비교 심포 지엄

'건축, 자연, 인간의 정주' 주제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서양 문화비교 프로그램을 기획, 그 첫 번째 행사로 동서양건축문화 비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건축, 자연, 인간의 정주'를 주제로 지난 10월 7, 8일양일간에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렸다. 참여건축가는 중국의 루조우, 프랑스의 피에르클레양, 일본의 야마모토 리켄, 다카마스 신, 이탈리아의프랑코 만쿠조, 미국의 우규승, 독일의리차드 로호바인 등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해, 김석철, 강 혁 등이참여했다.

건축신간

재미있는 건축법 따라잡기 주머니속의 건축 건축디자이너? 르 코르뷔지에 건축행정편람 실크로드가 남긴 역사세계를 찾아(1)(2)

◆재미있는 건축법 따라잡기



자칫 육중한 철물처럼 느껴지기 쉬운 건축 법을 재미있는 삽화를 곁들여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고,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 록 꾸몄다.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동산 관련 세금 등 건축관계법을 총망라해 놓아 이 한권만 있으면 웬만한 궁 금증은 해소할 수 있을 듯하다.

김원태 지음/271쪽/9천5백원/시공문화사 발행

◆주머니속의 건축



공사인 건축의 최부득회원이 쓴 현대인 이 알아야 할 건축이야기이다. 건축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건축에 관해 이 정 도는 알아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썼다 는 이 책에는 건축개론, 건축사(史), 국 내외 건축가와 그들의 작품, 현대인이라 면 꼭 알아두어야 할 건축상식 등 건축전 반에 관한 내용들을 사진과 함께 다이제 스트해 놓았다. 최부득지음/176쪽/9천 원/도서출판 미술문화 발행

◆건축디자이너?



건축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 혹은 그 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번쯤 읽어 본 만한 책이다. 건축가가 될 것인지 말 것 인지, 되기를 했으면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지, 건축가로서 살려면 어떻게 일해 야 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그리고 철학적 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간간이 일러스트 를 결들여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로저 K.루이스지움, 김현중 옮김/320쪽 /1만3천원/도서출판 국제 발행

◆르 코르뷔지에



르 코르뷔지에 건축은 우리에게 과연 무 엇인가? 12명의 저자가 설계이론연구회 에 몸담으면서 2년여간 집중적으로 연구 한 결과물을 책으로 묶었다. 이제 한국에 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 눈으로 그의 건축을 직접 살핀 직접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저자들의 공감 대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이니만큼 독창 적인 연구이론서이다.

김도식의 11명 지음/367쪽/1만 5찬원/ 기운당 발행

◆건축행정편람

이 책은 최근 개정된 건축법령을 내용과 해설을 곁들였으며, 건축법 및 건축사법 관련 질의회신 800여종과 건축법령관련 각종고시 및 지참 27종을 함께 수록돼



复有显易量

있다. 우리협회는 이 책을 회원에 한하여 10월 5일부터 11월 6일 한달간 구입대 금을 온라인 송금후 전화(02-2279-6912)나 팩스(02-2268-0688)로 구입 을 신청하면 보급가로 제공한다.

건설교통부 펴냄/1,120쮹/보급가 2만 원/미도인쇄 발행

◆ 실크로드가 남긴 역사세계를 찾아 (1), (2)



이 책은 저자가 15여년동안 실크로드 관 련 나라인 중국,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네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란,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집트, 튀 니지 등 아시아의 동쪽에서 지중해까지 탐방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과 역 사세계률 집대성한 글이다. 낙타와 무역 을 위해 만들어진 길이 아닌 아시아와 유 럽을 하나의 대륙으로 잇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 로마의 문화적 교류를 확대 시켰고,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의 길 로, 불교나 기독교, 이슬람교의 전파와 동서양의 문화 왕래의 장이었던 실크로 三를 통해 동서양의 건축과 문화의 원류 를 찾고자 했다.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각 각의 나라들을 차례로 묶어 저술하였고, 방대한 사진과 도면, 탁원한 스케치로 현 장감을 살리고 있으며, 답사지에 대한 자 세한 설명까지도 곁들여져 있다. 김성곤 지음/ 1만5천원/월간 이상건축 발행

Architecture

1999년 7월호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e

World Architecture

건축문화

a+u

신건축

근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권의 건 축이론서, K. Michael Hays편. Architec-



ture Theory Since 1968 와 Robert A. M. Stern외 2 인 저, New York 1880: Architecture and Urbanism in the Gilded Age를 소개 하였다. 한편, 최근작으로 랜드스케 이프를 건축형태화한 Hadid의 Garden Pavilion과 고밀도이면서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만들어낸 Morphosis의 롱비치 국제 초등학교 를 다루었다.

■ 건축 역사 이론서 소개

▶K. Michael Hays편,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Columbia/ MIT Press, 1998)

하버드 대학 건축이론 교수로 재직중인 Hays가 엮은 이 책은 John Oakman 의 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 A Documentary Anthology (Columbia/Rizzoly, 1993)의 뒤를 멋 는다. Hays는 이 책이 어느 정도 지적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만큼. 건축이론에 대한 개론서가 아님을 밝혔 다. 잘 알려진 건축가나, 건축 이론가의 글 47편을 수록하였으며, 각 글마다, 그 의 소개가 실려있고, 덜 유명한 글알 경 우 편집자의 타당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 고 있다. 1968년 학생 운동이후에 증식 한 건축이론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부상을 보여주는 Aldo Rossi와 Robert Ventury의 글도 실려있다. 이 선접은 1968년 이후의 건 축 작품의 형태적 분석과 사회적 배경 혹

은 콘텍스트의 관계로 특징지워지는 건 축 사고의 역사를 재구성하였다.

▶Robert A. M. Stern의 2 인. New York 1880: Architecture and Urbanism in the Gilded Age (Monacelli Press)

New York 1900, New York 1930, New York 1960의 속편 격인 이 책은 항구도시에서 상업. 제조업의 중심지로 변모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비평보다 는 중림적인 관점에서 어떤 한시대의 도 시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를 그려냄으로 써, 이 책은 참고 문헌의 기능을 할 수 있 도록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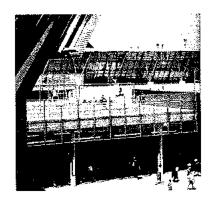
- 근작소개
- ▶ Zaha Hadid의 Weil am Rhein의 Garden Pavilion



매년 독일 각 도시에서 돌아가면서 6개 월 동안 꽃 전시회가 열리는데, 올해는 Weil am Rhein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 도시는 Vitra 소방서로 인지도가 높은 하 디드에게 설계를 맡겼는데, 그녀는 이전 건물과는 매우 다른 안을 제시하였다. 소 방서가 오브제와 같다면, 이 건물은 땅의 형태를 닮아 일체가 되어 있다. 즉, 랜드 스케이프를 건축으로 변형함으로써 이 건물의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가든 파빌 리언은 가든을 내려다보는 다리가 되기 도 하며, 올라서는 디딤돌이 되기도 한 다. 따라서 땅은 보여지는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이 된다. 한편, 이 건물은 개념적이고 지각적인 측면 뿐 아니라, 설. 비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전략율 갖고 있

다. 건물의 일부가 땅에 매입되어 있어서 주변 온도를 안정시키며, 창의 루버와 콘 크리트 벽에 단열재 등이 설치되었다.

▶ Morphosis의 캘리포니아 롱비치 국 제 초등학교



Morphosis는 기존의 LA지역 초등학교 보다 1/3 가랑 적은 땅을 차지하는 새로 운 타입의 공간 절약형 학교를 개발하였 다. 놀이공간과 마당 부분을 주차장, 도 서관, 윗 부분에 적충하고, 길가로 교실 동을 위치함으로써 2.5 에이커 대지에 1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캠퍼스 를 만들어 내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밀 도있는 도시성을 반영하여 외부공간과 통 합된 단일한 구조물을 제안한 것이다. 천 공된 금속판의 배경막을 서축 파사트에 부착하여 도시 외관에 대하여, 학교의 상 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 일단 그 금속 판 밑을 지나면, 각각 성격이 다른 일련의 마당 등이 입체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그 밖에 ▶ Michael Maltzan Architecture의 캘리포니아 Pasadena Kidspace Museum ▶ Daly & Genik의 캘리포니 of North Sandiego County, Valley Center House > Polshek and Partners의 코네티켓, Mash-antucket Pequot 박물관과 연구센터 ▶ Machado & Silvetti의 프린스턴 대학 내, Scully Hall 등이 자세히 다루어졌다.

■기타

▶ 건물의 최적화 설계에 큰 도움이 되는 3차원 열 흐름 분석도의 이용 ▶ 1996 년 예루살렘 세미나를 기록한 책인, Technology, place & Architecture 를 소개하였다.

World Architecture

1999년 9월월

미 중서부를 중절적으로 다룬 이번호 는 Gehry등 해외 스타 건 축가들의 중 서부에서의 활동과 그 지



WORLD

역의 건축상황을 소개하였다. 한편, 오스트렐리아 건축가, Glen Murcutt의 적절한 재료사용과 적절 한 대지 활용이 돋보인 교육센터를 소개하였다. 집중연구 편으로는 세 계각국, 특히 일본과 미국에 의해 주 도되고 있는 마천루의 건설상황과 기술적 정보를 소개하였다.

■ 최근 소식과 근작 소개

세계 건축계에서 일어난 최근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 포루투갈 Porto의 Casa da Musica 설계경기에 당선되고 건축 이론가나 페이퍼 아키텍트로 인식했던 미국에서도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게된 Rem Koolhaas의 인기도를 다뤘으며, Peter Eisenman의 IFCCA 상 수상 소 식 등을 다루었다. 한때 독일 산업의 중 심지였던 Ruhr 지구가 Perraudin Architects와 Jourda Architects에 의 해 환경적으로 세심하게 고려된 행정부 와 연구시설 단지로 새롭게 태어난 기사 와 영국 국립박물관이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의 전례에 따른 재계획 현 상공모 발주 기사를 실었다. 아시아 지역

은 오사카만에 지어질 안도 타다오의 Westin Hotel 프로젝트와 Fumihiko Maki의 나가타 시, Mandaishima 하 버프론트 재개발 계획을 소개하였다.

▶ 오스트렐리아 건축가, Glen Murcutt 의 Arthur and Yvonne Boyd 교육

이 교육센터의 목적은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살아있는 예술 센터"를 제공하고 인접한 곳에 위치한 예술가 거주단지의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 건물군은 각 도예 따라 다르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교육센터로 접근함에 따라 Murcutt의 트레이드마크인 골이진 철재 베란다 지 붕이 눈에 들어온다. 내부공간은 항상 랜 스케이프의 고려에 의해 조직된 것을 엿 볼 수 있다. 북쪽과 동쪽의 거대한 창은 Shaulhaven 강을 향해 열려 있으며, 재 활용된 슬레이트 스크린이 서있어 강의 전망을 때에 따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 21세기 건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 20회 UIA 대회

올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UIA 대 회의 주된 주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었다. 중국이 현재 심각한 생 태계 문제와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 에서, 대지의 이용과 교통에서부터 개인 건물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이 주제는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청하대 교수이 자. 중국 건축 협회 부회장인 Wu Liangyong와 Kenneth Frampton은 각각 건축가가 직면한 기술에 관한 문제 와 기회에 대해 대조적인 견해를 보였다. Liangyang은 기술의 건설적인 면과 파 괴적인 면을 경고한 반면, Frampton은 기술의 영향과 그로 인해 진화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을 건축과 도시에 대한 원동 력으로 설명하였다.



Glen Murcutt의 Arithur and Yvonne Boyd 교육센터

■ 지역연구 - 미국 중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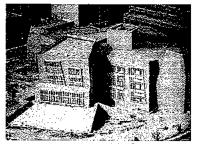
지난 10년간 중서부지역 건축가들은 도 전적인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 지역은 사적 부문 프로젝트의 증가와 정 부지원의 재생, 그리고 세계경제에 힘입 어서 유명한 건축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 으며, 정치,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이 지 역에서 최근 외국의 유명건축가들의 프 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스페인 계 건 축가 겸 엔지니어 Santiago Calatrava 는 1957 Earo Saarinen이 설계했던 Milwakee 미술관의 확장 계획을 맡았 으며, 시카고 Mies van der Rohe가 마스터플랜 했던 IIT 캠퍼스의 새로운 학 생회관을 로테르담 건축가 Rem Koolhaas가 디자인하게 되었다.

▶ 지난 10년간 신시내티 대학 마스터 플랜의 변형과정을 소개하고 이번 달에 문을 열 Frank Gehry의 Vontz Center와 Harry Cobb의 음악학교를 자세히 다루었다. Vontz Center는 다각 형의 버섯모양을 하고 있으며, 캠퍼스의 상징적인 건물이 되었다. 게리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야 건물에 대해 친근한 감정을 느끼기를 기대하면서 벽돌로 된 건물을 설계하였으나, 여유없는 예산에 직면하게 되었다. 연구실 설계경험이 없 었던 게리는 이 방면 전문회사이며, Kahn과 함께 Salk Institute를 설계한 바 있는 Earl Wall과 협력하였다. 위로 치솟은 아트리움은 모듈에 의해 결정되 는 실험실의 평면에 대한 보상이라는 듯 이 창의 형태가 비틀어져 있다. 거대한 창을 통해서 충분한 자연광이 유입되고, 실험실에는 기술적으로 걸러진 빛이 유 입되도록 하였다.

▶ SOM과 Frank Gehry의 시카고 밀 레니엄 공원 ▶ Lohan Associates의 시카고 Blue cross Blue Sheild of Illinois ▶ 교육시설 전문 설계회사인 Perkins & Will^al WW Grainger^al 본사건물 등 미 중서부에 최근 지어진 건 물들을 소개하였다.

■기타

▶ 영화나 광고 매체에서 현대건축물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상황 ▶ 현재 지어지



프랑크 게리의 「Vontz Center」

고, 지어질 계획이 있는 마천루에 대해 삼도있게 다뤘다.

건축문화

1999년 9월호

이번 호는 그 동안 그리 주 목받지 못한 20세기 초의 거장 R. M. 쉰들러에 대 한 특집이다. 다른 근대의 거장과 견주





어 손색없는 그의 작품세계를 다시 재조명해 보는 것이 목적인 이번 특 집은 그의 13개의 엄선된 주택작품 들의 도면과 사진, 간단한 설명과 쉰 틀러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여러편 의 에세이로 구성되어있다.

■특집 ~ R. M. 쉰들러(Schindler)

▶ 쉰들러의 작품세계

쉰들러는 르 꼬르뷔제 등의 근대 거장들 과 같은 시기에 많은 수의 작품을 남겼으 나, 리챠드 노이트라가 미국의 국제주의 양식 건축가의 대표로 인식되면서 그의 작품은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의 작품에서의 풍부한 공간체험은 그가 근대의 다른 거장들 못지 않은 작품세계 를 지녔음을 말해주고 있다.

형태상의 순수함이나 기능을 강조하는 근 대 건축의 주택 공간은 그 개념의 명쾌함

이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느껴 지게 되었는지 점점 살기 불편한 것들로 인식되어져온 반면, 쉰들러의 주택은 거 주할 사람과 그들의 행위, 그리고 집이 놓 여질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의 주택은 '사람들에 의해 거주되기를 기다리는 주택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은 레이너 밴텀(Reyner Banham)이 그의 글「Pioneering Without Tears」에서 유럽 아방가로드를 특징지운 '의도와 그것의 달성간의 긴장' 이 그의 작품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지 적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중에 미국 남 캘리포 니아에서는 쉰들러를 시작으로 많은 수 의 건축가, 예술가, 작가들이 '해방적 체 험⁸을 맛본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의 작 품은 이러한 해방적 체험을 표현하고 있 는 것이다. 벌거벗은 산과 경작되고 있는 들판으로 표현되는 전형적인 1920년대 로스엔젤리스의 풍경에 대조적인 강렬한 조형적 어휘로 이들을 표현하였다.

▶ 쉰들러의 주택 13제

이번 특집에 소개된 그의 주택 작품은 소 규모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20년대에서 40년대까지의 선별된 13개 작품이 사진 과 도면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소개된 작품들로는 킹스 로드의 쉰들러 자택 (1921-1922)을 포함해 하우 저택 (Residence for J. E. How, 1925),



백 저택(Residence for J. J. Buck, 1934)



될슨(G. C. Wilson) 저택(1935-1939)

로벨 비치 하우스(Beach House for P. Lovell, 1925-1926), 삭스 아파트 먼트(Apartment Building for H. Sachs, 1926-1940), 올리버 저택 (Residence for W. E. Oliver, 1933-1934), 백 저택(Residence for J. J. Buck, 1934), 워커 저택(Residence for R. G. Walker, 1935-1936), 부베 슈코(Bubeshko) 아파트먼트(1938, 1941), 윌슨(G. C. Wilson) 저택 (1935-1939), 맥키(Makey) 아파트먼 트(1939), 포크(S. T. Falk) 아파트먼 트 (1939-1940), 칼리스 저택 (Residence and Studio for M. Kallis, 1946), 티슐러(Tischler) 저택 (1949-1950) 등이다.

▶에세이

쉰들러의 작품세계를 소개한 에세이들로 는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개괄적인 서술 을 한 데이빗 르클레르(David Leclerc) 의 『The Cave and Tent』, 야츠카 하지 메(八束はじめ)의 "캘리포니안 메타모포 즈.. 고토 타케시(後藤 武)의 「케어 오브 더 바다 - 쉰들러의 '꽁간'』, 라이오넬 마 치(Lionel March)의 Music for the Eves: Schindler in Proportiona, 쿠마 켄고(常 研吾)의 「민주주의라는 환상」이 · 게재되었으며, 건축사진작가 쥴리어스 슐 면(Julius Shulman)에 의한 쉰들러 작 품의 사진과, 슐먼과의 인터뷰 『쉰들러는 언제나 플레서블했다』가 소개되었다.

a+u

1999년 9월

이번 호는 취리히, 암스테르담, 오슬 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3개의 젊은 건축가 그룹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 은 기곤 & 고이어(Gigon & Guyer), 클라우스 엔 칸(Claus en Kaan), 그리고 옌슨과 스코드빈 (Jenson & Scodvin)01 며, 유행하는 테마에대한 의식이나, 작 품에대한 수 사적 설명 없 이 묵묵하고



솔직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젊 은 작가들이다. 관련된 에세이와 함 께 9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 작품소개

▶ 3개의 젊은 건축가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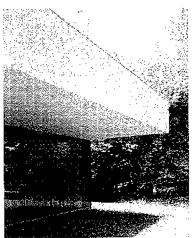
이번 호에서 소개한 기골 & 고이어 (Gigon & Guyer), 클라우스 앤 칸 (Claus en Kaan), 그려고 옌슨과 스코 트빈(Jenson & Scodvin), 이 3그룹 의 건축가들은 취리히, 암스테르담, 오슬 로라는 유럽의 각각의 도시에서 활약하 고있는 젊은 건축가들이다. 이들은 무어 라 한 마디로 꼬집어 그 공통점을 말하기 는 어려우나 이번 호에 소개된 한스 이배 링(Hans Ibeling)의 에세이에서 그 공 통점을 읽어낼 수 가 있다. "그들의 활동 에 의하여 활동에 의하여 시대의 환상이 체계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클라우 스와 칸에게 이론을 선호하는 그 어떤 태 도나, 시대의 유행을 염두해둔 선언문을 기대하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다. 따라서 유행하고있는 테마인 과밀이나 인공적인 랜드스케이프, 자유로운 모빌리티, 버츄 얼 리얼리티 등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 은 작품을 과장된 언어로 감싸려 하지 않 는다. 결과적으로 사무소의 관심사는 그 들이 의도하는 것, 즉 건축을 만들어 가 는 것 하나에만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이베링의 지적은 클라우스와 칸 에게 뿐만 아니라 이번 호에 소개된 나 머지 두 그룹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 여진다.

▶ 기곤 & 고이어(Gigon, & Guyer)의 작품들

그들의 작품들은 얼핏 보게 무심하고, 눈 에 따지 않는 건물들이다. 표현적 요소들 을 국도로 자제해 미니멀한 요소들을 지 니고 있으나 다른 작가들과의 차이점이 라고 할 것 같으면 오브제적인 순수함을 강조하지 않아 건물이 주변의 상황에 흡 수된다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 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하 겠다. 소개된 작품들은 SBB(스위스 연 방 철도)의 스위치 박스, 취리히 근교 주 택 2제, 오스카 라인하르트 미술관 '암 뢰마횰츠(Am R merholz) 의 중·개 축. 취리하의 주택 등이다. 이들의 작품 에 대한 에세로는 아더 뤼에그(Arthur R egg)의 「참/파사트」가 소개되었다.

▶ 클라우쇼 엔 칸(Claus en Kaan)의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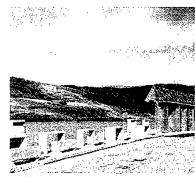


조르프폴리트(Zorgylied)묘지의 리셉션 공간

트웬트(Twente) 공과대학 칼스란 (Calsiaan) 학생기숙사의 리노베이션에 서는 1965년에 저어진 기존의 기숙사건 물의 외관을 개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 다. 전형적인 60년대의 국제주의 양식 건물의 외관을 전통적인 유럽 건축의 모 티프중의 하나인 두텁고 수직요소가 강 조된 벽으로 치환해 내면서 미니얼하고 정제된 현대의 미학을 가미하고 있다. 조 르프플리트(Zorgylied)묘지의 리셉션 공간에서는 벽돌조로 된 인접 건물에 흰 색 벽의 외관으로 과감성을 보이면서도, 극도로 단순화된 형태는 그들의 경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옌슨과 스코드빈(Jenson & Scodvin) 의 작품들

수려한 노르웨이의 자연경관을 따라 마 련된 등산로에 편의시설들을 마련하는



마운턴 로드 프로젝트(Mountain Road Project)

'마운틴 로드 프로젝트(Mountain Road Project)에서는 자연에 대해서 침 묵하듯 소란스럽지 않고 기능에 충실하 며, 건축물들 자신의 모습들에 신선감을 잃지 않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오슬 로 공항 주차장 구조물과 워몰드 (Wormold) 주택에서도 그들의 이러한 경향이 돋보이고 있다.

이들 작품에 대한 에세이로는 모텐 샤스 타드(Morten Siaastd)의 「생명의 거친 강건함」이 소개되었다.

신건축

1999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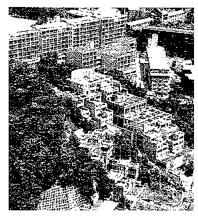
이번 호의 작 품 소개로는 3번째 단계 를 맞는 안도 타다오의 '로 꼬(六甲) 하 우징배 를 포 함해. 이소자



키 아라타(磯崎 新)의 '현립 군마(소 んま)천문대', 로카꾸 키죠(六角 鬼 丈)의 '동경예술대학 미술관', 쿠마 겐코(常研吾)의 '물의 동굴', 구로 카와 키쇼(黑川 紀章)의 토요타(豊 田) 대교와 나고야 도시고속도로 등 16개의 최신작품들이 소개되었으 며, 새로운 연재물로 「자연이란 무엇 인가,가 처음 선보였다.

■작품소개

▶ 안도 타다오(安藤 忠雄)의 '로꼬(六k 甲)하우장III'



로꼬 하우징은 안도 타다오가 1978년 그 1기를 맡아 연속하여 진행되어온 프로젝 트이다. 1982년 그 1기분이 완공되고, 2기는 1993년에 완성을 보았다. 수려한 산림을 바라보는 산속의 경사지에 계획 되어 테라스하우스 형식을 가미한 1기와 2기의 계획과는 달리 이들 2기분의 집합 주택군의 후면에 배경처럼 튤러싸면서 3 기분이 완성되었다. 3기분의 건물이 들 어선 곳은 앞선 것들에 비하면 비교적 경 사가 완만해진 평지로, 경사면에 가까운 곳에는 수평으로 확장된 건물군이 앞서 완성된 건물군과 연계감을 지니고 그 뒤 로 수직으로 높이 선 건물군이 병풍처럼 전체 단지의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 인 근의 경사지에 제 4기가 계획되고 있다.

▶ 이소자키 아라타(磯崎 新)의 '현립 군 마(ぐんま)천문대

헌립군마천문대는 군마현의 인구가 200 만에 다다른 것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관측 만을 위한 천문대가 아닌 일반인의 교육 및 관람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마련 되었다. 관측소이자 테마파크이기도한 이 천문대에는 직경 150cm의 반사망원



경을 비롯, 여러대의 망원경을 위한 몸을 포함하여, 전시장, 영상물 상영실, 도서 관, 관측 정원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섰 다. 모뉴먼트 광장에는 영국의 스톤 현지 와 인도 고대 천문대의 관측 기기들이 콘 크리트로 만들어져 전시되고 있다. 건물 은 산맥의 국선의 흐름을 따라 완만한 곡 선이 강조된 형태로 들어섰다.

▶ 로카꾸 키죠(六角 鬼丈)의 '동경예술 대학 미술관

거대한 배와도 같이 자리잡은 동경예술대 학 미술관은 동경예술대학의 오랜 숙원사 업의 하나였다. 지상 2층, 지하 3층의 건 물은 지상 2층의 자연광을 도입한 전시설 과 저하 1층의 전시실을 사이에 두고 1층 에 거대한 엔터란스 흙을 마련하였다. 수 직 동선은 거대한 타원형의 평면을 갖는 오브제로 처리하여 그 안에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의 코어를 설치하고, 외부에서도 오브제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수직동선의 흐름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 쿠마 겐코(常 硏吾)의 '뿔의 동굴' 부지는 일본 최장 운하인 貞山운하의 일 부분인 北北上운하와 구北上川이 만나는 교점에 위치한다. 이곳에 북북상운하 정 화사업의 하나로 導水機關관리시설과 기 계실이 들어설 것이 계획되었다. 이에 덧 붙여 교류시설과 운하의 전시시설이 함 께 계획되어 전시관인 '물의 동굴'이 계 획되게 되었다.

통계 statistics

설계도서신고현황

99년도 8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8월분(98.8) 2백9십4만1천4백47㎡ 보다 86.7%(2백5십4만8천9백65㎡) 증가한 5백4십9만4백12㎡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8월 누계 3천7백1십만3천7백83㎡ 보다 3.4%(1백2십7만5천2백21㎡) 증가한 3천8백3십7만9천04㎡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7월분(99.7) 5백9십8만2천2백26㎡ 보다 8.2%(4십9만1천8백14㎡) 감소한 5백4십9만4백12㎡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중감현황

(연년작기준) (단위/m										
구	분	1998년도	1999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 울	1,158.468	2,960.881	1,802.413	155.6					
	투 산	62,124	200,188	138.064	222.2					
	대 구	47,693	176,450	128,757	270.0					
	꽝 주	142,623	170,399	27,776	19.5					
	울 산	14,257	38,055	23,798	166.9					
	경기	332,335	970,304	637,969	192.0					
	강 원	39,169	77,845	38,676	98.7					
•	충남 62,462		76,614	. 14,152	22.7					
	전 북	37,749	49,044	11,295	29.9					
	경 북	81,760	117,764	36,004	44.0					
	경 남	211,170	335,824	124,654	59.0					
감소지역	인 천	338,531	103,791	(234,740)	-69.3					
	대 전	42,197	35,364	(6,833)	-16.2					
	충 북	274,633	100,895	(173,738)	-63.3					
ļ	전 남	64,997	55,491	(9,506)	-14 6					
	제 주	31,279	21,503	(9.776)	-31.3					
함	계	2,941,447	5,490,412	2,548,965	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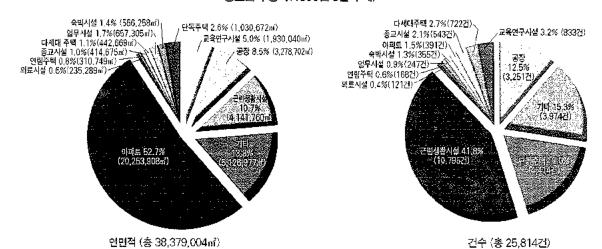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용도) 단 독 주 택	158,157 151,540 (4.4%)		
다 세 대 주택	55,969 (-38,8%) 91,450		
연립주택	- 45,321 57,896 (-21,7%)		3,047,668
아 파 트	299,615		(917.2%)
근린생활시섭	530,857 656,294	(-19,1%)	
좀 교 시 설	47.613 (-4.4%) 49.821		
의 료 시 설	46.903 (24.1%) 37,807		091
교 육연구 시설	255,067 270,529 (-6.7%)		8월 7월
엽 무 시 설	149,912 110,853 (~55.6%)	연연적 합계/ 8월:	5 490 412m
숙 박 시 설	44,816 (-16,1%) 53,425	7월:	5,982,226m (-8.2%)
공 장	573,179 661,358	(-13.3%)	
기 타	634,950 845,102	(-24.9%)	
	0 100ºº	2009ai	300만때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8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고	
용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비율(%)	
단 특 주 택	350	367	75,128	614	664	158,157	264	297	83,029	110,5	
다세대주택	44	46	17,226	94	100	55,969	50	54	38,743	224.9	
연립주택	13	13	18,009	26	31	45,321	13	18	27,312	151,7	
아 파 트	26	105	1,126,303	48	119	3,047,668	22	14	1,921,365	170.6	
근인생활시설	801	826	243,033	1,339	1,412	530,857	538	586	287,824	118.4	
좀 교 시 설	53	64	41,132	61	67	47,613	8	3	6,481	15.8	
의 료 시 설	6	6	66,708	13	13	46,903	7	7	(19,805)	-29.7	
교육연구시설	83	87	186,535	126	139	: 255,067	43	52	68,532	36.7	
업 무 시 설	41	43	323,632	36	36	1 49,912	(5)	(7)	(273,720)	-84.6	
숙박시설	31	32	35,355	60	71	44,816	29	39	9,461	26,8	
공 장	208	262	224,475	485	671	573,179	277	409	348,704	155,3	
기 타	427	488	583,911	454	549	634,950	27	61	51,039	8,7	
합 계	2.083	2,339	2,941,447	3,356	3,872	5,490,412	1,273	1,533	2,548,965	86.7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1999년 8월 누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8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비			ul 5		
건축사회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비율(%)	비고
서	울	327	337	1, 15 8,468	414	424	2,960.881	87	87	1,802,413	155.6	
뿌	산	67	123	62,124	188	317	200,188	121	194	138,064	222.2	
_ 대	구	109	109	47,693	166	166	176.450	57	57	128,757	270.0	
인	천	76	76	338,531	93	93	103,791	17	17	(234,740)	-69.3	
광	주	68	91	142,623	176	213	170,399	108	122	27,776	19.5	
대	전	48	48	42,197	68	68	35,364	20	20	(6,833)	-16.2	
울	산	47	57	14,257	69	69	38,055	22	12	23,798	166.9	
경	기	410	504	332,335	764	951	970,304	354	447	637,969	192.0	
강	원	153	161	39,169	217	225	77,845	64	64	38,676	98.7	
충	북	135	175	274,633	221	246	100,895	86	71	(173,738)	-63,3	
충	남	134	108	62,462	149	149	76,614	15	41	14,152	22.7	
전	早	74	74	37,749	103	103	49,044	29	29	11,295	29.9	
전	남	113	127	64,997	99	102	55,491	(14)	(25)	(9,506)	-14.6	
경	북	122	124	81,760	204	240	117,764	82	116	36.004	44.0	
경	남	129	142	211,170	350	421	335,824	221	279	124,654	59.0	
져	주	71	83	31,279	75	85	21,503	4	2	(9,776)	-31,3	
합	계	2,083	2,339	2,941,447	3,356	3,872	5,490,412	1,273	1,533	2,548,965	86.7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똥기대비 현황(8월 누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ul
건축사회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통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비율(%)	비호
서	울	4,053	4,107	20,335,853	2,968	2,984	20,712,580	(1,085)	(1,123)	376,727	1.9	
부	산	1,232	2,195	2,039,049	1,297	1,849	1,186,181	65	(346)	(852,868)	-41.8	
대	구	766	766	635,902	1,236	1,236	1,012,879	470	470	376,977	59.3	
인	천	995	1,005	1,660,199	889	926	2,013,329	(106)	(79)	353,130	21,3	
광	주	761	939	573,706	1,011	1,199	779,300	250	260	205,594	35,8	
대	전	625	625	560,420	674	674	385,907	49	49	(174,513)	-31.1	
울	산	365	379	217,346	766	779	493,821	401	400	276,475	127.2	
경	기 .	5,634	6,570	4,586,416	5,747	7,032	5,530,252	113	462	943,836	20.6	
강	원	1,509	1,679	835,200	1.418	1.542	538,893	(91)	(137)	(296,307)	-35.5	
충	북	1,436	1,756	1,640,047	1,702	1,956	1,039,331	266	200	(600,716)	-36.6	
충	남	1,295	1,094	699,148	1,424	1,424	777,360	129	330	78,212	11.2	
전	북	624	624	455,377	997	1,016	556,397	373	392	101,020	22.2	
전	날	835	925	460,818	1,378	1,429	678,472	543	504	217,654	47.2	
경	북	1,314	1,468	759,825	1,541	1,783	1,044,943	227	315	285,118	37.5	
경	냠	1,554	1,915	1,424,098	2,115	2,451	1.386,576	561	536	(37,522)	-2.6	
제	주	496	576	220.379	651	736	242,783	155	160	22,404	10.2	
합	계	23,494	26,623	37,103,783	25,814	29,016	38,379,004	2,320	2,393	1,275,221	3.4	()=마이너스